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1

감전동

사람들 이야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일러두기

1. 이 자료집은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용역을 통해 수집된 감전동 생성 과정과 주민생활 변천이라는 주제로 채록된 10명 구술 녹취문 중 핵심 내용만을 발췌하여 편집하였다.
2. 이 자료집은 각 구술자로부터 사전에 자료이용 및 도서 발간에 대한 동의 받은 후에 발간하였다.
3. 이 자료집은 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술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자가 편집·정리하였다.
4. 구술 내용 중 사실을 재확인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구술 내용 뒷부분 또는 각주를 달아 표시하였다.
5. 이 자료집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뒷부분에 구술자료에 대한 해제를 수록하였다.

발간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는 부산지역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채록·정리하여 생활사 관련 구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구술자료 중 유익한 자료를 발췌·편집하여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연구자와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감전동 사람들 이야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을 통해서는 감전동 토박이의 삶은 물론 이주민의 삶, 낙동강에서의 재첩 채취, 재첩국 제조과정과 판매, 갈대 빗자루 제작 및 판매, 사상공단 조성에 따른 변화 등 감전동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엿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사업을 진행해주신 면담책임자들과 구술에 응해 주신 마을 주민들, 자료집 발간을 위해 해제 원고를 집필해 주신 선생님, 자료집 편집과 발간을 진행한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상임 및 연구 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4월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차례

일러두기

발간사

1. 인(人) : 살아가다

1) 감전동 토박이 배영희	10
2) 감전동을 사랑하는 정정자	12
3) 먹고 살기 위해 감전동에 온 윤옥자	14
4) 방앗간을 운영하는 김성순	16
5) 외가로 시집온 조정순	18
6) 부모님 일자리 찾아 온 설정숙	21
7)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종현	23
8) 4H운동을 참여한 김성한	25
9) 학교가기 위해 감전동에 온 강기숙	27
10) 새벽시장 상인 박은옥	30

2. 동(動) : 움직이다

1) 마을풍경	36
2) 골목시장	48
3) 하천	51
4) 당산나무와 당산제	55
5) 지역감정	62
6) 자녀 키우기	67
7) 여가생활	72
8) 주택구조	76
9) 물난리	80
10) 환경오염	85
11) 뽕뿌라마치	94

3. 강(江) : 흘러가다

1) 갈대	102
2) 채첩	108
3) 하굿둑	118
4) 강변	125

4. 사(事) : 일하다

1) 새벽시장	132
2) 사상공단	145
3) 생업	156

5. 에필로그

178

6. 감전동 구술자료 해제

187

인(人) :

살아가다

감전동 사람들의 삶의 궤적은 모두 다르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은 이곳, 감전동이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의 삶을 살았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밥을 내어주었고 밥을 지었고 물건을 팔았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난 시절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토박이라. 토박이.”

배영희 : 저는 예 1946년 10월 29일생입니다 어 이름은 배영희. 성은 ‘배’가고 이름은 ‘영’자 ‘희’자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성함을 말씀 드리자면 ‘배행운’씨고 아버지 이름은 ‘배유상’이라고 하고 저는 ‘배영희’라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원래 주례였거든 아버지도 고향이 주례고 내가 이제 고향이 감전이고. 본관은 김해지만 우리 12대손 할아버지가 주례에 묻혔어요. 부산 토박이지. 당산 있는데 살다가 지금 여기로 15살 때 이사 왔어요. 우리 집 여기는 초가집이었거든 아버지가 계실 때 내하고 같이 기와집을 지었어요. 우리가 여기 콘크리트 지어서 살고 있지. 여기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내가 15살 먹었을 때 전기가 있었는갑다. 전기 조명이라 하면 요새 신식 말이지만은 옛날에는 전구다마. 다마 하나 달면 한 달에 뭐 이백 원 사백 원 이렇게 세를 줬다 아닙니까. 15살 때는 여기 백 세대 이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 5년 있으니까 사상공단이 되더라고.

배영희 :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갈대빛자루를 만드는 걸 보고 배웠어. 우리 어무이는 재첩국을 많이 끓여 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팔고 새벽 4시만 되면 여서 걸어 갑니다. 여서 뽀뽀뿌라마치까지 올라가가 거서 또 주례로 서면으로 나가가지고 교통부 있는 쪽으로, 또 저 조방 앞 그리 가서 팔았지. 한 그릇에 백 원, 백 오십 원 이래 했어. 여기 할머니들은 거의 다 재첩을 많이 했어.

배영희 : 나는 결혼을 좀 늦게 했어. 친구들은 이십대 초반에 다 했는데 나는 서른둘에 했다. 옛날에 한 삼십년 넘게 오락실도 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식당 같은 것도 해보고, 식당은 순 외상 장사라 오락실은 현금장사니까, 작아도 현금장사니까 그래가 다시 그거를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하다가 인자 그만 둔지 한 십년쯤 됐다.

배영희는 감전동에서 출생한 감전동 토박이다. 그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이곳에 거주하였는데 집안대대로 갈대빗자루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갈대는 인근 삼락공원 쪽에서 채취하여 여러 절차를 거쳐 빗자루로 만들었다. 빗자루 뿐만 아니라 김을 말릴 때 사용하는 김발이나 창문에 드리우는 발, 예전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던 그늘막을 만들기도 했다.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인근의 지명이나 변화에 대한 기억이 많았고 마을 당산제와 관련된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공단의 이전으로 마을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마을이 쇠락하자 재개발을 통해 마을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감전동이 제일 좋습니다.”

정정자 : 저는 감전동에 41년째 살고 있고요. 두루두루 동네를 위해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봉사를 좋아하고 통장 12년째로 해서 북부소방서에 의용여성 소방대원으로는 30살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봉사, 밥 봉사 10년째. 또 자장면, 또 복지관에 봉사 뭐 두루두루 저를 필요로 하고 또 저도 좋아서 다양하게 몸 안 아끼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어릴 때 살았는데 대북 설매리 부모님 고향입니다. 위로 오빠야가 있고 오빠야 8살 때 저 3살 때 부모님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총 가족은 2남1여 저 남동생이 있었고 제가 3살 때 대신동 와가지고 대신동에서 10년 살다가 인제 감전동으로 살았는데 진주에서는 농사지었죠. 그때는 거의 다 농사. 아버지는 남의 집에 일도 해주고 품삯 받아오고 엄마가 농사짓고. 그래가지고 큰아버지가 이래가지곤 안 된다. 부산에 가면 먹을게 안 있겠나. 친척분 중에 부산에 대신동에 먼저 오신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노가다 일용직으로 미장하는 거 뭐 이런 거 먼저하고 계셔가지고 큰아버지가 먼저오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너그도 일로 온나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대신동에서 노가다 했죠. 그 또 있다 보니까는 엄마가 진짜로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조금씩 빚도 없고 이래가지고 감전동에 집에 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기 감전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정정자는 진주에서 출생하여 10대 시절 감전동으로 이주하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

해서 부산으로 이주 했듯 그녀의 가족 또한 도시로 나와 생계를 이어나갔다. 20대에는 부산지역의 여러 공장에서 사무 일을 맡아 일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감전동으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감전동에서 장관, 도배일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공단근로자들이 거주하는 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은 항상 호황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마을의 대소사에 두루 관여하고 있었는데 특히 마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만큼 감전동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래서 이곳이 예전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니가 고생을 많이 했다. 여 와 처 안 해본 일이 없다.”

윤옥자 : 나는 여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동네에서 이사가갔고 시집가갔고 요리 이사 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내 서른 다섯에 다리를 절단해갔고, 배 타다가 물에서 절단 해서 다리를 세 번을 잘랐는데 다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갔고는 인자 1급장애자다. 나도 인자 여기 와서 스텝공장 연탄장사 하다가 골병이 들어서, 스텝공장을 해갔고 거기서 금통 찜통 그런 걸 짓다가 이 손을 뺐사부렸어.

윤옥자 : 할아버지랑 증매 해갔고 시집갔지 을 친정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그냥 날 ‘니 시집가그라’ 그러고 옛날에는 못 살아논께 밥이라도 먹고 살라고 시집을 보내갔고는 그러고 인자 산거지 열여덟 살에. 여수에서 살다가 인자 사촌오빠가 여그 벌어먹기 좋다 해갔고는 그래서 부산으로 왔지 우리 사는 집을 팔아갔고 땅은 그대로 놔두고 왔어. 아들은 거기서 다 놓고 나서. 그때는 젊었었지. 사촌오빠는 감전동에서 목재소를 옛날 요 110번 종점에서 목재소를 하면서 ‘동삼아 가자 부산에 가면은 벌어먹기 좋다’ 그래갔고 와서 연탄장사를 한거야. 우리 집 촌에서 팔아갔고 와서 동사무소 뒤에 주차장 앞에 집을 산걸 그저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왜 다리가 절단이 됐냐 하면은 배 타다가 그랬어. 배에 저거 요 집 짓는 모래 실어다 나르다가, 모래를 건 자가 오는 그래 인자 모래를 싣고 한배 싣고 오다가 파도가 폭풍이 불어 뿌렸어. 그래갔고 인자 이 배가 그냥 가다 짐이 한배 해 논께 물밑에 가라앉아 버리고 을 할아버지는 떠돌이 신세가 됐지 이 배가 가라앉으면 후다가 있거든 철 후다가 이리 저리 물 따라

맹기거든. 그러다가 물바다가 파도가 썰니께 올 할 아버지가 인제 다리가 그래 됐지. 다리를 싸갖고 이 불 두 채 세 채 싸갖고 가다가 피가 다 빠져 부렸 제. 백병원 응급실에 해갖고 지금 어서 낮아 줄라꼬 다리를 무릎팍 아래로 잘라놓고는 날보고 화장터 갈 란다고 돈을 4만원 주라. 초상친다고 주라는 거야 나는 돈 없다하고. 억울하지 돈이 뭐 필요 하나 건 강이 재산인데... 우리 할아버지 서른다섯 살에 그랬 어. 그래 1급 장애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서른다섯에 그러가 나랑 둘이 하자고 연 탄장사 저걸 시작했다. 겨울에는 연탄장사하고 여름 에는 얼음장사하고. 나는 배달하고 할아버지는 앉아 서 수금하고. 그래갖고 내만 골병이 들었어.

윤옥자는 여수에서 출생하여 결혼 후 사촌오빠의 소개로 감 전동으로 이주했다. 7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만으로 먹고살기가 힘들어 공장이 있는 도시로 이주하 였는데 윤옥자 역시 그런 경우였다. 감전동으로 이주한 후 남편 은 모래를 운반하는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하는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 하지만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상이나 복지에 대 해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고 몸이 불편한 남편 대신 그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지인의 소개로 연탄 소매업을 했는데 직접 리어카를 끌고 감전동 일대에 연탄을 배 달해야 했다. 감전동 일대는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연탄의 수요가 많았고 그만큼 많은 연탄을 배달해야 했다고 한다. 여름 에는 얼음을 배달하는 일도 했는데 짐차 연탄이나 얼음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며 자연스레 일을 그만두었다. 현재는 남편과 자 신 앞으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살만하다고 했다.

“처음에 부산왔을 땐 안 좋더라고,
다시 와서 이 장사를 하느라 지금은 그냥 마, 좋다.”

김성순 : 목포에서 태어나서도 일찍 나와 버려 놓으니까 요즘
고향 잘 모르겠더라고, 많이 바뀌어버리고... 전남
무안에 그니까 광주 목포 중간 사이에 있어요. 무안
이. 바닷가요. 앞뒤로 바다가 있어요. 굴도 까고 뭐
했어도 저는 굴 까려는 안다녔어요. 엄마만 다녔지.
그냥 밭일 이런 거 고구마 캐고 고구마 심고 막 이
런거. 보리 심고 보리타작 하는 거 그런 것만 했었
죠. 거기는 밭이 많으니까. 무안 쪽 거기는 논이 많
이 없었거든요. 밭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조금 일
을 많이 하지요. 나는 처녀 때 직장 다녔잖아요. 촌
에는 뭐 그전에 일 안하면 할 거 없잖아요. 전라도
에 공장도 없고 그래노니까 그러가 뭐 공장이 뭐 좋
은데 있다 돈 벌러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 갔었어
요. 친구 따라 간 것 같아요. 성남에 살았어. 대영타
이어 다녔어요. 거기서 우리 아저씨 막내 이모부하
고 나하고 한 고향 사람인데 우리 고향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쯤 조카 있다고 해가지고 중신을 해가
지고 만났어요. 아저씨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우리
아저씨는 부산에 우리는 성남 살고 있는데 부산 오
니까 영 안 좋던데 그래서 내가 그냥 성남으로 도로
가니까 따라왔었어요. 성남으로. 아저씨는 성남에
그 저기 아세아 농기계 다녔거든요. 그 전에는 직장
다녀도 월급이 별로 안 많았어. 그래서 여수 뭐 시
부모님들 계시는데 월급이 많다고 그리 내려오라서
내려가서 보니까 노가다 일더라고. 월급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비오는 날 못가고 뿔 헛 날 빼고 포
떼고 장 떼니까 똑같애. 몸도 상하고. 그래 성남 있
을 때 농기계 다녀 노니까 대구에서 현풍에 아시아

농기계 있잖아. 인제 친구가 오라해서 일로 왔었죠. 고치고 하는 기술이 있어노니까. 대구서 아시아 농기계 다니는데 요 부산여기가 큰 시숙이 살았거든요. 고추장사 했는데 좋은 자리가 났다고 오라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여기로 올라왔지요. 우리 딸애가 초등학교 일학년 때 왔거든요. 팔십육 년도에 좋은 자리가 났다는게 이 자리. 그전에는 국제상사도 있고 성화도 있고 뭐 신발 공장 같은 거 있을 때는 이 골목에 사람이 뽁뽁해 가지고 퇴근 시간에는 서로 이래 비키고 다녔었어요.

김성순은 목포에서 출생하였으나 일찍이 고향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였다. 전라도는 공단이 형성되지 못해 부천, 성남 등지를 돌며 공장을 다녔고 그곳에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전동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도 많이 변했음을 느끼고 있다. 공장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살던 시절에는 지금의 골목시장이 사람들로 가득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람도 빠져 나가고 주변에 마트들이 생겨 더욱 더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지금도 감전동을 살기 좋은 동네이나 조금 더 깨끗해진다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라 이야기 했다.

**“원래 우리 외갓집이 여기였어요.
시집도 여기로 왔지. 바로 여기에서 60년을 살았네.”**

조정숙 : 내가 태어난 곳은 김해, 우리는 김해읍일 때 부원동 2구.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시청있지예, 김해시청 바로 옆에 거기서 살았어, 지금도 우리 동생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지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소가지고 논 갈고.. 시청 지은 데가 예전엔 그 슬밭이거든, 큰 슬이 있었는데 그 밑에도 전부 다 농사를 지었지, 밑에 공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기고 이래 됐지. 나는 7남매라, 7남매나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못 사니까 학교도 못 갔어요. 내가 집에 형제들 보고 밥해먹고... 학교도 못 가고 동생들 봐야 되고 어른들 일하러 가제, 밥 해무야 되고 집을 지켜야 돼. 옛날에 학교도 공부도 못했어요. 학교갈라고 울고, 아를 데리고 학교 갔어요. 옛날에 동남국민학교, 학교는 가고 싶은데 동생들 데리고 학교를 못가자니예.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조정숙 : 김해에는 일본사람이고 미국사람 많이 살았어. 상계라고 있었어. 거기에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 거기 길이 없어가지고 각 부락에 반장들이 이래 가면 며칠씩 쪼개난 다라이를 이고 길도 닦으러 가고 그랬어. 말하자면 보급대. 한국전쟁 때 김해에서도 상계 거기가 탄알 그거 싣고 가다가 터져가 불이 났는데 댄 사람들은 피난 가는데 우리는 보호구덩이 파가지고 집에 있었어. 가족이 흩치며 안 된다고 아버지가, 자식들 흩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안 갔거든. 거기 기억나. 지금 시청 자리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 산이거든 거기 산모퉁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소 몰다가 쟈혀 오고 타작하다가 쟈혀 오고 이래가지고 참. 마 배고파서 죽는 기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반장이 됐거든. 하룻

저녁에 보통 두 사람씩 밥을 해 줘야해, 그 포로민들
로... 밥도 해주고 저녁으로 재워주고. 다 굶어서 죽었
지. 그래... 굶어 죽었어. 춥고 하니까는 배는 고프고
따뜻하거든. 누워가지고 죽어 빠고...

조정숙 : 감전동에 우리 외갓집이 있었거든. 내나 여기가 그때는
감전동이 아니고 장인도라. 어릴 때 외갓집 내 왔지.
구포로 해서 걸어왔지, 차가 어디 있노. 김해에서 다리
로 해가지고 걸어왔지. 여기는 모를 숨가 놓으면 비가
오면 물 담아 빼면 마 절단나 빠리고 파 물어버리고
이랬어. 강이 넘쳐가지고. 집도 후진 초가집, 집은 몇
개 안 됐어요, 여기. 우리가 앉은 자리가 저는 채소밭,
도로라 수로 동사 짓은 수로. 도로확장하면서 우리가
밀리 난기야, 이기 안으로. 요 앞에 초가집이 하나있었
는데 우리 큰집은 앞에 공장 터 우리 큰집이 있었어,
시가집이. 근데 우리는 집도 없어가지고 살림은 내나
알קות은 오막살이에 전기하나 방하나 거기 내어 봤어.
그 집도 이래가 요 터라. 이사를 안가서 60년 동안 이
사 한번 안 갔어요.

조정숙 : 우리 친구가 또 여기 있었는데 외갓집에 친구 오빠라
는 사람이 내 아저씨다. ‘친구가 우리 언니하자’ 하고
우리 외갓집이 있고 해서 결혼했지. 할배는 35년생이
라. 처음에 직업도 없고, 배 탔어요. 조갯배 타더라고,
배를 가지고 있었던게 아니고 재첩이 나니까. 배를 조
금 조금 하는 거 만들었지, 나무배로. 이전에는 풍승
달아 땡겼거든 노 젓고 그래가지고 재첩 잡다가 인자
조금 발달 되가 경운기 없어가 땡기고, 그거를 없어가
지고 탕탱탱 다녔다.

조정숙은 이곳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외가가 감전동에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감전동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김해에서 부모님과 걸어서 외갓집으로 오던 길과 초가집의 모습, 논밭이 있던 풍경 등은 그녀에게는 아직 생생한 추억이다. 조정숙은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조갯배를 몰며 재첩 중간상을 했다. 을숙도 하굿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재첩이 손으로 건질 수 있을 정도로 많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재첩으로 먹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둑 건설 이후 재첩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첩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재첩국의 맛 또한 예전의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며 아쉬워했다. 그녀에게 낙동강을 끼고 있는 감전동이 삶의 전부였으나 흐르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예전 낙동강의 모습은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먹고 살라고 여기를 안 왔다.”

설정숙 : 아버지 고향은 함안인데 군에 제대하고 부산에 요 부
두에 있다가 내가 어릴 때 갔다 다시 왔다 하더라고.
그래 함안에서 한전에 조금 다니고 그랬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한전에서 발전소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한전
에 수금사원으로 다니셨지. 옛날에는 전기회사에서 돈
받으러 수금하러 다녔었거든. 엄마는 사리시라고 하얀
거, 기저커 채우는 거 옛날에는 기저커를 천으로 했거
든. 그 공장에 다녔다. 베도 짜고 함안에서 닭도 키우
고 그랬다. 그래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넘
주가 재판을 또 몇 년 했다. 15살인가 16살인가, 부산
으로 왔지. 초등학교는 거서 나왔어. 여기에 종고모가
살았거든. 아버지 사촌 여동생들이 살았어. 아버지가
거기서는 힘든 일 못하겠다. 모르는 동네 가서는 노가
다라도 하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감전동
으로 왔어. 아버지는 노가다 일하고, 저 서부 사상터미
널 거기도 산이었다. 그 산을 깎아 뱀다 아니가. 엄마
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첩국, 재연동이지 옛날에 을숙
도 다리하기 전에 장인도 거기 가면 배타고.. 재첩 잡
으러 가거든. 그때는 조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엄마는 서른 몇 살 때 이사 왔는데 전신에 초가집도
있고 슬레이트 집, 전부 슬레이트 집이 많았지. 그리고
마 똥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엄청났지. 화장실은 재
래식이지 재래식화장실. 수세식은 부자는 있었겠지만
감전동도 부자는 있었겠지만 대부분 재래식. 우리집은
없어졌다. 원래 동사무소 뒤쪽, 방하나 부엌하나 그랬
지. 돼지새끼 맹크로 살았지. 7남매니까. 오빠가 공부
를 좀 했는데 딸아들은 마 공부 안 해도 된다 해서 여
와가 신발공장 다니고 그랬다.

설정숙은 함안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감전동으로 이주하였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은 공사에서 노동일과 재첩장사를 했다. 그녀 또한 성인이 된 후 공장을 다니며 가게에 보탬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베트남 파병 군인과 펜팔을 하며 설렜던 기억을 말해주기도 했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시내를 돌아다니던 시절을 이야기 해 주기도 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 후 김해에서 농사를 짓기도 했으나 그것만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다시 감전동으로 와서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그때는 상권이 활발했던 시기라 장사가 잘되었지만 IMF사태 이후 결국 문을 닫고 지금은 손자들에게 주는 용돈벌이라도 할 겸 새벽 시장 안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이다. 그녀처럼 힘든 삶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

“감전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달동네처럼 친근하고 좋은 동네야.”

김중헌 : 73년도에 부모님들이 감전동으로 이사를 왔어. 나는 그때 고등학생이지. 원래 수산이라고 있어. 밀양 쪽에 동명고등학교를 그 학생이라 그때 내 고 2때 부모님이 감전동으로 이사를 왔어. 고향은 무안 쪽이라, 밀양시 무안면. 내 중 2때 또 다른 소재지로 이사를 가뻬어. 나는 이자 자취 생활을 했어. 자취 생활을 하고 중학교 졸업을 하고 또 수산 쪽에 고등학교를 들어 가가지고 또 고 2때 부산에 이사를 가뻬어. 부모님은 농사일을 했지. 더 좋은 데로 간다고, 땅 좋은 데를 간다고 이사를 많이 했지. 학교 다닐 때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감전동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온 거야. 도시로 온 택이지. 와서는 주로 장사를 조금 했어. 그때 공장이 있으니까 엄마가 점포를 얻어가 식당을 했어.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주말마다 내려왔지. 수산에서 여 감전동까지 내 자전거 타고 왔어. 굉장히 멀어요, 3시간 걸리지. 그때는 비포장이라 또 진영고개라고 있어. 그는 못 타고 올라가니까 끌고 한 30분잡아 묵어. 토요일 날 학교 마치고 자전거 타고 와. 그래 하룻밤 자고 일요일 오후 돼가지고 또 올라가고. 완전히 부산으로 온건 74년도. 감전동에는 달동네처럼, 전부 다 주위 사람 다 알고 좋게 말하면 친근감이 좀 있는 촌 동네처럼. 지금이야 마이 변했지. 우리 처음에는 서감초등학교 옆에 거도 살았고, 그 옆에도 살았고 세 번째로 이사 온 이집이 78년도에 집이 됐어. 직장생활을 좀 했지. 직장 때라 현대미포조선소에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감전동 내려왔지. 장사해볼라고 연구도 많이 했어. 당시에 재단 양복, 복장계통 그거를 배워가지고 한 몇 년 했어. 하다가 인자 세탁업을 하기 시작한거야. 우연히 세탁업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 만나가 세탁소를 한 번 해봐라

괜찮으니까. 그러가 우리 집이고 하니까 괜찮을끼라 함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기 시작했지.

김종현은 밀양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때, 가족들은 감전동으로 이주하였고 본인은 학업을 위해 밀양에
남아있었다고 한다. 주말이면 밀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감전동까지
와야 했는데 그때 보았던 낙동강의 풍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고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양복재단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일을 하며 배우다 가게에 찾아온 지금의 부인
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다. 이후 가족들이 살던 집 1층을 개조
하여 세탁소를 개업하였는데 아직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
고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이기 때문
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전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 행복하다고 이야기 한다.

“옛날에는 여기가 완전히 농촌이었어.
그러게 4H운동도 하고 그랬다.”

김성한 : 나는 여기 감전동에서 3대로 살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대대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터라, 집터. 그래서 여서 생활하고 있고. 조상덕택에 편안하게 살고 있지. 옛날에는 완전히 농촌이었거든. 그냥 토지가 많았던 거 밖에 없었지. 토지하고 소작인들 주고, 땅 자체가 있으니까. 사상이란 자체가 모래밭을 쓰고 있는데 낙동강 지역에 하류가 되다보니까네 토사 모래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홍수가 한번 나가 범람하게 되면은 자연 퇴비 뭐랄까 비료 땅이 옥토라 기름진 편이지. 한번 홍수가 지면 그해 농사가 잘됐어.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낙동강 제방이 안 되가지고 홍수가 지면은 기와집이 단층이었는데 거기까지 물이 차버려서 그러가지고 어디로 나가냐 하면 저 다대포 쪽으로 산 쪽으로 피신을 가고 그랬거든. 위에 댐도 안됐고 그래서 비만 오면 낙동강에 홍수가 지가지고 범람해서 사람이 대피를 하고 그 당시에 삼락운동장 하는데 보면 배수장이 하나 있어. 수문이라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낙동강을 통행가지고 배에 평타 같은 거 싣고 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지역민에 팔고 그래.

김성한 : 옛날에는 농사만 했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네 우리가 천혜의 자원이 뭐가 있나하면 저게 갈대밭, 그거를 채취를 해와 가지고 마을 전체가 밭. 이래 밭 붙은 거. 그게 그런대로 수요가 많이 됐어. 저 완도지방에 김발 엄청나게 수요가 되니까네 우리가 거서 밭 쳐가지고 오는 소득이 많았지. 우리 마을에 정미소 싸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가지고 문화행사 비슷하게 음악회 같은 것도 했어. 67,8년도에. 감전동에 최현태씨라

고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남신문 집필도 하고 연극에 관심이 많아서 연극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자체 애항가라 해가지고 동노래도 있다니까. 4H클럽 하는 거 봤는가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새마을운동보다 앞서가지고 4H클럽 이라는 게 농어촌 잘살기 운동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 동별로 단위조직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진대회도 하고 청와대도 가가지고 밥도 얻어 먹고 했어. 우리는 서감 4H구락부라고 했어.

김성한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감전동에 살아온 토박이 집안이다. 예전의 감전동은 전부 농토였으며 드문드문 기와집이 있는 곳이었다. 그 시절에 집안에 땅이 많아 농사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감전동은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강을 통해 먹고 살았으며 공단 형성 이후에는 공단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다. 청년 시절에 그는 감전동의 4H 운동에 참여하여 마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 시절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상도 받고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까지 방문하는 등 젊은 시절에는 매우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집안 대대로 감전동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마을 변화에 대해 잘 알았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너부너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부산 오면
공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어.”

장기숙 : 안동에서 태어난 장기숙입니다. 가족이 딸 다섯에 아들 하나, 맏딸입니다. 친정아버지도 외동이니까 아들 낳으려고... 안동에서 농사 지으셨죠. 밭농사 뭐 논농사 그런 거. 우리 옛날에는 83년도 그럴 때는 야간고등학교 가는게 되게 많았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좀 사는 집에서 고등학교도 가고 이래 했는데 제 때 정도는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야간학교 차가 우리 중학교 부근에 와서 있었어요.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인제 야간 고등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부산에 이런 고등학교 있다고 홍보하러도 오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버지가 너무 못 사셨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딸내미 중학교 보낸다고도 못하셨어요. 중학교는 억지로 졸업하고 인제 또 고등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친구들 다 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우겨가고 인제 학교 갈끼라고 경안고등학교 있어요. 근데 시험을 안치러 갔어. 그때 친척고향언니가 집에 놀러를 댕기러 왔었어요. 왔다가 이제 부산에 간다고 언니한테 가고 되냐고 그래가지고 따리 온 거예요. 동네에서는 서울 쪽으로 대구 쪽으로 많이 갔지 부산에는 별로 없어요. 부산에 그 사촌 언니 고모뻘 되요. 부산에 있어가지고 따라왔어요. 엄마가 그분이 간다니까 맡겼지. 돈 벌어야 되니까 오케이 할 게 있나 가라하지. 그때는 기차비가 6천원이었어요.

장기숙 : 감전동에 화승이라는 신발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라인이 1, 2조로 해가지고 있는데 야간고등학교 가는 조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의 2월, 3월 달에 입학하는데 저는 4월 달 쯤 되가 올라왔어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늦어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었어요. 효성여
상이라고 사상경찰서 바로 뒤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
어요. 학교를 가서 지금이라도 가고 뵈니까 하니까 학
교에서 오라 하더라고 그때부터 다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야간 고등학교를 돈을 벌어야 했어요. 내가 먹
고 쓸 것 만 조금 놔놓고 거의 다 집에 보냈는데 월급
도 10만원도 안되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강기숙 : 사실 언니 따라 왔는데 조금 안 좋는데 일하더라고. 다
방일을 하시는데 그 옆에 방이 한 개 있는데 거기서
자는데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
다 보니까 친구 하나 생겨서 그 친구랑 국제상사 앞에
여인숙이라 해가지고 방 한 칸씩 세를 주는데, 보일러
도 안 들어오는 방 그래 그 친구랑 같이 그기를 살았
어요. 오전에는 일을 하고 시간 때쯤 되면 중간에 마치고
학교를 가요. 학교 갔다가 또 야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또 돈을 벌어야 해서 학교 갔다 일을 하
러 또 왔어요. 돈을 벌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회사를 오
면 밥을 주잖아요. 야간은 라면 같은걸 줬었어요.

강기숙 : 우리 신랑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 하셨더라고요 거
기서 만났어. 우리 신랑 사커고 있다고 하니까 반대가
억수로 심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안계시고 형님이
배를 타거든, 뱃님 집에는 안 보낸다면서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명절 되면은 회사버스가 안동까지 데려다 줬
어요. 회사가 큰 동네마다 차가 한 대씩 갔었어요. 그
럼 명절에 신랑이 저를 안동까지 데려다주고 올 때 되
면 다시 데리러 오고... 그래가지고 첩에는 반대했어도
나중에는 좋아하시더라고. 당감동에 신희집이 있었는데
우리 밑에 동생이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같은 회
사를 다녔어요. 방 한 칸에 다락방 있는거, 동생은 다

락방 가서 자고 우리는 밑에 자고. 그런데 살다가 다시
요 감전동에 와가지고 골목 있는데 100만 원에 6만
원짜리 살다가, 300만 원에 6만 원짜리 살다가. 공장
다니면서 애 키우다가 남편이랑 이 장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강기숙에게 감전동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다. 안동에서
출생한 그녀는 고등학교를 가고자 감전동으로 이주해왔다. 당시
공장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공장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 그녀에게는 공부를 한다는 것, 월급이 가정에 보
탬이 되는 것도 행복한 일이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공장을 다니
며 공부를 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모습이 80년대 우리 어머
니들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은 참.. 마.. 행복해. 열심히 살았잖아.”

박은옥 : 창원에서 태어난 박은옥입니다. 결혼 해가지고 부산 시집와가지고 괴정서 시집가가지고 살다가 이제 애기들 다 낳아 가지고 그래 감전동으로 이사를 와 가 살았지. 창원에서는 농사지었다. 내가 태어난 바로 밑이 창원 당산나무가 300년이 넘어가지고 작년에 그걸로 문화재 지정을 해가지고 문화재 돼가 있거든 우리 친정집이. 사람이 등그렇게 안으면 한 몇 명이 안아야 될 정도로 나무가 크거든. 난 거서 태어났지. 당산 밑에 집이 있는데 옛날에는 기와집인데 지금은 조립식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갖고 그래가 살고 있지. 우리 그 가면 조상들 몇대로 그기다 우리 친정어. 농사를 지어도 우리는 부잣집 딸이 되나서 돈이 집이 많은데도 딸아들 많이 배우면 안 된다고 공부를 안 시켰어. 우리 언니들은 초등학교 나왔고 우리는 중학교 나왔고 그 다음 질녀들은 전부 고등학교 나왔고. 옛날에는 중학교를 안 갔어 전부 마, 우리는 배운게 없어.

박은옥 : 선만 보면 신랑이 키가 다 적은거야. 나는 그 시절에 키가 165면 크지. 키가 작고 중신이 들어오니까 부잣집 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전부 키가 작아요. 우리 아저씨 될 사람이 형부들하고 언니들하고 놀고 있으니 사촌언니가 놀러를 오면서 총각을 하나 델고 왔는기라, 키가 쪼깨난 사람이 인물은 좋다 이래 썼더라고. 나는 요만큼도 관심도 가지는 것도 없고 그래가 실컷 놀았는데 가고 나서 나를 찢더라하면서 중매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몇 달로 피해가 땡겼거든, 안할라고. 우리 사촌오빠가 또 해병대 땡기는 오빠가 이 총각을 델고 와가지고 하나는 안훔겨 죽일거라고 해라카는 기라. 내가 총각 들어오는 거 보고 쓰레빠 신고 가야서

되었어. 갈 데가 없어가 가야 대명극장이 옛날에 있었
 어요. 거길 마 사촌오빠하고 총각하고 둘이 오는 거야.
 그러가 나중에 나한테도 말 안하고 한 5일 남가 놓고
 부산가라하데. 그래 오니까 화장도 하고 신부 뭐 하라
 카대. 예식장 들어가면서 들어가 화장이 하나도 없어.
 사촌언니가 증신을 했으니까 총각은 부산에 있고 부산
 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부산에서 식을 한거지. 옛날에는
 촌 마당에서 할 때거든, 내 비우를 맞춘다고 한거야.
 그랬는데 세월이 가니까네 괜찮데. 아저씨는 직장 다녔
 는데 결혼하자마자 마도로스로 한 20년 했다. 그때 월
 급이 뭐 2만원, 3만원. 신희집이 괴정이었는데 집 한
 채 사는 게 400만 원 이래밖에 안했어.

박은옥 : 애 셋을 낳고 보니까 이 월급 갖고는 못 살겠다 해서
 배 그만타고, 조금 벌어도 장사를 해보자고 수영구 팔
 도시장 입구에서 슈퍼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수 했
 어. 장사가 잘되더라고, 간이 쫘 커가지고 음식 솜씨가
 좋은끼 식당을 해볼라 해서 감전동 식당을 했다 아이
 가. 옛날에는 신발 공장이 잘됐거든, 우리 집에 전부
 다 오는 거야. 쌀로 하루 한 가마이 밥을 했다. 80년대
 에. 식당을 오래 해가지고 돈도 좀 벌어서 3년 정도
 놀았어. 그때 우리 아저씨가 목수들 데리고 집을 지었
 어. 짧은 기간에 너무 집을 많이 지어서 세무조사가 들
 어오는기라. 통장에 2억 있었는데 거기 압수 당해뿌데.
 그래서 내가 새벽시장에 장사하러 올란다, 해가지고 반
 칸 갖고 할 게 없어서 반찬을 시작했지.

박은옥은 창원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계속하지는 못했다. 중학교 졸업 후 우여곡절을 겪
 으며 결혼을 했고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결혼 초기에

는 상선을 타던 남편 덕분에 전업주부로 살았으나 아이가 커가고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살기가 힘들어 장사를 하게 되었다. 음식솜씨가 좋은 그녀는 공장이 많은 감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지인의 소개로 새벽시장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결국 식당을 접고 점포를 얻어 지금의 가게를 열게 되었다. 지금 그녀는 새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상인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다.

동[動] :

움직이다

움직임은 변화를 동반한다. 감전동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람이 드나들고, 건물이 세워졌다 무너지기를 반복했다. 흐르는 물이 막히기도 하고 멀리 보이는 산의 풍경이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기도 했다. 그래서 감전동 사람들은 변화에 스스로없이 몸을 맡기기도 했고 때로는 변화에 거세게 반항하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씬 없이 흘러가는 강가에 서서 한숨 돌리고 주변을 바라보니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풍경

감동(甘洞) 마을은 원래 감도(甘島)라는 지명으로 사상 지역 고문서에 나온다. 옛날 낙동강 동쪽 셋강의 제일 안쪽 섬이었던 감동 마을은 한자로 감동(甘同), 감동(甘東), 감동(甘洞), 동감으로 표기했다. 오랜 세월 토사가 퇴적된 비옥한 땅이라 감도, 감동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유래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전동(甘田洞)은 감동(甘東)과 서전(西田)을 합해 붙여진 지명이다. 동래부에서 3년마다 발행한 호구장적에 의하면 1790년 사천면이 사상, 사중, 사하의 3면으로 나뉘고, 그 뒤에 사중면에서 부산면이 분리되고, 1837년에 사상면 패내리에서 감동리, 창법리가 분리되어 패내리에 속해있던 감동이 처음으로 독립마을이 되었다. 서쪽의 기다란 마을을 감동 서편 부락이라 하였으나 1886년에 감동리에서 서전리로 분리 되었다가 1914년에 감동리와 서전리가 감전리로 통합되었다. 1979년 감전1동과 감전2동으로 나뉘었다가 2008년 1월에 감전동으로 통합되었다.

“옛날 예기를 검터, 감동이라 부르고
우리 여기는 서전이라 했어.”

배영희 : 옛날에 뭐 여기를 검터 감동이라 부르고 우리 여기는 서전이라 했고 동편은 동감이라 했고 여는 또 서감 이렇게 불렀고, 그거 부를 때만 해도 조금 그 해방 이후에 그렇게 붙여놓고 해방 전에는 서전. 동감 서감은 보통 어떻게 구분 했냐하면 그 옛날에 뽕뿌리마치 그기를 그 사거리 거기서 저 저 쪽으로 가면 패법, 이 쪽은 동감 주례로 가고 이쪽 밑을 내려가면 서전이라 했지.¹⁾

1) 감동의 유래는 검터, 검도에서 왔다고 보기도 하며 인근의 비옥한 농



“저 쪽 가에 있는 동네 거기가 장인도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런 섬이 많이 있었는갑데.
그담은 국매섬 또, 소요저도.”

배영희 : 갈대 저 섬에도 저 낙동강 쪽에 놀러가고 했는데 그
조금한 섬들이 있었거든. 거기 사람이 살고 뭐 이러지
는 안 하고 갈대 뭐 있고 그렇지요. 장인도가 여 뚝
밑에 내려가면 저 뚝 가에 있는 동네 거기가 장인도
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런 섬이 많이 있었는갑
데. 옛날에 그래 마이 있었는데 섬을 이래 섬 이름이
많아요 그담은 국매섬 또, 소요저도. 그리고 여 학장

토를 뜻하는 감전(甘田)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속설도 있
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또는 감전의 감이 주로 신을 뜻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착안하여 감전동 역시 당감동이나 감천동, 김해 대
감리와 같이 청동기 시대 유적인 고인돌이 있었던 지역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건너가 거는 세 개 떡이 있었고 거 새로 만들은 떡인
모양이지.?)

“웃샘이, 큰샘이가 있었고 벼랑가에는 대나무랑 뽕나무,
구기자나무 같은기 있었어”

배영희 : 저 우에 올라가면은 웃샘이카는데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샘이가 그 가면 중간에도 큰샘이가 하나 있었고 그
웃샘이 거도 지금 보면 요 길목 저 위로 올라가면
110번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그 뒤였거든요. 웃샘
이 그 중간 샘이고 고서 한 100메다 정도 더 올라가
면 웃샘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퍼다가 우리
가 전부 식수로 먹었거든요. 벼랑 가에는 뭐 대나무,
이런 거 뭐 뽕나무 뭐 이런기 주로 있었고 뭐 그
렇다면은 뭐 안 그럼 길가에 나는 거 그 뭐고 옛날에
그 저 이 빨간 열매 여는 그런 어 구기자나무 같은 기
또랑가에 마이 안 납니까.

“우리 집 앞으로 전기선이 지나가고 이래 봤는데
야매로도 썼어. 땡겨 쓰는 거,”

배영희 : 그 때 전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집 앞으로 전기선이
지나가고 이래 봤는데 야매로도 썼어. 땡겨 쓰는 거,
전기선에 걸면은 불이 온다 아닙니까? 선을 연결하면

-
- 2) 낙동강 동안(東岸)에 조성된 긴 삼각주의 북쪽 반은 삼락동에 속했
고 남쪽 반은 감전동에 속했는데 남반의 장인도, 국매섬 등을 다 합
쳐 감도(甘島)라고 불렀다. 국매섬은 국매섬, 국마도, 군마도, 서발,
서발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장인도 역시 자인도, 좌인도 등의
이름으로 불렸었다. 또한 강자도란 섬도 있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확
인되지 않는다.

오거든. 이래 해가지고 고가 딱 걸어가지고 이 야말로 쓰고 그러다 걸리고 그랬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쓰기가 우리가 열매여섯 살 먹었을 때니까네 사십육년이니까네, 오십 육년, 오십 육년 뭐 육십 년 초지. 그래가지고 인자 서전이 저기 인자 장인도라고 있다고 안 잡니까? 그 동네 거는 그때 전기 들어오지도 안 했어요. 수도도 우리 열매 살 먹었을 때 들어 왔어요.

정정자 : 그 공장이고 우리 집이 단층집이고 집이 많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인제 흙길이고, 집이 많이 없고 그때 인제 슈퍼도 1년인가 2년 있다가 슈퍼도 했다 그러더라고. 슈퍼를 했어요. 그래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꺼버묵고 놀고 근데 인제 큰 불이 났어요. 아신통상에. 몇 년돈가는 모르겠는데, 아신통상이 봉제공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 가보면 있지만은 그게 불이 났어예. 그 자리에 주택이 들어왔어예. 그게 옛날에는 새벽시장이 온다고 했어예.

윤옥자 : 옛날에는 여도 길이 안 좋았지. 울퉁불퉁 울퉁불퉁 그 래갖고는 이 길이 안 좋았지.



“그때 길이 이런 아스팔트 아니어도 세멘으로
 돼 있었는 거 같아. 아니 흙으로 돼있었나? 흙으로
 돼있었지 아마. 그니까 비 오면 질퍼덕거리고.”

김성순 : 길이 좁아 차오면 비켜주고 리어카 장사들이 했음께
 그들 차면 요리 요리 소방도로 아닙니까. 여기 소방도
 로 좁아요. 소방도로 되가지고 그 뒤로 차도 다녔어요.
 그때 길이 이런 아스팔트 아니어도 세멘으로 돼 있었
 은 거 같아. 아니 흙으로 돼있었나? 흙으로 돼있었지
 아마. 그니까 비 오면 질퍼덕거리고 아마 흙으로 돼 있
 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 새마을금고 앞으로 하천이,
 여기도 그렇고 다 하천이었어요. 다. 내가 여기 와서
 복개 했지요. 물이 더러웠지요. 냄새도 나고 똥물 그
 하천이 전부 뒤에 그 지금은 요즘은 다 복개가 돼버리
 고 버스 안 다닙니까?

“공장 사람들, 시장 상인들 이제 다 댄 데로 가볼고 없어.”

김성순 : 여기 시장 골목은 지금 현재 다 슬집이잖아요. 실비집 대표집 같은. 어 그르께 저 저 저 집도 슬집이고 요 집도 슬 먹고 다 슬집이야. 요 앞에 요 앞에 집도 문 닫아서 인제 일월 달부터 문 닫아서 지금 그르디 이 집도 슬 먹고 노름 허고 내 여기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저기 뭐 싸움 허고 뭇 허고 마 저기잖아. 공께 애들이 별로 싫어하고 그랬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벌써 다 댄 데로 가볼고 없어. 지금 다 나이 먹고 이기 살면서 노숙자들 늑패이들이 그러고 와서 슬 먹고 뭇 허고 하는 거지 지금은 뭐 없지. 근데 인자 다 그런 사람들 죽어버리고 없어. 시장상인들도 다 없어. 다 지금 저 저 댄 데로 어디서 가고 뭇허러 가고 이 가고 죽어버리니까 자기 집 아닌 이상은 다 세 주고 저기 안 나오잖아요. 세가 그리기 때문에 다 가지 나야 내 집이니까 세 안주니까 이리 있는 거지 세 주고 허는 사람들은 다 공께 세 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별로 없어요. 다 지금 자기 집들이지.³⁾

“우리 아버지하고 인자 외갓집 자숙 왔지 한번 쓱 걸어
김해저 구포로 걸어저 오기 왔을 때 다 농사지었어요.”

조정순 : 외갓집 농사짓다가 할아버지 나이도 많고 세상 버리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친정엄마가 인자 외갓집 여기 댓

3) 감전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새마을금고가 있는 쪽으로는 하천이 흘렀고 그 반대편에는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하천은 도로를 확장하며 복개가 되어 현재는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골목 시장 역시 사상공단의 쇠락으로 인구가 급감하며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든. 우리 아버지하고 인자 외갓집 자주 왔지 한번 쓱
걸어서 김해서 구포로 걸어서 요기 왔을 때 다 농사지
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요. 집은 전부 후진 초가집.
집은 몇 개 안 됐으요 여기. 우리여 앓은 자리가 이기
가 저 채소밭. 도로라 수로 농사짓는 수로. 그래가 이
기가 이것 도로확장하면서 우리가 밀리 난기야. 이기
안으로.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곡도가 집집마다 몇 가구 하면
인자 들어오는기라. 집에서 물 나와서 되게 편했지.”**

조정순 : 전기가 언제 들어오는 것도 모르겠다. 나는 그거는 기억이.
어느 살다가 보니까네 여기 하수도 수도, 우리 수도도 그 우
리 여기 집 앞에 요요 묻혔을거요. 수도관. 수도관이 아마 거
묻혔을거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수도가 집집마다 인자
몇가구 하면 인자 들어오는기라. 열다섯 가구면 열다섯 가구,
열가구면 열 가구 해가 인자 수도를 딱, 여 집에서 물 나와
서 되게 편했지. 여 물 여다 먹었어요. 낮에는 바쁘니까 또
몬가고 밤으로도 많이 이고 땀기고 낮으로도 아침에 일찍 이
러가고 학장도 가고. 저 안쪽으로는 우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이 없어졌어예. 지금 공장도 짓고 하는데 학장에도
저가면 학장 초등학교 있는데 그 뒤편에 인자 지금 말하자면
그 고랑물 여다 묵었지. 그도 많이 여가 묵었어요.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살았던 집은
지금 그 집이 다 없다. 없어져 버렸다.”

설정숙 : 여기 한 68년 이쯤에 요기 감전동에 왔을 때 막 마을에 있는 집들은 다 시골집이지 뭐. 전신에 초가집도 있고 슬레이트 집 전부 슬레이트 집이 많았지 그리고 마똥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엄청났지 화장실도 재래식이지 재래식화장실 그 뭐 그게 있나어디, 수세식은 부자는 있었겠지만은 감전동도 부자들은 있었겠지만 대부분 재래식이었지.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살았던 집은 지금 그 집이 다 없다. 없어져 버렸다. 요 밑이다 요 밑에 요짜 요기, 동사무소 뒤쪽, 뒤쪽이고. 동사무소도 거기 새로 생겼거든 옛날에는 앞에 작은 시장이 있거든 그 쪽이었을거다. 그래 마 동사무소도 좀 안 좋았지 지금은 잘해놓고 있지만은 발전 안됐다 싸도 옛날보단 발전 많이 됐지.



“그런데 좋게 말하면 친근감이 쏙 있는
촌 동네처럼 그렇지.”

김종현 : 감전동이 변하기는 마이 변했는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는 감전동이 변화가 없어. 다른 동네는 아파트가 있는
데 아파트 없는 동네가 이 감전동이라. 그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좀 안 좋은 편이지 뭐. 그런 다른 동네는 뭐
아파트 많이 생기고 어? 변화가 많아가지고 어이? 상
권도 많고 여 여 살기 좋은데 감전동에는 달동네처럼
인자, 으이? 주워서 전부 다 뭐 주워 사람 다 알고 주
택이니까. 그래도 좋게 말하면 친근감이 쏙 있는 촌 동
네처럼 그렇지. 촌 동네처럼 오래 살다보이 어이? 거의
다 뭐 알지. 옛날 집들은 요 인자 그 당시는 이래 저
스레트 집이 많았지. 요 주위에 인자 요 뒤에 뒤에도
뭐 스레트 집이라.⁴⁾

4) 감전동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물이 없다. 주민들의 말로는 마을
이 강변에 위치한 이유로 지반이 약해 고층건물을 올릴 수 없기 때문
이라 했다.



“옛날 집은 옛날 뽕 하꼬방이라고.
 옛날은 뽕 방 한 칸 복엿 한 칸, 거의 다 그런 집이었거든.”

김종현 : 지금은 개조돼가 집이 뭐 새로 다지었지만 옛날 집은
 옛날 뽕 하꼬방이라고. 옛날은 뽕 방 한 칸 복엿 한 칸
 이른 데 마이 거의 다 그런 집이었거든? 곤로하나있고,
 그리고 여기 중국집이 참 많았어.⁵⁾

5) 녹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동네에
 중국집이 많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중국집 사장님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분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
 다고 했다.



“여는 머 그냥 서전마을이라 불렀어.
다르게는 서감, 서전리라고 불렀어.”

김성한 : 감동은 지금 감전2동 쪽 저 산 쪽으로 거기가 감동 거기를 감동이라 했고 여는 머 그냥 서전마을이라 불렀어. 다르게는 서감, 서전리 서전리라고 불렀어. 내가 어렸을 적에는 기와집이 커했지. 몇 채 없었어. 그래서 기와집에 사시는 분들은 가세가 풍족하신 분들이라고 보면 돼. 나머지 집들 구조는 뭐 다른데랑 똑같은데 위에만 갈대나 벼짚을 올렸어. 여기도 전부 벼농사를 지었거든.

“옛날엔 하천이었거든 하천 옆으로 대나무 숲이 많았어.
그래서 여우가 맨날 다닌거야.”

김성한 : 68년도까지 없었고, 공장생기면서 시장이 됐지. 그 당시에 시장도 없었고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은 지금 당산나무에 보면 그 나무가 울창하게 돼있제. 그 앞쪽에 보면 우리 삼촌집이 켈 큰삼촌집이 계셨는데 한 번씩 밤에 가서 놀다가 올라 하면은 거기 당산나무에 여우가 물어 싸서 겁이 나서 왔다 갔다 뛰어 다녀서 겁이 나서 못 넘어왔어 거서 이까지. 그게 무서워서 못 넘어 왔다니까. 산이 없어도 고개 하고 요개가 지금 동삼사 앞에 요개가 지금은 도로가 됐지만 옛날엔 하천이었거든 하천 옆으로 대나무 숲이 많았어. 그래서 여우가 맨날 다닌거야.⁶⁾

과거 감전동의 모습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앞쪽으로 하천이 흘렀고 당산공원 뒤편으로는 리어카들이 줄지어선 시장이 열렸다. 공장에서 일을 끝낸 노동자들은 찬거리를 사기 위해 너도나도 시장을 찾았고 시장 상인들은 그들과 웃고 떠들며 흥정을 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강가에는 무성한 갈대들이 강바람에 흔들거렸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그대로고 갈대를 흔들거리던 바람도 그대로이지만 마을의 풍경은 점차 변해갔고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갔다.

6) 당산나무 인근에 살았다던 여우이야기는 김성한 외에도 몇 명의 주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정말로 여우가 살았는지 확인은 할 수 없겠지만 당산이라는 신령스런 공간과 요물이라고 하는 여우의 조합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다.

골목시장

지금은 감전동에 위치한 새벽시장이 유명하지만 과거 사상공단에 공장과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는 지금의 동사무소 뒤편 길에 골목시장이 열렸었다. 골목시장의 성쇠는 사상공단의 성쇠와 정확히 그 궤를 함께한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걸쳐 골목시장은 최고의 성황기를 맞이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들어 공장들이 문을 닫자 사람들도 하나둘씩 감전동을 떠나기 시작했다. 골목시장도 차츰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고 지금은 드문드문 문을 연 상점들이 과거의 모습을 말해줄 뿐이다.



“시장길 요기를 이쪽 마을 사람들끼리 부를 때
골목시장이라 그냥 그랬어요.”

김성순 : 그전에는 국제상사도 있고 여그 성화도 있고 뭐 신발
공장 같은 거 있을 때는 이 골목에 사람이 뽁뽁 해가
지고 퇴근 시간에는 뭐 서로 이래 비키고 다녔었어요.
이 골목에가요, 앞쪽에 옛날에 시장이었어요. 시장길
요기를 이쪽 마을 사람들끼리 부를 때 골목시장이라
그냥 그랬어요. 동사무소 뒤편에 그냥 골목시장이라고
그래 불렀어요. 리어카에 다 오이도 팔고 과일도 팔고
리어카에 뽁뽁 했어. 부식 장사도 하니까 반찬 다 있어
반찬 부식 오만 거 다 이리 저그 저 저 흥무동 시장에
나 가면은 반찬에서 야채 다 담아놓고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치면 그렇게 했어요.



“저 앞쪽 오른쪽 요 골목에서 저까지
전부 장사치야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다 이리 이리 해쳐가지고는 알구져.”

김성준 : 생선 파는 데도 있고 과일 리어카에 해 놓고 과일 팔고 채소 팔고 뭐 그런 거 다 부식 장사도 있고 그릇집도 있고 이불 집도 있고 떡볶이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르니께 오만 거 파는 거 다 있다니까. 다 근데 다 없어졌다니까 아예. 차만 비켜주고 다해 장사꾼이 저 앞쪽 요쪽 요 골목에서 저까지 전부 장사치야.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다 이리 이리 해쳐가지고는 알구져. 그거 다 요런데 뜯어버리고 그래도 집처럼 조금 해줬네요.⁷⁾

감전동 골목시장은 이미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사상 공단에 만들어진 많은 공장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너도나도 찾았던 만남과 소통의 공간. 좁은 길을 걷다 서로의 어깨와 어깨가 닿아도 마주보며 웃음 짓던 그 때의 거리를 생각하면 어디 서든 스마트폰 화면만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들 사이의 거리는 무척이나 멀게 느껴진다.

7) 녹취를 진행하는 2시간 동안 가게에 오는 손님이라곤 앞집 반찬가게 할머니뿐이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우리에게 말했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집이니까 가게는 계속 해야지요.” 그때 마침 미닫이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천

감전동에는 감전천과 삼락천 두 개의 하천이 흐른다. 감전천은 감전동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흘러 학장천 하류로 유입되는 총 연장 2.9km의 지방하천이다. 유역 인근 대부분 지역이 평지로 되어 있으며 하천 유역에는 공장이 밀집해 있다. 삼락천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에서 시작해 감전동이 종점인 4.6km 길이의 지방 2급 하천이다. 낙동강을 곁에 두고 감전천과 삼락천이라는 두 하천의 사이에 위치한 감전동은 물난리가 잦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막기 위해 동네를 가로지르는 수로를 만들었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긴 힘들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비틀하듯 하천에 많이 빠졌지.”

정정자 : 제가 어릴 때는 여기 하천이 있었습니다. 복개를 하기 전이라, 물이 좀 더러워서 거기서 놀지는 않았고 술 취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빠지고 그랬지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밖으로 넘고 그랬어요.

“퐁퐁이었어. 냄새도 나고.”

김성순 : 80년대 초반에는 새마을 금고 앞이 복개가 되기 전이었어요. 내가 감전동 와서 복개가 되었는데 물이 더러웠지요. 퐁퐁처럼 냄새도 나고, 지금 버스 다니는 그 길이 전부 복개가 되었어요.



“새마을금고 앞이랑 동사무소 앞애가 도랑밭이었다.
다리도 있고 그랬지.”

설정숙 : 요 짝 요 안 있나 복개천 해는데, 요리해가 요 딱 나가면은 도로있더라 아닌가베. 도로 나가고 하면은 사거리 나오더라 아나가 거기가 복개천이었다. 거 도랑물이다 거도 있고 동사무소 있는데도 도랑이 있었는데 매축됐지 다. 물길이 두 개가 흘렀는데 요리 흘러가 이리 가고 마 다리가 있고 그랬다. 지금은 인제 복개천해가 덮어 놔지만.

“비올 때 불이 이만치 왔는데 공장애서 야간하고
걸어왔는데 어찌 안 빠졌는지 몰라.”

강기숙 : 89년도 때도 지금이랑 마을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요쪽에 복개천이 복개천이었는데. 다 장판집 있잖아요. 고 밑으로 다 복개천 되어 있었어요. 다 바뀌었죠. 그 집도 옛날에는 뭐 조개구이 그런 거 했더라고 했었고. 우리 그때는 회사에서 뭐 때문에 데모를 했는데 비올 때 있잖아요. 이만치 차가지고 야간하고 오면서 그 걸어왔는데 그 안 빠졌는데 어찌 안 빠졌는지 몰라. 옛날에 비 오면 물차가지고 배타고 다녔어요. 요쪽에 물진짜 많이 찼거든요. 우리는 항상 2층에만 살았어요. 2층에만 살아가지고 괜찮았어요.

“옛날에 여 감전동 사상지역 여기가 공단지역이 옛날에는
복산에서 제일 고질적인 침수지역이었어.”

김성한 : 원래 마을검고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하천이 하나 있고 수직으로 수로가 하나 있었거든. 그 수로는 인위적으로 판 거야. 여기가 앞쪽으로 돌이터 앞에 하천이 있었는데, 저기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범람을 해가지고 그 가로 전부다 동사였는데 범람해가 다 침수를 했는 거야. 옛날에 여 감전동 사상지역 여기가 공단지역이 옛날에는 부산에서 제일 고질적인 침수지역이었어. 침수지역인 거 거서 수로 뚫고 배수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침수는 옛날에 여기 침수되고 하면 우리 집 골목 여기서 정말로 사람이 못나올 정도로 이정도로 오고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됐어. 근데 그거를 역대 구청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침수는 안 되지. 옛날에는 상습 침수지역이라 여기가.

하천은 메워지고 그 위로 또 한 겹 검은 아스팔트까지 깔렸다.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가 잘 어울리는 지금의 풍경은 과거와 사뭇 다르지만 사람들의 기억까지 덮여 버린 것은 아니다. 감전동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마을을 가로지르던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산나무와 당산제

감전동 당산제에서 모시는 할머니를 ‘고석 할매’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400여 년 전에 동감전(東甘田)의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땅 속에 묻혀 있던 여자 형상의 돌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모셔 소원을 빌었더니 영험이 있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이 석상을 마을의 당산 할매로 삼았다고 한다. 어느 해에 다른 마을 사람이 이 석상을 훔쳐 갔는데, 동감전의 이장 꿈에 당산 할매가 나타나 자기가 주례 마을 대밭에 있다고 알려 주어 다시 찾아왔다고 한다. 제당은 1933년 3월 3일 건립되었는데, 이때는 현 제당 아래 산복도로에 돌담을 두른 할매 제당과 담이 없는 할매 제당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할매 제당은 1994년 6월 4일에 산복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산 11-2번지로 옮기고 현재 동사무소 뒤편 삼지공원에는 할매 제당만 만들어 모시고 있다.



“여는 할매 당산이라 불렀고 감동에는 할매당산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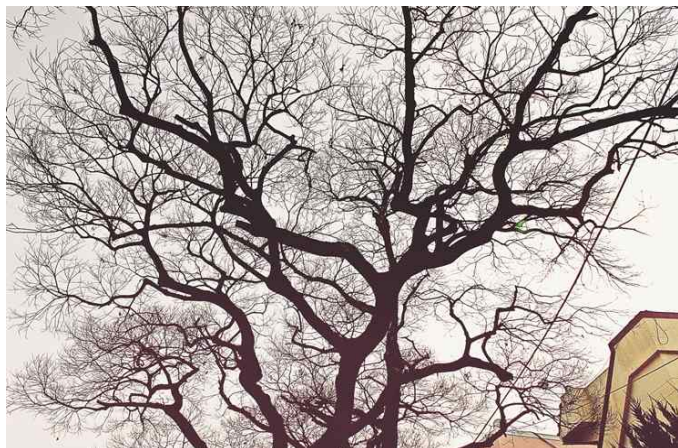
배영희 : 어릴 때 우리가 지금 저 집이 당산집이 1943년도에 지어졌더라고. 그 때 지어졌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들이 젊을 때 뭐 그럴쥬. 젊을 때 지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때 다 지아가지고 재를 지내오고, 지금 우리가 부르기에는 할매당산이라고 부르는데 할매는 감동에 있고 여는 할매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랬었는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제사 지낼 때 앞에 세우는 그 지방 표지 표석 위패, 위패, 그 보면 토지 지령이라고 이렇게 적혀가 있더라고. 이 동네 토지 지령 그렇게 적혀가 있던데 뭐 할매당산이라고 다해싸이 뭐 다 그렇게 할매당산이라고 토지 지령이 이 동네를 최고로, 이 토지를 그 뭐 명명하다시피 하는 신이지.⁸⁾



8)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산에 모셔진 할매석상의 영험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몇 번이나 석상이 없어졌지만 그때마다 마을 사람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나 일제강점기 때 한 정신이상자가 엽총으로 할매석상을 쏘아 석상이 일부 깨어져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깨진 조각을 다시 붙였지만 결국 그 정신이상자는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감전동 사람들이 할매당산에 갖고 있었던 애정과 경외심을 잘 알려준다.

“포구나무가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다 하더라고.”

배영희 : 그 당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포구 나무 열매라고 포구가 요렇게 열리는데, 거기 옛날에 일정 시대 전에, 임진왜란 그 당시에 그 나무가 있었다하네. 그 래가지고 거기 이 동네 할매들이 그 엄마들이 거기다 놓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마 아마 임진왜란 이전부터 있었고 임진왜란 이 나고 나서 그때 이 동네에 뭐 홍수가 한 번 쳤다카네. 홍수가 한번 쳐 가지고 거기 또 떠내려 가뿌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천 뚝이 없었거든. 그리니까네 강물이 뭐, 바닷물이 밀리 올라와가지고 범람을 하는 거지. 그 요새 일본에서 쓰나미 오다시피 올라와가지고 이 쓸고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또 다시 할매들이 인제 그때다 돌을 돌무더기를 세와 놓고 기도를 하고 그랬지. 그런데 인자 우리 아버지나 할배 세대들이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실을 하나 건립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제실을 건립한 모양이야 그래가 그때부터 인자 토지 지령이라 카는 그 굴을 그 나무에 담아서 그기에 인자 모시고 있는거거든. 그래가 옛날에는 인자 밤 12시 정도 되면 제를 지냈어요.



“음력으로 12월 14일 낮 12시에 켜를 지냅니다.”

배영희 : 뭐 요새는 더 크게 지내지. 동네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구청장까지 오고 이래하니까. 구청장을 우리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 구청장도 오고 이래가지고 앞에다 떡국도 끓이고 먹거리를 많이 만들고 또 손님을 겨울 되면 많이 줍습니다. 그러면 천막을 쳐 가지고 바람 가리는 거 해가지고 요새는 좋다아임니까. 동자치원원 뭐 부녀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떡국도 끓이고 이래가지고 뭐 돼지고기 수육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레가지고 그 와서 한 잔 하고 그렇게 갑니다. 요새는 음력 12월 그 날짜로 정해진 정확한 이유는 뭐 없고 그냥 옛날부터 그 날짜에 지내서 뭐 옛날에 할아버지 때부터 12월 14일 저녁 밤 12시 그 때 지냈는데 우리는 뭐 12월 14일 낮에 하자 그래 정했지요.



“객지 사람들이 우리보고 강산제사 지내고
돈 다 벌어난다 카는기라.”

배영희 : 당산 보존 위원회가 당산 서전회에서 우리가 당산 저
거를 고집을 하고 제사를 마이 지내왔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제일 많이 책임을 지고 지냈습니다. 많이 지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하지요. 지금 그러가 거기서 우
리가 인자 서전회에서 지내고 거 오는 사람들한테 인
자 이 쉽게 말함 뭐 결혼식 할 때 부조 받드시 뭐 몇
천 원 몇 백 원 몇 만 원 이렇게 부조를 받아가 우리
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동 자치 위원회 이 사람들이
객지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산 제사 지내가지고 느그가 돈 다 벌어난다카고 자
기네들이 하겠다 이래카더라고. 그래서 응 좋다고 너네
가 해라 하니까네 즈그가 할라하니까네 제사를 지내는
데 음식을 장만한다든지 뭐 이래 하는 그런 거를 모르
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서전회 사람이 다 도와줘
야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지내고, 돈은 부자들 받아
가 지네가 가가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가지고 뭐 안 되겠다카고 즈그도 묻하겠다카고 그
래가지고, 당산 보존회를 소집을 했다 아임니까 우리
가. 그러가지고 서전에 있는 사람 몇 명하고 객지서 들

어운 사람 몇 명하고 또 이래가지고 인자 그 회장은 아무도 안 할라합니다 이거 안 할라카니까네 새마을금고가 우리 동네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당산 보존 회장을 맡아라. 이래해가지고 당산 보존 회장을 지금 맡아가 했어요.⁹⁾



-
- 9) 당산과 당산나무는 마을의 중심이었다. 추운 겨울 코 흘리며 동네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때의 소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 물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평온했으리라는 그래도 당산나무는 여전히 우거져있고 당산할매도 여전히 감전동을 지키고 앉아 있다.

“거기에 산 지명을 해봤다고 산 번지로 만들어 봤다고
 지금도 그게 내려오고 있어.
 당산이 좀 높은데 있어야 하니까.”

김성한 : 당산공원은 당산자체가 감전동에는 산이 없어요 평지
 데 그래도 옛날에 조상들이 당산 민간 토속적인 신앙
 이 되가지고 당산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평
 지에서는 당산이라던가 제사를 못 모시니까 옛날 사람
 들이 그 번지를 산을 지목을 사대로 만들어봤다고 고
 전체 하나만 산 번지로 돼있어. 풍수지리 비슷한거지.
 그래서 거기에 산 지명을 해봤다고 산 번지로 만들어
 봤다고 지금도 그게 내려오고 있어. 당산이 좀 높은데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토속적인 민간신앙으로 산번지
 로 했지.¹⁰⁾

감전동 주민자치센터 옆 공원에는 당산나무가 보존되어 있다.
 마을주민들은 당산나무와 당산제를 통해 마을의 옛 모습을 기억
 하고 있었다. 당산나무가 우뚝 솟아 마을을 내려 보고 있는 그 곳
 은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한가롭게 햇볕을 쬔 공원
 이 되었다. 하지만 전통적 가치들이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지
 는 요즘, 당산나무와 당산제는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10) 산이 없는 마을에 산번지가 생긴 이유는 당산이 거기 있었기 때문
 이다. 굳이 산이 아니어도 사람이 불편할 것은 없건만, 그때의 어른들
 은 기어이 번지라도 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을 산이라고 믿었다. 기
 복(祈福)의 시작은 정성이다.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받는 복도 커진
 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다.

지역감정

지역감정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좋지 않은 생각이나 편견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감정의 시작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간의 정치 공세에 이러한 지역감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러한 지역감정에만 의존하는 반쪽자리 정치인의 언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라도 사람이 저럴 줄 알았다 공조가 있다,
뒤통수 친다, 빛이 어쩔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지.”

배영희 : 여기 사람들 보면은 열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저 전라도 사람이라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열 번 잘 지내다가 한 번 마음 상하면 전라도 사람이 저럴 줄 알았다 공조가 있다, 뒤통수친다, 빛이 어쩔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지. 나는 전라도 사람 봐도 싫은 감정 없어. 여기서 장사해갖고 뭐 허고 사는디 사는 디가 내 고향인데 뭐 이런 거를 따질 거가 뭐있어요 저기가지고 그런 거지.¹¹⁾

“전라도 사람이 많아.
전라도 쪽에는 공장이 많이 없으니까.”

김종현 : 이 마을에 전라도에서 온 사람도 많거든. 전라도 사람이 왜 많노카면은 여기가 공장지대니까 공장 곁으로 이사를 많이 오는 기라 직장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인자 전라도 쪽이 많이 왔어 어? 사상구에 전부 다 요 근처 전부 다 공장이 많잖아. 그런 데 가면 전라도 사람이 많아. 지금도 많아. 돈 벌려고 오기 제일 가까운 도시가 이제 부산 쪽으로 오는 게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 전라도 쪽에는 공장이 많이 없으니까. 특히 인자 부산 사상구. 여 여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가로 온 거야.

11)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재미나게 고스톱을 치고 계셨다. 대화소리만 들어도 전국 각지에서 모이셨을 그분들의 ‘관’에 적어도 지역에 따른 ‘다른 물’ 때문에 싸우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라뵈 킨라도 사람들은 그 거의 다가 뽕치거든.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데.”

김종헌 : 마을에 뵈 지역 차 때문에 뵈 사이가 안 좋거나 다툼
이 있거나 거도 뵈 예전에는 조금 있었어. 그래 지금도
조금 있는 거는 우리 세탁업을 하다보면 전라도 분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라뵈 전라도 사람들은 그 거의 다
가 뽕치거든.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저 가고 요 가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가
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음식 집도 뵈리카노 세탁소 말
고도 어데 뵈 식당하고 있다, 뵈 안 그라뵈 뵈 희한하
게 알고 뵈이 난 그런 거는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부러운 점도 있어. 저 저 자기 향우회도 있고 하지. 그
만큼 멀리서 오니까. 그런 점은 있어. 경상도 사람들은
또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다 보이 단합이 잘 안 돼.

“하지만 그뵈 킨라도 사람들은 결속력 좋을 수밖에 없었지.
왜 그렇냐 하면 객지에 나와 살아야 되니까.”

김성한 : 어 요 앞집에 사는 사람 호남사람 한집이 살고 그랬는
데 해남군 가학면 사람이 우리 집에 이사를 오더라고
이사를 왔어 이사 오니까네 조금 지나니까네 어 지나
고 보니까네 우리 집에 전부다 가학사람밖에 없어요.
소개로 연결돼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끔 그 가학에
한번 씩 가보거든 호남에 그런데 다 어디 있는지 이젠
모르지 뵈 뽕뽕이 다 헤어졌지. 하지만 그뵈 전라도 사
람들은 결속력 좋을 수밖에 없었지. 왜 그렇냐 하면 객
지에 나와 살아야 되니까.¹²⁾

12) 외로우면 뽕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김성한
은 그런 호남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래서 더 정이 들었다.

“그래도 공장에서는 지역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거의 야학 다니고 한 애들은 힘든 애들이잖아요.
처지가 비슷하니까 서로 마음이 잘 통했죠.”

강기숙 : 아 친구랑 살 때 그때는 같이 친구고 같이 학교가고
회사도 같이 다니고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
금은 연락이 안돼요. 걔는 전라도 애여서 학교 가서
만나서 친해졌죠. 그 때 공장에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
도 많았어요. 그래도 공장에서는 지역감정 같은 건 없
었어요. 다들 그냥 뭐 즐겁게 잘 지냈죠. 거의 야학
다니고 한 애들은 힘든 애들이잖아요. 저처럼 거의 비
슷해요. 처지가 비슷하니까 서로 마음이 잘 통했죠.



지역감정에 대해 물어보면 지역 보다는 사람이 문제
인 경우가 많았다. ‘그 감정’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이가 더 들어서는 예전 자신의 집에 살던 사람이 보고파 전라도 가
학으로 가봤다고 했다. 물론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사람에게 가졌던 좋은 감정이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은 무척이
나 당연해 보였다.

감정을 숨김없이 표출하는 사람의 문제지 보통의 남녀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말 그대로 '지역' 에는 '감정' 이 없다. 지역감정은 지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든 일들의 이유'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녀 키우기

현재 감전동에는 감전초등학교와 서감초등학교 두 군데의 초등학교 시설을 제외하고는 중, 고등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감전동의 청소년들은 인근의 주례나 개금, 혹은 대신동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까지 통학해야 했다.



“그 아이들 총 쓰는 오락실 안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했거든요.”

배영희 : 내가 옛날에 그 아이들 총 쓰는 오락실 안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돌보고 이렇게
계속 지내왔지요. 내가 오십 원 할 때 그 때 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한 삼십 살 먹었는데 그 다하
고 또 백 원으로 올려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 백 원
여면 오십 원짜리 두 개 툭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자동
기계, 그 다음에 이제 백 원 오르면 천 원짜리 들고
가면 백 원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했지.¹³⁾

“감전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아져 학교를 한 개 더 짓자
그래가지고 여기 1동 쪽으로 서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정자 : 네, 서감초등학교 옛날에는 감전1동 감전2동 구분이
됐습니다. 인구가 많아 노니까. 근데 2008년도에 인구
가 주니까 통합이 감전동 통합이 됐습니다. 그전에 그
건 2008년도 통합됐고 감전초등학교에 너무 학생들이
많고 2부제 하고 이러니까 학교를 한 개 더 짓자 그래
가지고 여기 1동쪽으로 서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
기 서감초등학교 애들이 다나왔죠. 그리고 우리 딸은
또 주례여중, 우리 아들은 동주중학교, 주례초등학교,

13) 오락실 동전 바꿔주는 기계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기하게도 내 컷가
에 어린 시절 오락실 문턱으로 들리던 전자음들이 울려 퍼졌다. 기계
가 나오기 전에는 환전이라고 적힌 아크릴 창 아래 동그랗게 뚫린 구
멍으로 천원을 들이밀면 백 원짜리 열 개로 바꿔주었다. 그땐 손만
보였던 그 사람과 내가 마주 앉아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서로 다정하
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 사이에 오락실(娛樂
室)이란 말의 뜻은 여전히 같았으며 아직도 유효했다.

동주초등학교. 위에 보면은 동서대 밑에 아 동서대 바로 옆에 보면 동주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우리 아들은 저 전포동에 동성고등학교 갔고 딸은 주례여고로 갔지요.

정정자 : 90년대 이 근처에 큰 병원이 없었지요. 요 감전동에는. 지금도 없고. 그래서 큰 병원 갈려면 근처에 삼선병원을 갑니다. 여기 마을 주민들은.

김성순 :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여기서 다녔어요. 여기 초등학교는 서감초등학교랑 감전 초등학교 그 두 군데 있어요. 중학교는 없어요. 중학교는 없어 가지고 저기 광무여중이나 저쪽으로 주례여중을 갔어요. 고등학교도 서여고나 저 위에 나가서 가고 중학교는 요 부근에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없어요.

**“오남매가 다 걸어 땡겼지.
그때는 논길. 논길인데 차가가나 논길에.”**

조정순 : 네 요서. 오남매를 다 키웠어요. 학장초등학교. 학교 거 다나왔어요. 오남매가 다 걸어 땡겼지. 그때는 논길. 논길인데 차가가나? 논길에. 우리 딸 서이 아들 둘 다 학장초등학교 다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동래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향도중학교. 근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 아들 대학교 못 보내고 고등학교까지는 다 끝냈어요. 집안이 이제 형편이 안 되니. 그래 즈그 재주가 있으면 할라 카면 꼭 시키지 우짜겠노. 이렇구만은 저거가 아마 고등학교 나와가 취직해가 다 할라카이 안 되데.¹⁴⁾

“애기 보는 집이 있었는제
공장 가려고 발기면 저 갈 때까지 울어요.”

강기숙 : 저 쪽 가다 보면 다리 밑에 주유소 바로 옆에 공장 한 개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신발공장이었어요. 거기 일 할 때, 방 한 칸에 살 때였는데 그때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애기 보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아가 가면은 안 떨어질라고 저 갈 때까지 울어요. 저 갈 때까지 울고 한번 오면 애가 바깥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때도 또 어쩔 수 없이 야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빠지면 안돼서 야간을 하면은 그 때 또 동생도 다락방에 있었으니까, 야간하면 우리 신랑이 데리고 오거나 동생이 데리고 오거나 그랬어요.¹⁵⁾

“나도 사상초등학교 나왔어. 사상초등학교.
지금 형제 역사가 한 백회 나왔을걸. 그 정도 될거요.”

김성한 : 여기 60년대에는 별다른 교육기관은 없었어.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어. 사상초등학교 하나 밖에 없었어. 그게 어디있나하면 저 어디고 하면 이마트 있는데서 짝 나가면 고개 하나 있었어. 여서 한 4km쯤 됐나? 등고 하기는 조금 멀었지. 여기서 감전동 할튼 요주위에 학

14) 잠시 쉬는 시간에 할머니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내가 그 아이들을 어찌 키웠나 싶었는데 돌아보니 이렇게 다 잘 커가지고 내가 이래 호강을 한다. 참 고맙지.”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15) 엄마랑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울어대던 아이의 모습이 생각났는지 그녀의 눈가가 축축해 졌다. 그렇게 힘들게 헤어진 날도 잔업에 야근이 겹치면 잠든 아이얼굴만 보고 다음날 또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날들이 허다했다고 했다. 그렇게 혈육이란 단어에는 늘 그리움과 미안함이 묻어있다.

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고 학교가 6.25때는 군인들이
사용했고, 그리고 난 뒤에 화재가 한번 나가지고 모라
국민학교 화재 나가지고 그 재료를 떼가지고 모라국민
학교 생기고 너무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학장초등학
교 학교가 생겼지. 나도 사상초등학교 나왔어. 사상초
등학교 지금 현재 역사가 한 백회 나왔을걸. 그 정도
될거요.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종합학원을 다녔어요.
여기는 보낼만한 학원이 변변한 게 없어요.”**

강기숙 : 아 초등학교 우리는 요 서감초등학교 중학교는 동주중
학교를 주로 가고 큰 애는 저 경남고등학교고 작은 애
는 동주고등학교, 이제 사상고등학교 아, 경남고. 28살
이예요. 큰 애는 부경고 나왔고요. 작은 애는 지금 부
산교대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종합학
원을 다녔어요. 여기는 보낼만한 학원이 변변한 게 없
어요. 근데 중학교 참 요럴 때는 감전동에 보냈었어요.

모두가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 감전동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
들에게 조금 더 미안해하며 살아야 했다. 울고 보채는 젖먹이를
떼놓고 오는 것도 모자라 야근과 잔업 덕분에 하루 종일 아이 얼
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했고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아
이를 저 멀리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힘든 시절 함께 버티며 자라
난 아이들이 이제는 마냥 고맙기만 하다는 감전동 사람들의 모습
에 으리으리한 학군을 자랑하는 어느 동네의 아이들 보다 감전동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음은 분명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여가생활

감전동 사람들의 시간은 제각각 이었다. 누군가는 새벽별을 보고 출근하기도 하고 또 그 누군가는 그 별을 세어가며 퇴근시간을 기다렸다. 쌓여있는 벽돌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버텨야 했던 시간. 오롯이 느껴졌던 타인의 무게를 덜어내며 나의 마음에, 그리고 너의 마음에 알록달록한 색을 칠한다. 바쁘게 살아야만 했던 감전동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색들이 칠해지는 시간. 감전동 사람들은 그 때, 그렇게 행복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 뭐 그런 영화 이거 뭐
가거라 삼천리 해 봤고 그런거 봤어요.”

배영희 : 우리도 옛날에는 보림 극장이니 뽀이니 걸어서 다니면서 극장에 많이 갔지요. 우리가 클 때 삼십 살 먹기 전에는 그 놀러 많이 갔지. 영화 보러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뭐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돌아오지 않는 해병, 뭐 그런 영화 이거 뭐 가거라 삼천리 해 봤고 그런거 봤어요.¹⁶⁾

“그래 태종대 많이 갔네.
태종대 성지곡수원지 이런데 많이 갔다.”

설정숙 : 감전동에는 뭐 뭐 전신에 초가집이고 뭐 공장이고 뭐 그런데 놀 것도 없었다. 아이고, 을숙도 그런 건 옛날에 을숙도도 좋지도 안했고, 그래 태종대 많이 갔네. 태종대 성지곡수원지 이런데 많이 갔다. 봄놀이 같은데 성지곡수원지, 그리고 금강원 이런데 놀러갔다.

16)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이만희 감독이 연출한 1963년도 작품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군의 활약상을 지나치게 미화 영화가 판을 치던 시기, 대조적으로 전쟁의 참상과 그 안에 휘말린 사람들의 갈등을 잘 그려내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가거라 삼천리’라는 영화는 없으며 대신 1957년 만들어진 ‘가거라 슬픔이여’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도 1948년 남안수가 발표한 ‘가거라 삼팔선’이라는 노래와 혼동한 듯 보인다.

“태종대 쪽이나 자갈마당 이런 데도 가고, 안 그러면 뭐 또 영화 보러
또 영화 보러도, 그때는 주로 보림 극장에 갔지.”

김종현 :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뭐 뭐 태종대 쪽이나 자갈마당 이런 데도 가고, 안 그러면 뭐 또 영화 보러도 그때는 주로 보림 극장에 갔지. 그 때 교통부 쪽에 극장이 세 개 있었어요, 삼성하고 보림 또 한 개는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주로 영화 볼라 하든 두 프로 썩 해주거든 지금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 당시는 영화 보러 많이 다녔지. 거기는 좌우간 영화비가 썩 싸지. 음 남포동도 자주 갔어. 서면 쪽도 가고 그렇지. 여기서는 남포동 갈라하마 둘러 가야 되거든 교통부로 지금은 요 그 구덕터널 있어가 이래 가지마는 그 당시는 교통부로 해가 요 진역 지나서 부산역 지나서 남포동 갔지. 여기서는 주로 인자 서면이 가까우니까 서면 쪽에 많이 가지. 서면도 보면은 거 뭐 회전교차로 쪽, 그렇지 극장 쪽이고 인자 태화 근처니까 지금 태화 쇼핑, 그쪽에 태화 있었잖아 고 있고 뭐 천일 극장, 요 부전동에 영화 보러 마이 가는 데지.¹⁷⁾

17) 다양한 놀이문화가 없던 시절, 여가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 곳은 주로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장소가 대부분이었다. 1909년 만들어진 성지곡수원지와 태종대는 그 중 대표적인 장소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극장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특히 범일동 일대는 국제고무, 삼화고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며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범일동에 위치했던 극장은 삼일, 삼성, 보림 극장이었는데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없다.

“그냥 이웃끼리 알음알음 모여서 길흉사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이래 하자 해가지고 했 지가 99년도에 했어.”

김종현 : 감전동 사람들 모임이 있어. 내가 지금 하는 건 부감회. 부감회라 하는 건 부산시 감전동 사람들이란 뜻이거든. 회원이 그 20명인데. 내 총무 맡고 있거든. 인자 이웃이니까, 그냥 이웃끼리 알음알음 모여서 길흉사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이래 하자 해가지고 한 지가 99년도에 했어. 관광도 가고 그래. 주로 뭐 야외로 관광차 해 가지고 단풍놀이도 가고 계곡도 가고 그래. 2년에 1번 밖에 안 가 2년, 임원단 인자 교체 바뀔 때 가거든.

감전동 사람들은 예전 친구들과 함께 했던 장소들은 말하며 잠시 추억에 젖었다. 서면, 남포동, 보림 극장, 태종대, 성지곡수원지, 금강공원. 다시 그곳에 가면 행복했던 그 시절을 잠시라도 떠올릴 수 있을까? 공간이 기억과 추억을 함께 담아낼 때, 그곳은 소중한 곳이 된다.

주택구조

감전동의 집들은 크기도, 모양도, 방향도 제각각이 경우가 많다. 튀어나온 창문이 있는가 하면 들어간 창문이 있고, 미닫이문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은 여닫이 문이다. 뺑 뚱러있는, 문 같지 않은 문이 있고 녹슨 쇠창살이 굳게 지키고 있는 튼튼한 문도 있다. 그 창문 안, 그 문 너머에서 감전동 사람들이 먹고 자고 웃고 울었던 시절이 머물러 있다.



“연탄 땀 때는 아버지가 아침마다 내려와서
셔터두들기고 그랬어요. 중독됐을거봐.”

정정자 : 여기는 오니까는 내가 장사할 적에는 연탄이었습니다.
석유곤로는 없고요. 연탄보일러지예. 연탄 갈아 쓰고
그렇게 돼있는 거 그래가고 아버지가 맨 날 아침마다
내려 와가지고 셔터 5분인가 10분인가 안 올라가면 죽
있는가 싶어서 연탄가스 해가고 두드리고 그랬어요. 그
만큼 부모들이 연탄 그거 때문에 걱정했으예. 그래가지고
연탄 한 몇 년 때다가 기름보일러로 하고 바꿨지요.

“그때 돈으로 벽지 바르는데 6만 원 정도?
지금으로 치면 16, 17만 원 정도?”

정정자 : 그때 집들은 방 한 개, 부엌 한 개 화장실은 안에 없습
니다. 화장실은 마당에 있습니다. 공동으로 네 전부다
방 한 개, 부엌 한 개 그렇지요. 벽지도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흰색 종이지요. 얼룩덜룩한 거. 아무래도 흰
색은 못 발라주지예. 왜냐하면 안에가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흰 거 바르면 표가 나서 분홍 같은 거 뭐 푸리
무리한거 분홍색 그런 걸 많이 발라주면 안에가 벽지
가 지저분해도 표시가 안나지. 그때 돈으로 벽지 바르
는데 6만 원 정도? 지금으로 치면 16, 17만 원 정도?
2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때 집
들은 대부분 주인들은 2층에 살고 1층에 방이 4개나
5개. 보통은 7집인데, 근데 요즘은 수리를 해가지고 2
층에 주인이 방 한 칸 사는 것도 그냥 주인이 독채로
살고 1층에 한 칸 자리를 두 개를 엮어가지고 방 두
개 거실 한 개로 1층에 두 가구 두 가구 있는데가 좀
많지요.18)

**“단칸방에서 새끼를 데리고
다 네 명이서 세 명이서 이리 살았지.”**

김성순 : 그 당시는 사람이 많아도 부엌 한 칸 방 한 칸 살고 두 칸짜리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없으니까 단칸방에서 새끼를 데리고 다 네 명이서 세 명이서 이리 살았지.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화장실도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었지. 한 칸짜리는 다 바깥에 있어요. 수도도 밖에 있고 그렇지요. 요즘도 한 칸짜리는 보통 안에 화장실 없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두 칸짜리 돼야지 안에 화장실 다 있지만은 요즘도 그렇잖아요. 한 칸짜리는 안에가 있는 게 드물어요. 나도 맨 처음에 살 때는 화장실이 안에가 없더라고요. 없었지 싫은데. 한 칸짜리, 우리도 거그서 애들 셋에다 우리 둘이 다섯 식구가 살았는데 한 칸짜리 부엌 있고 방 있고 요 밑에 장사할 때 그리 살았는데 다섯 식구가 방 한 칸에 맨 처음 살 때에는 그랬지.¹⁹⁾

사상공단이 활발하던 시기, 감전동도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공장 기계 앞에 다닥다닥 붙어 일하던 공장 노동자들은 일이 끝

18) 아랫집에 함께 살던 딸아이 가족이 아침이 됐는데도 기척이 없으면 연탄가스 걱정에 급히 내려와 셔터를 두들겼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웃으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연탄이 기름으로 바뀌고 다시 도시가스도 바뀌어도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따뜻하다.

19)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동화장실과 단칸방에 대한 기억은 지금 30~40대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뉘에서 오는 단절이 만연하는 지금, 추운 밤에 어린 동생 손을 잡고 화장실 가던 언니, 오빠의 따뜻했던 손과, 늦은 밤, 단칸방을 가득 채웠던 가족들의 낮은 숨소리는 지금도 우리의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다.

나면 다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덧대어 바른 벽지에는 앞서 사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화장실을 가려면 방세 때문에 한바탕 했던 주인아주머니를 만나 어색하게 인사라도 해야 했다. 그땐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참 가까웠던 시절이었다.

물난리

감전동은 낙동강 옆의 평야지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거기에 삼락천과 감전천이 마을을 감싸듯 흘러가니 물난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던 동네였다. 거기다 지대까지 낮아 물이 한번 들면 빠져나가질 못해 주민들의 여름철에는 매번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동사무소에서 그거 뭘니까 담요 나취주고 쌀 주고
구호품 나오면 그걸 올려줬어요.”

정정자 :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그물이 넘죠. 넘었지. 태풍 큰
거 올 때마다 침수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2층에
1층집 이었는데 2층으로 집을 올리가지고 이게 끈으로
해가꼬 수프에 라면 해가꼬 끈으로 땡겨 올려가지고
라면 끓여먹고 막이래 했어예. 물이차서 못 내려오니
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그거 뭘니까 담요 나취주고
쌀 주고 구호품 나오면 그걸 올려줬어요.²⁰⁾

“옛날에는 물이 범람하면 기름철은 물이라서
뺏으면 찌퍽찌퍽 했어요”

정정자 : 우리는 이래 걸어가면예 옛날에 지금은 물이 좋지만
옛날에는 공장들이 많아 가고 걸어가면 발목 밑으로
기름때가 아니고 새까매예. 물이 오염되가고 물에 빠지
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게 찌퍽찌퍽한 그런 기름
찔은 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고
이래서 물자체가 넘으면 화장실도 역류하고 공장 한
번 훑고 온 물이면 그 기름때가 아 그런 기억이 있어
요. 그렇게 동네가 침수가 되면 보호소 같은 게 마련됐
는데 우리 집은 2층이었고 다른 주민들은 동사무소 가
고 그래 했죠. 담요 나오고 우리는 2층에 살았다고 물
안 들어왔고 아래층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라면하고

20) 그때 끈에 담아 올려 보낸 건 허기를 달래줄 라면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담아
줄을 매어 올려 보냈던 그 때의 이웃들. 감전동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단단히 묶어가며 힘들었던 시절을 버텨낸
것은 아닐까?

담요하고 막 받았다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감전동은 상
습침수구역이라서 구청에서 큰 차를 해가지고 하수관
에 찌꺼기들을 흡입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비가와도 큰 걱정이 없어요.



“비 오면 마을에 물난리가 났지요.
지대가 낮은 집은 많이 찼고,
지대가 높을수록 갈아도 높은 데는 덜 찼고 그랬었어요.”

김성순 : 비 오면 마을에 물난리가 났지요. 그때가 언젠진 모르
겠는데, 물 차가지고 요 다 들어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가 지대가 조금 낮아 높아요. 딴 데보다 그러니까

그냥 이리 찰랑찰랑 물들어 올라하면 인자 요집 와서
 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밑에 집 살 때는 그랬는데 요
 바닥까지만 쫘 들어오고 방에까지는 별로 안 들어왔거
 든요. 근데 낮은 지대는 방까지 다 들어오고 그랬잖아
 요. 그니까 저쪽, 새마을금고 보니까 거의 일층은 막
 다 물이 찼어. 지대가 낮은 집은 많이 찼고, 지대가 쫘
 똑같아도 높은 데는 덜 차고 그랬었어요.

“우리 시우 내리면. 지금은 그 댐이 있어가지고
 물이 안 찰때, 옛날에는 찼었어요”

조정순 : 요기 물이 많아가 내나 모를 습가노면 비가 오면 물
 담아빠면 마 절단나빠리고 파 물어버리고 이랬어. 자주
 강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위에 댐하고 이런 거. 여기에
 뭐 샘이도 없어요. 여쭙 들샘이라카는데 거기 얄곳은
 물이 빌그릇는데 강물 저거 여다 먹고 살았어요. 우리
 시우 내리면, 지금은 그 댐이 있어가지고 물이 안 찰
 때, 옛날에는 찼었어요. 비가 시우가 저위에서 대구로,
 밀양에 비가 내리면 여기에 시우가 내리거든. 뽕전 물
 이 내리거든 그럼 단지에다 그 물을 장군같이 이다가
 단지에다가 담가놓고 백분, 고것만 딱 여 놓으면 시켜
 붓지. 백분이라고 있어요. 그 물 인자 앓히는 그거 그
 래 묵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물이 들면 미취 또 붓 빠지나가.”

김종현 : 물난리가 두 번이나 있었거든, 두 번 다 날 때 내 여
 기 살았어, 태풍 주디가 한 번. 주디 그 때 물이 요 밑
 에까지 찼어. 여기는 괜찮았어. 요 동사무소에서부터
 옛날 길이 있었어. 요 요, 옛날 길이 쭉 저 으 어데까

지고 저 감전교회, 저까지 뽀뿌라마치 카는 거 사상.
 패법 초등학교 쪽, 지금도 있어 거기에 그 쪽 그 쪽 길
 이 굉장히 높아, 그쪽 길이 높아노니 그는 물이 안 차
 고. 나머지는 물이 다 들었어. 공장 지대로 요까지 왔
 어요. 옛날에는 물이 들면 미쳐 또 못 빠지나가.

**“그러거 물이 들면은 재래식 화장실, 화장실
 그게 역류해쳐 방까지 차고 전부 풍볼이라.”**

김종현 : 그 요 밑에는 지금은 개조돼가 집이 뭐 새로 다지었지
 만 옛날 집은 옛날 뭐 하꼬방이었어. 옛날은 뭐 방 한
 칸 부엌 한 칸 이른 데 마이 거의 다 그런 집이었거든,
 그래서 물이 들면은 재래식 화장실, 화장실 그게 역류
 해서, 지금은 수세식이고 옛날에 재래식. 그래 물이 들
 면은 막 엉망진창이라 이기 그래가 방까지 차고 전부
 풍물 그래 그래가지고 가구도 뭐 다 젖고 이불 젖고
 그래가지고 국가서 뭐 뭐 라면도 주고 그 당시 사람들
 여러 가지 비품이 나왔더라고.

감전동은 강을 끼고 있고 지대가 낮아 물난리가 잦았다. 태풍
 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여지없이 안방까지 흙탕물이
 차오르곤 했다. 감전동 주민들은 물난리를 겪으면 함께 힘을 합쳐
 물을 퍼내기도 했고 먹을 것을 나누었다. 지금은 배수시설이 잘
 조성되어 예전처럼 심각한 물난리는 겪지 않게 되었지만 감전동
 사람들에게 물은 여전히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또 그만큼 빼앗
 기도 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환경오염

1980년대, 사상공단이 조성되자 낙동강변의 넓은 들판에는 공장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우뚝 솟은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매연과 공장폐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공장이 많아질수록 마당에 널린 빨래들은 줄어갔고, 비가 오는 날 방에는 마을 앞 하천이 시커멓게 썩어갔다.



“사람들이 사상구만 오면 공기가 안 좋다카고 오면은
코부터 막는다 그러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요.”

정정자 : 외부에서는 근데 공장지대라고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
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돈이 돌고 이래
하니까는 참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사상구만 오면
공기가 안 좋다카고 공장이 매연이 있고 그러다니까
오면은 코부터 막는다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전국적으로 오염
이 심한 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에 오면은 머리부터 아프다고 하더라고 사상구에 딱
오면은 우리는 내가 맨날 그림니다. 나가면 그러지 마
라 우리가 여기 8학군이다 나는 8학군이고 여기 서로
학교 오고 싶어한다.

“시꺼먼 쇳가루 같은 거 날리고 했지요.
그래도 마아이고 좋다 하고 마
그걸 좋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살고있는데니카네.”

정정자 : 난 항상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기 공기 좋고 물 좋고,
나는 동래 이런데 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 동네를 잘
모르니까 여기만 40년째를 살고 탄대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뭐 시꺼먼 쇳가루 같은 거
날리고 했지요. 방바닥 닦으면 이래 했지 그래도 마 아
이고 좋다 하고 마 그걸 좋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살
고있는데니까네. 몸에 나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제가 좋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은 뭐시 안 좋다고는
어른들이 말은 하지만은 우리 친정식구들이고 우리들
이고 다 건강하고 하니까는.



“그렇게 흰 빨래 널어놓으면 써 거렇게 되고
옛날에는 냄새도 나고 심했지요.”

김성순 : 요기가 공장이 또 많다보니까 막 그 공기가 안 좋고 그랬어요. 그전에 고무공장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렇
는디 고무공장이 없고 이래 허니까 요즘은 그전에 고
무공장 있으니까 그 고무가 시커머이 날라 오고 뭇 허
고 공기가 안 좋다고 말이 많았었어요. 나도 직접 겪었
죠. 써 껌고 빨래도 껌고 하고 색깔이 저기한다 하면서
그런 저기가 많이 있었었어요. 그전에 흰 빨래 널어놓
으면 써 거렇게 되고 그래갖고 예, 많이 날라 오고 예,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인제 냄새도 없고 요즘은
써써 그런 게 없지요 없으니까. 옛날에는 냄새도 나고
심했지요.²¹⁾

21) 감전동의 대기오염 수준은 무척 심각했다. 1986년 신문기사에 따르
면 부산 감전동의 먼지오염 수치는 $252\mu\text{g}/\text{m}^3$ 로 부산지역에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1991년도 신문기

“국제상사 저거 바람에 더 나뻤지.
물고기 때 죽음 당하고,
썩도 다 죽어 빠고 낚시하는 썩. 그것도 다 죽어.”

조정순 : 근데 박대통령 할 때 대통령되고 나서 이거 주물공장
공장지로 만들었거든. 그러니 공장지를 만들면 폐수가
억수로 나쁘다 아인교. 국제상사 저거 바람에 더 나뻤
지. 물고기 때 죽음 당하고, 썩도 다 죽어 빠고 낚시하
는 썩. 그것도 다 죽어. 물이 시커먼 물이 막 내려 오
이 조개도 다 죽어버리. 국제상사 이거 바람에 그래가
국제상사 이것도 전두환이가 넘가뻘다아인교. 하루아침
에 넘가뻘다. 지금거기가 아파트 다 지어가 있다. 한신
아파트, 동신아파트 이래 다지어가 있다.



사에는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울 문래동과
부산 감전동이 꼽히기도 했다. 특히 감전동은 1㎡ 당 납, 구리, 크롬
오염 수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
황이었다.

“번개탄, 그거 맨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억수로 부락이 추겨웠어요.
 먼지 날리고 톱밥 날리고 새카맣이 그걸 만드니까네.”

조정순 : 제일 공기 나쁜 거 많이 나갔어예. 이전에 그거 그와
 그거 뭐꼬? 그거 톱밥 거 가지고 나무공장에 와 그거
 톱밥 안 나오나? 그거를 가지고 요새 그 연탄 그거 요
 래가 불 톱톱 피우는 거 안 있나? 그거 맨드는 공장.
 번개탄, 그거 공장이 있었거든. 그거 맨드는 공장이 있
 었는데 억수로 부락이 추겨웠어요. 먼지 날리고 톱밥
 날리고 새까마이 그걸 만드니까네. 그러가 여기 예 하
 루만 안 닦으면 한 시간만 안 닦으면 새까매예. 빨래
 못 널었어요. 안에 널고. 공기가 나빠가, 목이 아파. 지
 금 목이 아파,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엔 목재소, 고무공장, 이른 기 마이 있었거든
 근데 냄새가 많이 났어. 그래서 뭐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었지.”

김중헌 : 우리가 시외에서 이리 들어오면 낙동강 다리에서 짝 보면은 안개처럼 뭐가 끼었지. 그게 전부 다 공기가 그 만큼 탁했지. 거기 인제 냄새, 우리처럼 사는 사람은 몰라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냄새 되게 심했어. 지금은 마이 저 개선되어가지고 마이 좋아졌지. 그 당시엔 자기 여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응? 지금은 회사도 뭐 큰 회사는 없고 그 당시엔 목재소, 고무공장, 이른 기 마이 있었거든. 근데 냄새가 많이 났어. 그래서 뭐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었지. 뚜렷하게 이래 그런 건 없지만도 아무래도 썸 안 좋지.



“이 동네 딱 들어오면 냄새가 한 열댓 가지 냄새가 난다고
굉장히 최고 심한 지역이거든 공해가 최고 심한지역이야.”

김성한 : 여기 우리 집 마당이 넓어 가지고 사철나무 사철나무
라고 굉장히 성장력이 강한 게 있었는데 그게 한 2, 3
년 되면 공해에 말라 죽는 거야. 말라 죽는다고. 그만
큼 여기 땅 넘어 이 동네 딱 들어오면 냄새가 한 열댓
가지 냄새가 난다고 굉장히 최고 심한 지역이거든. 공
해가 최고 심한지역이야. 요 마을 앞에 흐르는 하천도
복개 덮기 전에는 좀 물이 깨끗하진 않았지만 비가 오
고나면 흘러 내렸으니까 괜찮았지.



“공장이 생기가 경제는 좋아졌는데
환경적으로 완전 낙오 돼버렸지, 완전히 물을 못 벌어
봤는데 매연이 심해서 물을 못 벌었지.”

김성한 : 이 마을이 하굿둑이 생기면서 많이 타격을 받았고 공
장이 생기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는 좋아졌는데 환

경적으로 완전 낙오 돼버렸지, 완전히 문을 못 열어 봤는데 매연이 심해서 문을 못 열었지. 냄새도 그렇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옛날에 요 밑에 아신통상이라고 요서 조금 떨어진데 거게 민가가 있었는데 유독가스 어디서 세는지 몰라가 집 증독도 되고 그래 사건이 있었어. 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지하에서 유독 가스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집단 증독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



“비만 오면 맨 처음 우리 환실 동원아파트 있는데
거 맨 처음에 입주 했을 때도 그쪽에 냄새가 좀 났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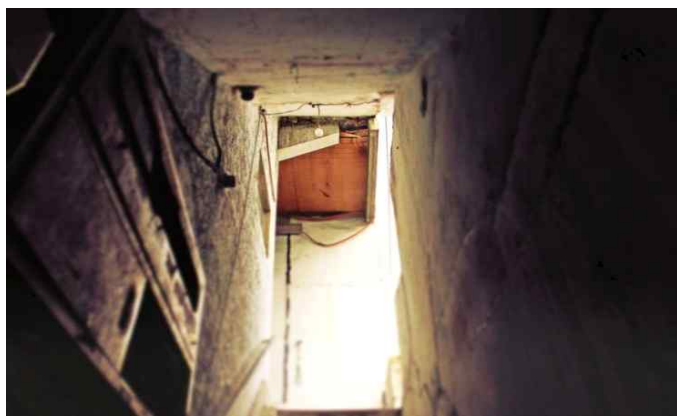
강기숙 : 사실 여기 뭐 이쪽으로 사상 쪽으로 오면 그쪽에 냄새

가 굉장히 심하고 좀 더럽다고들 했어요. 유수지 그쪽에는 똥물 내려 간다하고. 그래도 유수지 저래 있는데 많이 고쳤잖아요. 홈플러스 옆에 있잖아. 지금 분수대도 만들고 그래 해놨잖아요. 그쪽으로는 냄새 같은 거 많이 낫어요. 지금은 좀 괜찮지. 비만 오면 맨 처음 우리 한신 동원아파트 있는데 거 맨 처음에 입주했을 때도 그쪽에 냄새가 좀 낫았어요. 한신. 홈플러스 이마트. 홈플러스 옆에 보면 그 뒤에 한신 동원 아파트 있잖아요. 거 있는데 그쪽 내나 개천이잖아. 그쪽으로도 그때 아파트 사는 사람들 비오고 이러면 냄새난다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정비했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냄새가 나요. 그래 요쪽에는 조금 조금 나고 또 저쪽은 내려가다가 보면 또 아직 안한데 있어요. 거기다 냄새 많이 나요.

그 때를 말해주는 뉴스나 자료들은 사상공단 인근지역의 엄청난 공해를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공해 속에서도 살만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 공해 때문에 온 동네가 새까맣서 살기 힘들었다는 온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누구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의 우리들은 굴뚝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올수록 치솟는 대한민국 경제지표와 폐수가 쏟아져 나올수록 성장하는 부산경제 그래프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그 그래프 안에서 매일 매일 매연과 악취를 견뎌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말았다. 어쨌든 그 때의 감전동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감전동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이 아닐까?

뽕뿌라마치

감전동 교차로의 북부산세무서 주위 일대는 샛강의 포구로 감동포라 불렸는데, 부근에는 낙동강의 신선한 생선회를 파는 술집이 몇 채 있었다. 이 술집 주위에 포플러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곳을 자주 찾던 일본인들이 이 일대를 ‘뽕뿌라마치’라고 불렀다. 그러던 뽕뿌라마치가 본격적인 유흥가로 변한 것은 1960년 대 미군부대가 인근에 주둔하면서 부터이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주점이 생겨나면서 이 일대는 유흥가로 변해갔다. 1960~1970년대 사상 공업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일대는 점차 매매춘 지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사상 공업 단지 내 공장의 시외 이전과 이에 따른 노동자 수의 감소로 감전동 뽕뿌라마치도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매매춘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뽕뿌라마치 거를 우리 할아버지 시절에는 기생집이라 했어.”

배영희 : 내가 어렸을 때도 뽕뿌라마치에 지금처럼 막 그 술집 같은 게 있었지요. 뽕뿌라마치 거기는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다닐 때부터 거 있을 때부터도 그 술집이 유명했어요. 그때는 기생집이라 했지. 그래 그때는 기생집이 더러 있었기는 있었는갑드만.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같은 분들도 거 한번 쓱 한잔씩 먹으러 가는 갑데. 마을 주민들이 그래 한번 쓱 가면 거 가서 재밌게 먹고 뭐 기생들 뭐 기생들 카니까 하기는 뭐 하지만은 재밌게 놀고 온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네 어렸을 때는 저 그런 거 저쪽가면 안 좋다 가지마라 뭐 이런 거는 들은게 없었어.²²⁾

“저는 뭐 여자들 남자들하고 술 먹는 그런 공간 뭐 이런식?
어렵잖이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정정자 : 뭐 당연히 남자 분들은 술 한 잔 걸치면은 그 쪽으로 2차로 막 가는데고, 아줌마들 골목에 항상 나와 있고 이미지가 그랬죠. 거기는 항상 의자에 아줌마들 앉아있고 택시에서 내리면은 남자들 데리고 가고 그런 곳이었어요. 동네주민들도 많이 갔고 그랬죠. 아이들한테는 초등학교 지나면서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뽕뿌라마치는

22) 1902년 경, 감동마을에서 서편 마을로 들어가는 서천(西川) 북서쪽 독 위에 주막집이 두 군데 생겼다. 경부선 철로 부설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다 밤이 되면 이곳을 찾아 막걸리 술잔을 기울이며 노동자들은 몸을 녹이고 향수를 달랬다. 1921년에는 사상 역이 생기며 주점은 더욱 성행했고 한 일본인이 서천독에 심어져 있던 포플러 나무를 보고 이곳을 뽕뿌라마치(町)라고 불렀는데 결국 그것이 일대의 명칭이 되었다.

당연히 안 좋죠. 저는 뭐 여자들 남자들하고 술 먹는 그런 공간 뭐 이런 식? 음 어렴풋이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거기 가지 말라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가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이라 몇 시 부터 몇 시 까진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아 그럼 거기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안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김해 전철 고기가 뽀뿌라마치 산이라.**
그 근처에 그 요정이나 윗각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뽀뿌라마치 거기에 전복 아가씨들 많이 있었어.”

조정순 : 뽀뿌라마치, 거 산이 하나 있었거든. 그 산 다 뜯어가길 다 메웠어. 그 산이 컸어요. 거 지금 집이 다 들어섰어요. 지금 그 저저 뽀뿌라마치라 카면 그기다 거거 사상역. 사상역 쪽이 뽀뿌라마치. 거기가 산이라 뽀뿌라마치 산이라 산 다 뜯어낸 자리라. 사상역. 오르막길 있는데. 터미널 말고 지금 여 저저 전철 땡기제. 김해 전철 고. 고기다. 고기가 뽀뿌라마치 산이라. 산 뜯어낸데라 지금도 오르막이리예. 그 근처에 그 요정이나 윗각이나 술집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전에 거 고랑이고 가시, 가시밭이 짝 있고 거기 뽀뿌라마치 거기에 전부 아가씨들 많이 있었어. 예전에는 재첩을 끌고 그까지 올라갔지. 리어카를 끌고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면 그 고랑이거든 고랑, 큰 뱃고랑이거든, 뱃고랑이었어.

“지나가도 풍경도 없다. 뭐 풍경 있노. 가스나들 있었지.
문 열고 들어가면 아가씨들 안에 있어가지고
한 박스 얼마 내려가지고 묵고.”

설정숙 : 저 동백상가라고 있어. 동백아파트라고 동백상가라고 있는데 지금은 마 후지지 쫘. 뽀뿌라마치 있는데. 뽀뿌라마치가 어디쯤이나면, 터미널 쪽에 좀 못가서 파라곤 호텔보다도 요쪽편이라니까 더 요쪽편이라. 파라곤 호텔은 저 터미널 하고 마주 본다아니가? 요리 마주보는데 요 뒤쪽 요쪽 되겠다. 요쪽, 패법초등학교 쪽. 옛날에 산이 있었는데, 뽀뿌라마치산. 지금은 없다. 옛날에 뽀뿌라 나무가 있어봐니까 그래 뽀뿌라마치. 지나가도 풍경도 없다. 뭐 풍경있노. 가스나들 있었지. 기억나는 거 그는 뽀뿌라마치는 문 열고 톱 들어가 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아가씨들 안에 있어가지고 한 박스 얼마 내려가지고 묵고, 그래가 묵고 그래 퍼놓고 그래 안 있다 마 유리로 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들어가면 아가씨 몇 명 남자 몇 명 같이 딱 그거 해가지고 그래 한 박스 얼마 내려 먹는다. 뽀뿌라마치 바가지 씹는다 아니가 바가지 바가지 씹는다. 남자들 돈 얼마가 있으면 얼마 얼마 딱 받고 그래 딱 주고 그런다.²³⁾

23) 1968년, 사상공업지역이 조성되며 공장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뽀뿌라마치 일대는 유흥가로 변모했다. 최근에는 유흥가가 사라지고 주택가로 바뀌었지만 뽀뿌라마치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다.

“그 벼락산 모퉁이라 하고 그계 산이 제법 컸어.
그기 미군이 주둔을 했거든 포부대가 주둔을 했어.”

김성한 : 요 근처에 어렸을 적 기억에 포부대가 하나 있었어.
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산이 없어지뵈어 산을 벼락
산이라 했는데 사상 쪽인데 그 산은 이 앞쪽에 조금
직선거리로 한 200m될까? 지금 위치로 얘기할라면 그
저 선생님은 잘 모르실거고 직선거리로 한 200m 보면
미군 곡사포 부대가 있었어. 그 벼락산 모퉁이라 하고
그계 산이 제법 컸어. 거기 미군이 주둔을 했거든 포부
대가 주둔을 했어. 제법 규모가 컸지. 그게 예전 하야
리야 부대처럼 미군이 있어서 뽀뿌라마치란게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땐데 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상역에서 열차 통학을 했거든 거기 지나가기 참
힘들었어. 흥등가라쳐.”

김성한 : 그래서 뽀뿌라마치라 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 양공주
도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그래 많지는 안했고 거개가
인자 자연적으로 토종나무 뽀뿌라가 많이 있었는데 거
인자 경부선 철도 공사하면서 거서 참 힘들게 일하면
서 주막집에 옛날엔 주막이지 그지? 그 주막집에서 술
한잔하고 주막집 비슷한 거였어. 일마치고 나오면 술집
이었는데 마침 거기에 포부대 있고 일부 양공주는 많
이 그렇게는 없었고 그계 인자 이 공단이 들어서고 산
업화 되고 이래하니까네 그계 어찌 변모 됐나하면 옛
날에 뽀뿌라마치란기 유흥으로 변해 버렸어. 그래가지
고 흥등가로 변해버렸지. 공장에 젊은 노동자들이 있으
니까. 그래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집중단속을 해가지

고 해체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땐데 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상역에서 열차 통학을 했거
든 거기 지나가기 참 힘들었어. 홍등가라서. 그게 지금
강제로 해체하고 나니까네 그게 사상 쪽, 사상역 역 쪽
으로, 사상역 서쪽 요 밑으로 쪽 내려왔어.

감전동 사람들에게 뽀뿌라마치는 자신이 경험하고자
했던 만큼씩 기억되고 있었다. 누군가에는 단순히 기생집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남자랑 여자랑 술 먹는 곳, 또 흑자에겐 단순히 가
면 안 되는 곳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학창시절, 쳐다보기도 힘
들었던 여자들이 있던 홍등가로, 그렇게 감전동 사람들은 같은 공
간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뽀뿌라마치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
억 속에 조각조각 나뉘어 존재하고 있었다.

강(江) : 흘러가다

낙동강은 예전 감전동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강가에서 갈대를 베어 지붕을 덮고 빗자루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다. 하굿둑이 생기기 전에는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 어업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 하굿둑이 생기며 강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흐르지 못했고 강을 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역시 어디론가 흐르듯 사라져 버렸다.



갈대

갈대는 여러해살이풀로 습지나 냇가, 호수 주변에 서식하는데 줄여서 갈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노(蘆) 또는 위(葦)라 한다. 감전동 사람들은 '깎'이라는 사투리로 부르기도 한다. 감전동 인근의 낙동강 하구는 지역적 특성상 해안 지역이 많고 크고 작은 삼각주가 발달해 있는데 특히,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하중도(河中島, 하천 가운데 생긴 퇴적 지형)로 많은 갈대가 자라고 있으며 경치가 빼어나다. 그러나 1987년 낙동강 하굿둑의 축조로 을숙도가 육지와 이어져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갈대숲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활동으로 현재는 다시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8월이 되면 질퍽질퍽한 갈밭에 가서 해이를 뽑아요.”

배영희 : 요고는 저 8월 달 되면 시작이 됩니다. 8월 달 시작이 되면은 8월, 한 닷어도 한 15일까지 뽑으면 끝이 납니다. 이거는 해이를 뽑아야 돼 해이를, 3월 되면 나락 해이 안 올라 옴디까? 고거 올라오면은 고거를 뽑아요. 베는 것보다 손이 엄청 많이 가죠. 그거 뭐 장화 신고 작업복 입고 밑에는 뭐 빨이 아니라 깔이거든. 깔이 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빠지고 그러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장화를 신어야 되거든. 질퍽질퍽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카니까 뽑는데 8월 달 8월 중순까지 뽑고 요걸 갖고 와서 그때부터 인자 8월 달 중순 10월 초부터 시작하면은 그때까지 뽑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갖고 옵니다.



“갈대빛자루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다 이래 만들었지.”

배영희 : 우리 집에 갖고 오면 우리가 인자 삽니다. 또 그걸 사
가지고 요렇게 갈대 잎을 마이 있는 거를 갖다 뽑아
가지고 인자 여서 전부 손질을 합니다. 우리가 손질해
가지고 말리고 인자 전부 고루고루 골라가 전부 다 하
고 이거 말릴려면 한 일주일 걸려요. 마당 같은 데 널
어 놔 놓았다가 저녁에는 인자 걸었다가 또 아침 되면
햇빛 나면 또 널고 이래가 한 일주일 걸리면 그 또 이
렇게 묶어 뵈다가 그 이제 우리가 직접 쉽게 말해 시
장에 그 목실을 사다가 염색을 우리가 해요, 흰 실을
사다가 염색을 하면 손이 빨거이 이래 가지고 염색을
해가 거 말려 가지고 그 실로 가지고 만들고 그랬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손으로 다 이래 만들었지.
그래서 시간이 마이 걸리지요, 요래 준비를 해 놓 것도
하나 할리카면은 한 두서너 시간 걸려. 준비를 딱 해
놓고 빛자루 하나 만드는데 두세 시간? 세 시간 뭐
넘어 걸려요.²⁴⁾

“여기 옛날에 갈대가 10월 달 음력 10월 달 되면 갈대를
절북 비가꼬 바제하고, 갈대로 만들었길 담 이름이 바제야.”

조정순 : 여기 옛날에 갈대가 10월 달 음력 10월 달 되면 갈대
를 전부 비가꼬 바제하고. 여여기 지금 보루꾸로 담을
하지만 이전에는 칼로 비가꼬 바제를 엮어가고 담을

24) 실제로 배영희의 자택에는 갈대빛자루를 만들던 공간이 남아있었다.
최근에는 수요가 없다보니 만들 일이 없어 손을 놓고 있지만 우리에
게 갈대빛자루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 해주는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
다 빛났다.

했거든. 갈대로 만들었던 담 이름이 바제야. 갈대를 가지고 엮어가고 담을 만드느니라 인자. 돌아가면서. 그래가 그거를 옷대가리는 비가꼬 바제를 만들고 작은거는 비가꼬 김발도 만들고. 그것도 하고 우리고 발도 치고 그랬어여. 그래서 갈대 꺾어서 파는 것도 했는데 그게 짤이라. 짤 그거. 저기 저거 짤대 아잉교. 저걸로 빗자루도 배우고 이전에 저거 뽑아가지고 팔고 요 사람 많이 들어왔어여. 옛날에 그렇게 먹고 살았지. 여농사만 지가면 못 먹고 사는기리. 근데 짤도 함부로 बे가면 안 되는 기리. 땅 주인이 있고. 이거는 어민들, 여 마을, 마을 분들이 다 하는기리.

“저 완도지방에 김팔리는 김발 엄청나게 그제 소요가 되니까네 우리는 거서 오는 소득이 많았지.”

김성한 : 우리가 천혜의 자원이 뭐가 있나하면 저게 갈대밭 배영희씨 이야기 많이 들었을거야. 그거를 채취를 해와가지고 마을 전체가 발발 해수욕장 같은데 보면 이래 발 붙은 거, 발. 그게 그런데도 소요가 많이 됐지만 또 어디가 소요가 많이 됐나 하면은 저 완도지방에 김팔리는 김발 엄청나게 그제 소요가 되니까네 우리는 거서 오는 소득이 많았지. 이 동네가 지금은 갈대를 못비구로 하는데 옛날에는 갈대밭이 너무 커가지고 마을에서 한집에서 나와 가지고 갈대밭에 갈대 비러가게 되면 몇 일본 식량 준비해 가지고 갈대밭에서 살면서 채취를 해가지고 배를 운반 그게 지금 어디쯤 되냐 하면은 저 하단 저쪽 밑으로 될 거야 그게 거기서 채취를 해가지고 배를 가지고 여기 수문에 배수장 있는데 요 리 옮겨가지고 거서 다 운반해가지고 갈대치고 갈대가지고 발 만들어 가지고 소득 올리고 그랬어.

“갈대밭에 주인은 특별하게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제
잠정적인 나름 구역이 있었겠지.”

김성한 : 그런데 갈대밭에 주인은 특별하게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구언 형성되면서 자연스레 토사가 밀려오면서 섬같이 형성되면서 거기 자연스레 살았기 때문에 만나면 집집마다 한 사람 씩 동원되어 나와가지고 비고 하니까는 잠정적인 나름 구역이 있었겠지. 그러하다가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어. 협동조합 설립해가 여기도 지금 김광섭씨고 요기 당산 넘으면 하나있는데 고계가 협동조합 사무실이 있었고 그 공동 이발소라던가 창고 정미소가 그리 있었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에 특산물 많이 나오면 개개인이 팔러댕기는 거 보다도 한군데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게 낫다 해가지고 협동조합자체를 설립을 했지.



낙동강은 감전동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였다. 특히 강가에 무성하게 자라는 갈대는 어느 때는 초막집의 지붕이 되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튼튼한 갈대빗자루로 만들어 지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갈대빗자루는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부수입이었다. 여름밤이 되면 밤에 횃불을 들고 강가로 가서 갈대 줄기에 붙어있는 갈게를 잡아다 게장을 담아 먹기도 했는데 ‘사상팔경(沙上八景)’에 나오는 제1경인 ‘칠월해화(七月蟹火)’는 감전동의 서쪽 갈대밭에서 게를 잡기 위해 밝힌 횃불이란 뜻이 담겨 있다. 감전동 주민들은 강변 갈대밭을 개간하여 벼농사, 보리농사, 밀농사를 짓기도 했으며 서편 마을에는 산이 없어 돌담이나 흙담이 적고 갈대로 울타리를 만들고 대문도 갈대로 엮어 만들었다.

재첩

재첩은 모래가 많은 진흙 바닥에 서식하는 민물조개로 우리나라에는 낙동강과 섬진강 하구 유역에 많이 서식하였다. 특히 낙동강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으로 예로부터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였고 재첩도 그 하나였다. 그러나 1987년 낙동강 하구에 제방이 축조된 이후부터 재첩종이 급격히 감소하며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러 지금은 낙동강 재첩국을 맛볼 수 없는 형편이다.



“어머니들이 그 생채첩을 되로 사가 와가지고
집에쳐 국을 만들어 새벽 4시 쯤 팔러 이고 나가고
했어오.”

배영희 : 제일 처음에 하면은 재첩을 낙동강에서 잡아 와 배 타
는 사람들 잡아 옵니다. 잡아 오면은 인자 우리가 가서
국을 만들고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만들지 만들어 새벽
4시쯤 이래 돼가지고 그 때 인자 팔러 이고 나가고 했
어요. 그때쯤에 동신버스라 카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를 주로 타고 가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버스타
고 땀길 때만 해도 현대시대고,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에 재첩국을 팔러가고 이럴 때는 버스도 없었어요.

“요기 본토배기 사람들은 전부 다 재첩장사 했는갑더라고.”

김성순 : 요쪽에는 재첩이 얼마나 냐나? 하동 저쪽에가 많이 냐
지 요쪽에도 재첩이 많이 냐는가? 그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첩 장사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
라고 왔다갔다 재첩장사 많이 해가지고 오래 하신 분
들 많더라고. 요기 본토배기 사람들은 전부 다 재첩장
사 했는갑더라고.

“엔진 경운기. 그거를 없애가지고 쾅쾅 쾅 닳다.
통통배지. 옛날에 묵선 통통배 아니가.”

조정순 : 노 젓고 이거 젓고 그래가지고 재첩 잡다가 인자 조금
발달태가 경운기 없애가 멍기고, 엔진 경운기. 그거를
없애가지고 탱탱 탱 다녔다. 통통배지. 옛날에 묵선 통
통배 아니가. 근데 풍승을 달면 바람이 잘못불면 배가

디비지가 그렇거든 바람을 차 올라가는데 힘이 드니까
 그러구로 인자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거로 인자 경운기
 를 엮어가 지금 말해 촌에 경운기 그기 경운기라.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농사짓다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이래 뭐 그거 나락, 보리 봄에 되면 보리그거하
 고 그랬는데 그러구로 재첩이 강이 있고 하니까. 인자
 해먹을게 없잖아. 옛날사람은. 직위가 없으니까 기술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 기술도 없고 이래 나노니 그래 마
 니도나도 배를 잡아가 인자 어촌계 허가를 내가. 그것
 도 허가를 안내면 안돼. 허가를 내야 돼. 어촌계, 그
 어촌계가 저기 있어예. 어디고 수협에, 부산수협에 그
 서 허가를 내는 기라. 장인도에서 허가를 내는 게 아이
 고. 어민들. 거기서 허가를 내가 배를 모아가지고 그
 허가가 없으면 조개를 몬잡아. 그 때가 60년 대 일끼
 라.



“고데구리는 밑에 싹 붙어갖고 씨가 안 남네
그러구로 하다가 자연스레 오래하면 재첩이 작아지는기라.”

조정순 : 그래가 배를 타면 그그 그리기가 있어. 그리 잡는 게 있어. 허허. 그리. 배 위에서 그리로 가지고 그대로 거 기다 썬 가지고 배 위에서 인자 이래 잡아. 그래가 얼마 안 있다가 고데구리이라고 또 해서 고데구리 그거를 하면 재첩이 없어지는기라. 자꾸 잡아먹으면. 아 그러니까 그리 이거는 좀 덜 잡고 고데구리는 밑에 싹 붙어갖고 씨가 안 남네. 그래가 고데구리 그걸로 해갖고 그래 조개를 잡았거든. 그러구로 하다가 자연스레 오래하면 재첩이 작아지는기라. 없으니까. 우리가 고기 고데구리 해가 잡아먹었듯이, 그래가 하구둑에서 재첩이 없어졌지. 기계가 억수로 커요 그거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안 잡았는데. 그 재첩이 많이 안생기고 배가 한 대 두 대 자꾸 생긴다 아닌교. 그래가 어촌계 인자 어촌계 가서로 저 수협에 가서 허가증을 내는기라, 그래 허가증을 내가 재첩을 잡는기라. 그래 재첩을 잡으면 돈이 되거든. 수출도 보내고 굶은 거. 채가 있어 굶은 것도 쳐가지고 수출 보내고 작은 거는 국 장사를 주면 여기 감전동에 국 장사 안 한 사람이 없심다.

“내가 감전동서 리어카를 끌고 배달해가 그 놈을
삶아가지고 쥘 국 장사 갔지.”

조정순 : 예전에 재첩 수출도 했는데 수출은 인자 자리가, 그 수출회사서, 수출회사도 그만두고 없어. 회사이름은 자세히 기억 못하는데 우리 할배만 있으면 기억 잘할기데. 할배가 수출하고 돈 찾으러 가고 이래 봐노이 아는

데. 그러가 그 수출하면 30키로 한망이 30키로 자리에 한 자리에 30키로 30키로 씩 담아가지고 요게 어민들 요기 중상이 여기 서너 명이 있었어. 중간상인이 있었어. 그러가 그 사람들 받아가 수출하고 그랬어. 그리고 고 작은 거는 인자 요 인자 아줌마들 받아가 재첩국. 우리 배달도 했그든. 내가 감전동서 리어카를 끌고 배달해가 그 놈을 삶아가지고 저 국 장사 갔지. 생국도 가져가 끼리 물라고 해가 가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재첩이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 중국도 가고.”**

조정순 : 그런 재첩을 수출회사에 가가면 저기 재첩이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 중국도 가고. 근데 지금 인자 우리나라 조개가 없으니까. 또 인자 재첩을 삶아가 우리도 그거 삶아 갔그든. 삶아가 국통에 얼라 갖고 회사 신고 가면 냉동시키, 얼라가꼬 재첩도 얼르고 파네. 처음에 생재첩을 했는데 여름 되면 날씨가 덥으니까 마이 그래갔어. 남은 거를 얼라가지고 수출했어.

**“근데 조금시가 스무날조금, 칠여덟조금 한 달에
조금 두 번 들거든 볼때를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그기 있어 베짖지 안 하는 기라.”**

조정순 : 재첩을 잡을 때는 배타고 밤에 나갔지. 밤에 재첩을 잡았어요. 새벽에 잡아가 잡아와야 아침에 들어와야 상인들을 주지. 새벽에 물 때 따라 가는기라. 그 시간이 조금시 때 되면 아침에 한 4시. 한시 때 되면 밤에

1시나 2시 이래나가 그러면 인자 아침에 들어와 배가.
조금시 때는 나가면 늦게나가면 한 10시나 이래되면
들어오고. 근데 조금시가 스무날조금, 처여덟조금 한
달에 조금 두 번 들거든 오늘이 음력으로 4월 7일이
니까 내일 조금이네. 초여덟조금. 물때를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거기 잊어빠질 안 하는기라.

**“재첩을 많이 낚 때 많이 잡았다가 강물에 막아놓고 저장을
해놔다가 겨울에 음력 12월 달에 그거를 건져서 일본을
보내고 마 그랬지.”**

조정순 : 재첩을 많이 낚 때 많이 잡았다가 강물에 이렇게 뭐
막아놓고 저장을 해놔다가 겨울에, 어민들이 저거가 담
가놔오니 어민 저거가 다 건지와가 거 수출하고 이랬
으. 말하자면 반양식이지. 근데 여름에는 많이 나니까
못 팔거든 다. 생물이 되니. 그리 인자 팔고 나머지는
몇 자리 몇 자리 계산해가 물에 갖다 넣는 기라. 나중
에 그니까 어민 전체로 한 사람 중상 밑에 배가 50대
면 50대, 10대면 10대. 고런 식으로 해가 담그는 기
라. 그래 담가놓고 겨울에 12월 달에 음력 12월 달에
그거를 인자 건지는 기라. 건져서 수출해가 일본을 보
내고 마 그랬지. 중상 거 해봐야 돈 얼마 안되예. 한
자루 해봐야 30키로. 우리 어민들 만약에 한 자루에
만원을 주면 나는 3천원 밖에 없어. 허허 그래 많이
안해예. 3천원 그기가 내 운반 택인기라. 감전동까지
리어카 싣고 가고 엄궁에 싣고 가고 차 싣고 차 싣으
면 많으면 내가 다 못 싣는 기라. 사람을 대가 실어야
되는기라. 그럼 그도 조금 주야 되고 그래 돈이 남는 게 없어.

“소금도 살짝 넣어야지. 여어 갖고 쪄어야지.
간이 맞아야 되거든. 근데 이때 제일 국이 좋아요.
국이 뽕양이 우유, 우유 같아.”

조정순 : 재첩을 어찌 삶는가하면 솥에 삶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조개를 다라이 담가가 해감을 빼거든. 안에 그거 저저
모래 같은 거 빼가 씻어가 솥에다가 부어가 불로 때는
기리. 그거는 물 부으면 안 되고, 그냥 조개만 솥에다
부어가 삶아. 그래 삶아가 그기 인자 슬 올라오면 조개
를 저어. 조개를 자꾸 저어가지고 한 서너 번 이래가
나중에 물로 한 몇 바가지 붓는기리. 종국만 하면 안
되거든. 그냥 그 조개물 나오는 건 그것만해가면 안되
거든. 국이 얼마 없으니까네. 그래 물로 좀 타거든 부
어가 팍팍 끓이가 알갱이가 있어. 치는 알갱이 빠글빠
글 그래 그거치고 인자 다라이에 담아. 그래가 그것도
여름 되면 재첩도 끓이야 되는기리 끓이가 물을 팔팔
끓이가 그걸 끓이가지고 건지가지고 아침에 인자 국
그거 따리가지고 부어가 그래 저 뽕뽕로마치 이고 가
서 그래 팔았어. 소금도 살짝 넣어야지. 여어 갖고 저
어야지. 간이 맞아야 되거든. 근데 이때 제일 국이 좋
아요. 국이 뽕양이 우유, 우유 같아.

“쇠통 그거요 엄청 부거웠지 그레가 올라가고
범일동 그리로 산만디이 거기서 범일동 시장으로,
청북고개로 그리 다녔는데.”

조정순 : 재첩을 팔러가는 목적지 그거는 팔러가는 사람 마음이
지. 연산동도가고 동래도 가고 안 간 데가 없지. 나는
좌천동을 땡겨놓으니까네 범일동도 가고 오만데 안
땡긴 데가 없어. 보림극장도 있었고 시장이 있지 시장.

시장이 있고 그때는 막 계단으로 올라가 오르막길. 계단은 없고 이래 올라가 재첩국사라고 하지. 쇠통 그거요 엄청 무거웠지. 그때만 해도 젊어 놓으니 힘이 난다 이가. 그러가 올라가고 범일동 그리로 산만다이 거기로 범일동 시장으로, 성북고개로 그리 다녔는데, 그기가 지금 막 전부 다 바꿨더라.



“한 스펅그릇에 한 그릇에 5백 원 밖에 안했어.
5백 원어치 보라는 쉼 쉼어치를 많이 사그든.
쉼쉼을 사면 쉼 그릇이 넘어가는기라.”

조정순 : 그때 재첩 가격이 고же 그때가 그거 한 그릇에 5백 원 밖에 안했어요. 옛날에, 봉다리 퍼가지고 저거가 냄비를 가져온다. 거 인자 골목으로 재첩국사라고 이면 아

즘마가 나오는기라. 하면 냄비나 이런. 그럼 고 한 스
 덩그릇에 한 그릇에 5백 원 밖에 안했어. 5백 원어치
 보다는 천 원어치를 많이 사그든. 천 원을 사면 세 그
 릿이 넘어가는기라. 그러면 냄비가 오면 세 그릇 부으
 면 많잖아.

“진국, 조개만 넣어가 꼭 삶아가 물 나오는 거 있거든
 그 물만은 국으로 본묵어. 너무 찌해가 씹싸무리 하거든.
 대신 약 삶아 묵지. 거기 간에 좋아.”

설정숙 : 재첩을 배로 가지고 재첩을 잡으러 가거든 거서 인자
 조금 나가몬 뱃머리가 있어 내도 어릴 때 가봤거든 엄
 마 있는데. 그때는 조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우
 리 할머니도 재첩을 삶았다. 식당 할 때 우리 집에서도
 삶고 그랬는데 재첩 진국도 내가 많이 마셨다. 진국,
 조개만 넣어가 꼭 삶아가 물 나오는 거 있거든. 그거를
 많이 마셨다고 옛날에 식당하고 4층 건물 올릴 때 아
 침을 올케 못 먹는다아니가. 그래서 삶으면서 딱 따라
 놓으면 그래 그물 마셨다아니가 그게 그리 좋다 안하
 나 그래 많이 먹었다. 엄마가 그거 하는 바람에 조개를
 맨 찹에 삶을 때 조개를 씻어가지고 솔에다가 넣는다
 아니가. 물 안 붓고 조개만 삶거든 삶아가 이리 드글드
 글 김 날 때 이리 하면 입이 막 벌어진다고 그러면 인
 자 물 붓는다 아니가. 물 붓기 전에 그 물 나오는 거기
 몸에 좋다고 내가 인제 밥을 안 묵고 한끼네 먹이는
 거야. 원래 거기다 물로 타가지고 싹 끓인다 아니가.
 그 물만은 국으로 본묵어 너무 찌해가 씹싸무리 하거
 든. 대신 약 삶아 묵지. 거기 간에 좋아.

하굿둑이 생기기 전 낙동강에서 재취하던 재첩은 그야말로 강

이 주는 선물이었다. 머리에 큰 양철 물동이를 이고 큰 목소리로 ‘재첩국 사이소’를 외치던 재첩국 아지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감전동의 어머니들은 꼭두새벽부터 끓여낸 재첩국을 커다란 양철 물동이에 넘치도록 담고 구덕고개를 넘어 국제시장으로, 조방 앞으로 그 먼 길을 걸어 다녔다. 지금도 감전동 주민들은 어머니가 보약이라며 막 끓여낸 재첩국을 한 그릇 가득 담아 퍼주시던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하굿둑

낙동강 하굿둑은 1983년 9월에 착공하여 1987년 11월에 준공된 콘크리트 중력댐이다. 안정적 용수 확보하고 인근 농토의 염분 피해를 막아주는 등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환경 파괴를 가져오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의 역기능도 나타났다. 이처럼 공사 시작 전부터 야기된 환경 공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측은 낙동강 하굿둑으로 인해 안정적 용수 공급과 매립지 활용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면서 환경 파괴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 단체들은 낙동강 하구의 철새 도래지가 훼손되었고 기수역이 사라지며 재첩, 벵굴 및 많은 어류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저 댐을 뿔잖아
땀하고 나서는 많이 안 내려와요 인자는.”

조정순 :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열여섯물이 한시 때라.
그때는 물이 최고 많이 드는 그기라. 그러면 그 사람들
이 뭐 그때는 높으거든. 그까지는 물이 안 올라가. 시
우만 안 내리면 안 올라가. 시우가 내리야 올라가는기
라. 비가 오가 많이. 대구 저 밀양에서 비오면 이래 다
내려왔거든. 삼랑진 저 다 내려왔거든. 근데 저 댐을
뿔잖아 땀하고 나서는 많이 안 내려와요 인자는.

“이 딱 땀하고 나서는 바닷물이 안 올라오니까.
안 올라오이 재첩이 없어졌베스.
바닷물도 막고 위에서는 폐수 보내고 어쩔 수 없로.”

조정순 : 여기서 재첩이 많이 난거는 명지. 명지 그까진 많이
났어. 요리로 요요 요기에 삼락동까지, 딱 거기가 인
제 짠 바닷물하고 강물이 만나는거라. 재첩이 좋아하
는. 딱 거기 되면 그 인자 바닷물하고 싱거운 물 하고
자리 되면 거기가 이제 인자 새끼 칠 때 되면 코가
생기는기라. 거기서 재첩이 있는거요. 우리 거기와 테
레비보면 우물우물하이 해가지고 새끼 나오듯이. 그래
시그름게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딱 땀하고 나서는
바닷물이 안 올라오니까. 안 올라오이 재첩이 없어졌
베스. 강을 다 베리 났어요. 바닷물도 막고 위에서는
폐수 보내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물이 썩어가 땅이
썩어가꼬 고기 붓어 같은 거 잡아도 냄새나 못 먹어
요. 냄새 그거 비린내 뭐 지른내가 나서. 근데 땀 하
기 전에는 이때 지금 송어가 올라올 철이거든. 바다에
서 송어가 올라올 철이거든 이때 송어 잡으러 밤으로

나가거든요. 글로 캔 그물을 가지고 가면 어떤 때는 많이 잡고 몬잡으면 몬잡고 셋바람이 불면 고기를 몬 잡는기라. 셋바람, 바람이 요요 동쪽에서 이거이거 불어오면 바닷물이 차가워 지그든, 바람이 차갑고 하면 고기가 없어지는 기라 재첩도 없어지고.²⁵⁾

**“어민들이 보상받기는 받았어. 여 가락타운이라고 있지예.
그거를 아파트 보상을 땅을 받았는데 그기가 한 달에
400만원씩인가 내놔야 되는기라 한 달에 400만원 벌이를
본하는데 뭐 있지예.”**

조정순 : 하굿둑 만들면 이제 바닷물 안 올라오면 못 잡는 거를 알았지만 반대를 못했지. 그때 반대할 때 전두환이 있을 때 했지, 전두환 대통령 됐을 때 했는데 그 반대를 몬하지 우에서 하니까 우리 어민들은 뭐 못했지. 그런데 어민들이 보상받기는 받았어. 여 가락타운이라고 있지예. 그거를 아파트 보상을 땅을 받았는데 그걸 집을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내놔야 되는기라. 근데 그기가 한 달에 400만원씩인가 내놔야 되는기라. 한 달에 400만원 벌이를 몬하는데 뭐 있지예. 아무것도 없는데. 어민들한테 임주권을 준 그기 손해만 억수로 많이 봤어요. 여여여 횡집이라고 엄궁횡집이 있거든 거기 어민들 거기 어민이 36명인데 돈 낼 사람이 10명도 안됩니다. 그러니까네 내는 사람 내고 안내는 사람. 우리 거기 3,000만원 닭아 였어요 거기에. 집 그러가 넘어가뻘어요. 그기 나왔는데 그거를 집을 몬 짓고 천

25) 낙동강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곳이었다. 예전 낙동강이야기를 하는 조정순 할머니는 펄떡이는 물고기들과 흑갈색으로 반짝거리는 재첩을 한가득 잡아 올린 어부의 아내로 돌아가 있었다.

리금인가 5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받아 묵고 다 팔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주권만주고 이제 들어갈라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우짜 들어가 달달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래 뭐 두 달 만에 한 번씩은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 어민들 그러가 좇지 여 다 혜택 하나도 없어요.

“ 또 옛날에는 재첩껍데기를 마을에 하도 버려서 길이 더러웠지. 근데 지금은 인자 껍데기 가가는 사람이 있어.”

조정순 : 재첩 껍데기는 옛날에는 여기 논이 많이 있어놓으니 그냥 갖다 부으면 됐거든. 껍데기는 이제 삭으면 이제 비료처럼 됐거든. 또 인자 여기에 길이 나니까는 도로 길에 파묻혀 빼고 뭐 이기가 저 뽀뿌라마치 산 뜯어가 여 다 매웠거든. 또 옛날에는 재첩껍데기를 마을에 하도 버려서 길이 더러웠지. 근데 지금은 인자 껍데기 가가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안 가가도돼. 전부 여 물구덩이가 되이 다 갖다 여도 돼. 물구덩이라카이께네. 여기가. 비가 오면 물에 채이면 마 그냥 물에 버렸다고 껍데기를. 지금 여 집 지을라꼬 땅 깊게 파면 조개껍데기 나올까야. 옛날에는 물에 버렸고 그 위에는 다시 흙해가지고 덮어서 탄 집을 올렸는데 또 이제 땅 파면 아마 나올거다. 그만큼 버렸어. 요기 땅 파면 아마 조개껍데기가 나올거예요.

“지금은 아예 재첩이 없어요
 근데 저 하굿둑만 안했으면 괜찮아 볼라
 부산시장이 지금 낙동강 살룬다 캐샀는데 알 수가 없지.”

조정순 : 어민들 조개를 잡으러 가니 조개가 없거든. 한 동이도
 잡아보고 두 동이도 잡아보고. 그 디다보고 어민들이
 살수가 없잖아요. 그리 배가 자꾸 없어져 빠리고 그래
 서 인자 증상도 묻히는기고 어민들이 잡아와야 증상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둔기리예. 지금은 아예 재첩이 없어
 요. 옛날 그기 안돌아올겁니다. 근데 저 하굿둑만 안했
 으면 괜찮아. 근데 저 댐이 여쪽에 삼랑진, 그 위에 올
 라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해서 잘 실수했다 카드라. 전
 두환이가 너무 밑에 해봐 가지고, 올라가서 해야 여 어
 민들 살수가 있는데. 물도 그래 안 되는데. 몰라 부산
 시장이 지금 낙동강 살룬다 캐샀는데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산업화 겪다 보니까네
 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걸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지 그만큼 참 좋은 자리였어 여기가.”

김성한 : 그때 하굿둑 때 반대는 많이 못했지 뭐. 그 당시 한창
 그 당시에 뭐 지금 맹크로 환경 그런 건 생각도 안했
 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름철에 학교 방학이나 하게
 되면 독에 노는 게 놀이터가 저거든 해수욕하고 먹감
 고 하는데 거기 가면 제일교포 여기 연고 있는 사람이
 여름 때만 되면은 한국에 나오는 사람 있었어. 독에 가
 서 보면 그 사람 매일 하는 소리가 하 한국에 여 오면
 공기 좋고 물 좋고 매일 그 소리 하더라고 우리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예 몰랐지. 항상 있는 일이고
 뭐 저 사람이 공기 좋고 물 좋고 무슨 소린지 꿈같은
 이야기였지 근데 우리가 산업화 겪다 보니까네 참 환
 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걸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지 그만큼 참 좋은 자리였어, 여기가.

“어자원이 풍부해 가지고 먹 감으로 나가게 되면
 저녁에 울적에 한보짜리 잡아와가지고
 필장 키리 묵고 그랬거든.”

김성한 : 그란 뒤에 아까 하굿둑 이야기 했는데 하굿둑은 요 낙
 동강 하류 쪽으로 주위에 삼랑진 저기 김해 농사를 많
 이 지으니까 찌뽕물이 흘러오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면 농
 사를 못 짓잖아요. 그거 차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
 적으로 그게 농사에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환경
 에는 파괴돼버렸어. 자연을 거스르면 안 돼. 그 당시에는
 하굿둑 하기 전에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합치는
 기수지역이라 하나 무슨 지역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민물이 왔다 드갔다 하니까네 어종도 풍부하고, 새우도
마 이런 게 있었어. 벚굴도 있고 뭐 잉어니 할튼 어자
원이 풍부해 가지고 조개도 재첩도 먹 감으로 나가게
되면 조금 놀다가 저녁에 올죽에 쫄면 쓱쓱 이리하면 뭐
한보따리 잡아와가지고 된장 끼리 묵고 그랬거든.

*“여기 조개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원채 많으니까네
그 당시에 미니버스 그제 아침에 와가지고
조개 장사하는 사람 싹 싹 싹고 내려주고 그러하더라고.”*

김성한 : 진짜 그 자연산 그 당시에는 버스가 주례까지 밖에 안
들어 왔어. 최고 좋은 버스가 동신버스였나? 그제 동신
버스인데 조방 앞에서 주례까지 최고로 먼 거리였는데
여기 조개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원채 많으니까네 버스
보다 조금 작은 거 그 당시에 미니버스. 그제 아침에
와가지고 조개 장사하는 사람 싹 싹 싹고 내려주고 그러
하더라고 그제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갈 적에는
차를 탈려면은 저까지 가야되거든. 새벽에 이 버스 한
번 들어오면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타고 나가고 했거
든. 그 만큼 장사꾼도 많았고 특산물도 풍부했지.

1987년 낙동강 하굿둑이 완공 되면서 감전동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굿둑은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많
은 것을 빼앗기도 했다. 하굿둑이 건설되면서 부산사람들은 더 이
상 낙동강에서 나는 재첩국을 맛볼 수 없게 되었고 강을 터전으
로 삼아 살아가던 많은 어부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다. 지금도 감
전동 주민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지듯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조화롭게 어우러지던 그때의 낙동강을 추억하고 그리워한다.

강변

지금은 넓게 펼쳐진 강변이 개발되어 삼락생태공원이나 감전야생화 공원으로 탈바꿈 했지만 과거 감전동 사람들에게 강변은 탁트여진 전망과 시원한 바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주민들은 맑은 강물에서 먹을 감거나 함께 음식을 해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시에 인적이 드문 호젓한 강둑길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좋았다.



“서발이라카는기 그제 지금 우리들이
이 동네에서 소를 먹일 때
거 갖다 내다 메고 거서 싹 갈대 뜯어먹고 소가 이래.”

배영희 : 아 여 강둑 너머에 소밭이라고 있었어요. 그 갈대 그
기 요래 섬 모양으로 요리 있는데, 딱 가세 붙어가 요
런 데 거 주로 뭐 거를 말하는갑다, 서발이라카는기.
그제 지금 우리들이 이 동네에서 소를 먹일 때 거 갖
다 내다 메고 거서 싹 갈대 뜯어먹고 소가 이래. 그서
또 매고 일 없을 때는 거 가서 맥이고, 일 있을 때는
블러다가 또 일시키고 그랬지.



“이제 강가에 가면 나무에 게가 딱 붙어 있습니다. 밤에
불이 들어와서 갈게가 갈대를 타고 올라오면
우리는 횃불로 들고 양찰 지고 떠 댔습니다.”

배영희 : 갈게 잡고 했는데 갈게가 뭐냐면, 이 이제 강가에 가
면 나무에 게가 딱 붙어 있습니다. 민물 게지. 그 구멍

을 파고 들어가 있다가 밤 되면 물이 들어오면은 갈대를 타고 올라오면 우리 햇불로 들고 양찰 지고 따 담습니다. 갈게. 그거를 집에 갖고 오면 우리 어찌면 한동이 쓱 잡아오고 반 동이도 잡아오고 이래 그리 가와 소금에다 절이가 젓갈을 만드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자 내다 팔고 그랬거든. 크기는 크기가 뭐 뭐 한 요정도 됩니다. 요정도, 두 마디 정도 되요. 그거보다 약간 작은 것도 있고 큰 거도 있고 뭐 조금 더 큰 거도 있고 그 정도 되는 기 있고 그랬는데. 강에서 많이 했어요. 주로 뭐 많이 합니다. 재첩 잡재 뭐 고기 같은 거도 낚시질 해가도 잡고 뭐 옛날에는 뭐 뭐 갈게도 잡고. 이 뭐 갈꽃 이 노화 노화라 하거든요. 가을 노자꽃 화 자 인자 노화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갈꽃이 처음에 올라올 때 그게 바로 이 노화라. 노화라고 부르고 내나 빗자루 만드는데 노화 노화로 만드어요. 또 거기서는 갈게 잡고 또 그 갈대를 베다가 발을 만듭니다. 문 앞에 달면은 그늘. 그늘로 만드는데 그 발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그냥 물놀이 하고 게잡고 하는 정도로
그래도 강이 있어서 놀이는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친구들하고 맨날 폭에 그냥 놀고 게 잡고 하는 그런 공간.”

정정자 : 삼락공원 근처? 그 삼락 이 그 하천 지금 벚꽃이래 많이 나는데 그는 쭉도 많이 뜰으러 가고 어릴 때 계도, 끼있지요? 그니까 사투리로 끼. 끼 같은 것도 많이 잡고 그랬어요. 민물게가 있었어요. 거기는 초등학교 때 많이 갔었어요. 하굿둑이 90년 때 중반인가 생겼으니까 그때는 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죠. 아이들은 섬에는 잘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는 그냥 물놀이 하고 게 잡고 하는 정도로 그래도 강이 있어서 놀이는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친구들과하고 맨날 독에 그냥 놀고
게 잡고 하는 그런 공간.



“일영도 뒤강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말이야
그서 가면 조개가 자글자글자글해.
많이 가고 우리 손으로도 잡고 그랬거든.”

조정순 : 일영도 뒤강이라고 있는데. 거는 가면. 일영도 뒤강.
근데 지금은 뭐 그거 뭐 전부 그거를 막아 놔가지고.
어디어디를 모르겠드라. 나도, 일영도 뒤강했다. 옛날
에. 옛날에 말이야 그서 가면 조개가 자글자글자글해.
많이 가고 우리 손으로도 잡고 그랬거든.

“그 독에 그제 가면 아 놀기가 엄청 좋지.
자연이 얼마나 좋았다고.
여기가 물장구도 치고 막 그래 놀았어.”

김성한 : 우리는 놀이터가 옛날에 하천 독에 요게 지금 옆에 독 있는 거 낙동강 제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도로가 이래 도와저가지고 굉장히 낮지만은 옛날에는 어릴 때는 굉장히 높았어. 한 단 두 단 석 단 해서 굉장히 높았어. 그 독에 그제 가면 아 놀기가 엄청 좋지. 자연이 얼마나 좋았다고. 여기가 물장구도 치고 막 그래 놀았어. 또 그라고 농사짓는다고 소를 키우잖아 소를 소 키우면 그 마을사람들이 일일이 소를 못 들고 간다고 저쪽까지 한 마리만 딱 앞장세워 가지고 가면 집집마다 나온 소가 그 소를 다 따라 가가지고 하천 쪽에 풀이 얼마나 좋았노. 옛날에 다른 지역에서는 산골이라서 소 먹이고 하지만 여는 완전히 그 풀밭 녹지 얼마나 좋았노. 그럼 소가 마 주따라가 가지고 저녁때 되면 한 마리 몰고 들어가면 줄줄 따리워서 그 집 찾아가고 그랬어. 엄청나게 그거가 풍족하진 않아도 살기 좋은 동네였어.

강가에서 지냈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각자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소를 몰고 풀 먹이러 가던 그때의 냄새, 퐁당퐁당 소리를 내며 먹을 감던 그 시원함, 바구니를 들고 강가로 가 조개를 차곡차곡 담으며 마주보고 웃었던 친구의 얼굴, 그때의 시원한 강바람이 모두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사(事) :

일하다

감전동은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 옆에 위치한 마을이다. 감전동 사람들은 낙동강을 터전으로 삼아 농사를 짓고 재첩국을 팔며 살아왔다. 그러나 80년대 부산 최대 규모의 사상공단이 조성되고 새벽시장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공장은 전국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 대규모 주거단지가 만들어 졌다.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가게가 생기고 식당이 들어섰다. 새벽시장 또한 많은 사람들을 감전동으로 모이게 만들었다. 새벽이면 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었고 낮에는 공장 굴뚝이 뿜어내는 시커먼 연기가 노동자들의 삶을 재촉했다. 지금의 감전동은 공장의 이전과 재래시장의 쇠퇴로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 앞으로 감전동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길 기대해본다.



새벽시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은 1982년 (주)새벽청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1993년 엄궁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면서 상당수의 상인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며 존폐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남아있던 상인들의 노력으로 1995년 (주)부산새벽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인근에 대형마트가 개점하고 2001년에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까지 개장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입점상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장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차장 건설과 아케이드 공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어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09년에는 전국 최우수 전통시장 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현재에도 상인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상인대학을 개설 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하며 전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새벽시장이 들어선다고 감전동이 떠들썩 했어요.”

정정자 : 옛날 감전동에 아신통상이라는 큰 봉제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에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지요. 그러가지고 거기가 폐허가 됐는데 그때 아신통상 자리에 충무동에 있는 새벽시장이 이사를 온다고 해가지고 온 집이 떠들썩하니 집값이 뛰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여기 터가 너무 좁다고 해서 지금 새벽시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우리도 집을 팔고 그랬는데 시장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사정을 해서 도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지.²⁶⁾

**“나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왔지
생짜배기는 들어오지도 못해.”**

박은옥 : 옛날에는 좋은 자리나오면 자기네들끼리 해버리고 생짜배기는 들어오기도 힘들었어. 나는 인연이 되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된 거야. 식당을 하다가 이제는 그런 것 말고 새벽시장에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지. 번창한 앞쪽 말고 안쪽으로 반 칸을 말해주더라고. 반 칸 가지고는 할 게 없어서 반찬장사를 시작했다.

26) 1982년 11월 (주)부산새벽청과시장 법인이 설립되었고 시장이 개설되었다. 새벽시장에 위치 선정에 따라 집값이 폭등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시장의 위치에 대해 예의주시하였다. 새벽시장 개설은 감전동 일대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불게 했다. 새벽시장은 감전동 주민들에게 추억이자 삶의 한 부분이었다. 그것이 꼭 새벽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우리 집에 거 가카워 거 손자들
용돈이나 벌라고 들어왔지.”

설정숙 :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깝거든. 가까운데서 먹고 살라니, 손자 용돈도 한 푼씩 줘야하니깐. 그래서 여기서 분식 집 같은 거 하면서 돈 벌러 들어왔지. 이 시장이 생긴 거 34~5년 쯤 됐나? 82년도쯤 생겼을 거야. 여기가 원래는 공장이었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뚜껑만 댄거지. 칸막이 해놓은 게 한 칸 한 칸 개인거야. 옛날에는 몰랐지. 그때 분양 받았으면 나도 돈 벌었을 거야. 지금은 알궂어 보여도 이게 몇 억이라던데.



“반 칸, 한 칸 켜켜로 있다가 장사가 잘 돼서 샀어.”

박은옥 : 반 칸에서 몇 년 하니까 잘 팔려. 1년 쯤 하고 나니까 옆에 반 칸 있던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1년 만에 그거

사고, 나중에 주인이 가게를 팔려고 해서 또 샀지. 처음에 세를 얻어 왔는데 다른 데는 100만 원에 20만 원 이렇게 했어. 80년대 말쯤이니깐 비싼 편이지. 나는 장사해서 달세를 주면 남는 게 없겠다 싶어 전세를 1,500만 원을 걸었어. 달세 없이 1년하고 옆에 상추, 채소 박스로 팔던 가게랑 3,000만 원을 걸었어. 7년 있으니까 주인이 판다고 했는데 그땐 돈이 너무 컸지만 1억 4천주고 샀어.²⁷⁾

“새벽 3시에 오면 사람들이 물건을 떼러 온다.”

박은옥 : 여기는 새벽에 3시나 되면 장사를 합니다. 주변 식당들만 봐갖고는 장사를 못해. 일부 구포나 패법동 그리고 예를 들어 밀양이나 김해, 양산 이런데서도 다 물건을 떼러 온다아니가. 우리 반찬가게 손님들도 거의 김해시장, 밀양, 양산 이런데서 부식가게 하는 사람들, 납품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떼러 온다.

“나는 6시에 오는데 새벽되면 상인들로 바글바글해.”

설정숙 : 여기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침

27) 청과물 판매 시장으로 시작한 새벽시장은 개설 이래 외관의 모습이 크게 변하진 않았다. 시장 건물을 덮는 지붕을 없히는 것을 시작으로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 상인들이 느끼는 시장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삶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 시장 내 점포의 매매는 처음 입점한 사람들을 위주로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시장 내에 각 점포는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잡은 사연도 제각각이다. 이렇듯 새벽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모였고, 모이고 있다.

으로 앉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낮에는 벌써 마쳤다. 상인들은 새벽 2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더 일찍은 1시에 오는 사람도 있어. 보통은 3, 4시 정도 되면 다 오지. 나는 분식집이기 때문에 6시 되면 온다. 낮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갔다가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와서 가게에 재 놓지. 그러면 새벽 2, 3시에 사람들이 물건을 떼러 오는 거야. 새벽에 바짝 하는 거지. 여기는 대부분 대량으로 도매로 팔아. 소매도 팔지만 1, 2kg씩 팔지. 여기 와서 ‘조금만 주세요’ 하면 땀이다. 그래서 마트를 많이 가잖아. 마트 생기고 나서는 장사가 좀 안되지.²⁸⁾

“돌을 갖다봐도 팔릴 정도로 사람이 많았단니까.”

박은옥 : 반찬은 아침에 다 팔았어. 오후 정도에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팔지. 반찬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공장에 함바집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전에는 김해, 부산 교도 소에도 반찬을 납품했었어. 우리는 소매는 없어. 소매는 해봤자 사상공단에 사람들이 오는데 와도 많이 안 와. 전부 박스째기로 사가지. 감전동에 새벽시장이 있지만 마을 사람들이 사러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식당이나 부식가게 같은데서 우리 집에 사러오지. 반찬은 장이찌 같은 것도 있고 깻잎 이런 거. 오후 되면 장거리 차들이 다 들어와 여기 줄을 서 있었어. 엄금 생기기 전에는 대구, 울산 같은 데서 전부 여기 새벽시장으

28) 새벽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시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새벽이다. 새벽이 되면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에 반해 오후에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간간히 오고갈 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어서 낮에 새벽시장을 방문한다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로 왔어. 돌을 갖다봐도 팔릴 정도로 사람이 많았단니까.

설정숙 : 새벽시장에서 분식장사하기 전에 식당하고 노래방 할 때는 다 여기서 샀지. 박스때기로 사가지고 갔어.

박은옥 : 나도 지금은 새벽시장에서 장사를 하지만 사상공단에 서 식당, 함바집 할 때는 물건을 전부 새벽시장에 와서 사갔어. 그땐 공단에 사람이 많아서 밥을 많이 했으니 가 재료도 많이 필요했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2, 3년은 걸려.
엄궁이든 새벽시장이든 다 그래”**

박은옥 : 내가 엄궁시장 생기고 만찬가게에서 고춧가루 파는 가게로 바꿨어. 엄궁 만들면서 다른 재래시장, 경매시장 같은 것들을 없애려고 했는데 여기 새벽시장은 손을 못 대. 지금 엄궁이 대저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시 소유기 때문에 언제 옮기니 가라고하면 가야해. 근데 여기는 주주들이 모여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개인 재신을 어떻게 할 거야. 각자 사업자를 내고 장사하는데 여기는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없어질 수가 없지. 엄궁 생겼을 때 일부 좀 크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가고 작게 하는 사람들은 안 갔지. 원래 큰 시장이 생기면 활성화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 그래서 처음에 간 사람들은 한 2, 3년은 손해를 보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새벽시장으로 돌아오고 그랬어.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새벽시장도 만찬가지였다. 그때 엄궁 생길 때 우리도 데모도하고 했다. 해야지 상인들끼리 안 하면 되나.

“이 시장 생기고, 저 시장 생기고... 예전보다 조용하지.”

설정숙 : 옛날에 처음에 시장을 할 때는 경매도 보고 이리 했지만 지금은 경매가 많이 없어졌잖아. 예전보다 조용하지. 예전에는 북적북적 했는데,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근데 지금은 이 시장 생기고, 저 시장 생기고, 엄궁도 있고 반여동에도 생겼잖아.



“이마트 생기고 타격이 커. 재래시장이 못 이기는 거야.”

박은옥 : 서부산 이마트가 90년대에 생겼잖아. 타격이 많았어. 큰 마트는 물건을 시장에서 안 가져가고 산지에서 가져오니까. 예를 들어 물건을 500원에 사도 100원에 팔아 버리는 거야. 400원이 적자지만 다른 것 팔아서

채우면 되니까. 거기는 전체의 이익을 보면 되는 거잖아. 요즘은 노점 할매들도 마트에 싼 물건 있을 때는 거기서 조금씩 가져 오는 게 이득이니까 마트로 가는 거지. 그럼 재래시장은 못 이기는 거야. 우리도 깜짝 세일 같은 거해서 만 원짜리 3천 원부터 경매를 해서 4천원을 주고 그랬어. 사람들이 재래시장으로 오게 만 들려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그런 이벤트를 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해²⁹⁾

“우리는 ‘주식회사 부산새벽시장’이야.”

박은옥 : 상인회는 처음부터 있었어. 15년 전인가 이호순 대표 이사가 맡았거든. 그때부터 나도 9년 동안 이사를 맡아서 활동하다가 잠시 빠졌다가 2년 전에 다시 맡았어. 이사는 하고 싶어서하는 게 아니라 점포가 내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할 수 있어. 운영위원은 구청에 신고가 되지만 이사는 시청에 신고가 되요. 우리는 상인 조합니다. ‘주식회사 부산새벽시장’이잖아. 지금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랑 세를 주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반반정도가 된다. 점포가 있고 임대사업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사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해. 주주는 백 주씩 점포가 168개가 있고 가게는 노점까지 해서 한 500개 넘을 거야.

29) 새벽시장은 초창기 부산의 대규모 청과물 시장으로 많은 상인들이 오고가는 곳이었으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등과 같은 시장이 생기고 대형마트로 유통의 흐름이 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모든 재래시장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새벽시장도 가지고 있겠지만 현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재래시장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어 이곳의 상인들이 잘 먹고 잘살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누구나 공평하도록 시장을 만들 해.”

박은옥 : 여기 26평이 한 가구에 주인, 주주거든요. 1층 가게, 2층 다락. 1층은 6평 밖에 안 돼요. 가게랑 길, 주차장까지 다해서 26평이야. 새벽시장 공판장 몇 개가 우리 주식회사 땅이거든. 거기 세금 나온 것 가지고 사이드에 좌판을 났어요. 거기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사무실 같은 것도 그렇고. 원래는 몇 천 원씩 하루 청소비를 받고 청소를 해줬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봉지 20리터짜리를 한 장에 2,300원씩 팔지. 그리고 청소비는 2천원만 받는 거야. 봉지는 알아서 사고 청소비는 누구라도 2천원만 내면 똑같지. 봉지는 필요한 만큼 누구라도 자기 돈으로 사니까 공평하지.

“메컬엔 무법천지였어. 빛도 있었을 때 우리가 다 갚았어.”

박은옥 : 대표이사는 투표로 선출하지. 옛날에는 장사가 바쁘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때는 대표이사고 운영회사고 할 것 없이 모를 때가 되놓으니까 청소비 같은 것도 걸어 가면 다 지꺼라. 무법천지가 되서 빛을 왕창 질러봤는거야. 처음에도 대표이사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감시하고 관리하는 게 잘 안 돼 있었어. 지금은 장부만 열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회의하면 회의록도 다 남는다. 경조사비까지 딱 조항을 넣어서 체계가 갖춰졌지. 20년쯤 전에 빛을 많이 저서 까딱하면 공판장이 넘어 갈 뻔 했는데 우리가 빛을 다 갚았어. 정부 지원 몇 십 억을 받아서 주차장을 해서 이 주차 시스템으로 이윤이 조

금 나는 거야. 우리가 차를 한 대 대도 다 6만원씩 내는 거야. 상인도 직원도. 그래서 차츰 값이 나갔지.³⁰⁾

“점포가진 사람만 이득을 본다고 분쟁이 많았다.”

박은옥 : 가게를 가진 상인하고 세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노점상들하고 마찰이나 분쟁이 많았어. 우리는 이사니까. 한마디로 점포가 있는 주주 아님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장을 발전시키면 점포가 있는 사람만 재산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었지. 근데 일단 여러 명이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주차장도 해놓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런 거 해놓으면 손님이 늘잖아. 전에는 화장실에 휴지도 개인이 가지고 다니고 돈 받는 할배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진시장이고 어디 시장을 가봐라. 화장지 없는데가 어딴노’ 해서 부녀회장 할 때 한 10년 전에 화장지를 사다 놓았지. 지금은 부녀가 해체 되서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다.³¹⁾

30) 이곳은 ‘쑈부산새벽시장’이라는 조합에 의해 관리된다. 80, 90년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던 시절에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은 조합의 형성으로 이곳 새벽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이라면 모두가 공평한 시스템 속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운영조직이야말로 재래시장이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될 것이다.

31) 시장은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과 원래 점포 주인에게 세를 내고 사용하는 상인, 그리고 노점을 하는 상인들로 나누어진다. 삶이 그렇듯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장 전체의 발전이 개개인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생곡에서 분리수거 안 될 쓰레기 못 받는다고
벌금도 내고 그랬다.”

박은옥 : 여기가 청과물 시장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 이전에는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했었는데 매립을 못하게 해서 상인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분리수거가 아니고 청소차가 골목을 돌면 무조건 쓰레기를 부었어. 일반쓰레기랑 음식물이랑 마구잡이로 섞어서 생곡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받는다고, 차도 운영 못하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라도 하자고해서 까만 봉지를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해다 버리면 생곡에서 또 그걸 찌보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나오면 안 받고 또 벌금 나오고 그랬어. 그리고 봉지에 테이프를 발라서 가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것 안 받는다는 거야. 1톤에 얼마라는 금액이 있는데 가득 넣어서 테이프 바르고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묶어라. 그래야 받아준다’ 하고 방송도 하고 공문도 나뉘주고 이래서 요새는 또 잘 묶어 버린다.³²⁾

“봉사 목적으로 부녀회가 모였는데....”

박은옥 :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몇이 모여서 ‘부녀회를 모아보자’ 해서 2년씩 6번을 하고 7번째 하다가 부녀회가 없어졌어. 처음에는 잘됐어. 김장을 몇 백 포기씩 해서 불우이웃 나눠주고 추석되면 제사용품들 독거노인

32) 음식을 다루는 시장은 특히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새벽시장 또한 쓰레기처리 문제에 분쟁을 겪었으나 상인 모두가 합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기에 깨끗한 재래시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져다주고 라면이나 이불 같은 것도 기부하고 그랬어. 처음에는 봉사 목적으로 무슨 행사 같은 것 있으면 시장을 위해 일할 거라고 부녀회가 모였지. 이번에 5월에 문화관광시장 행사가 있었는데 1,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 그래도 우리가 비빔밥하고 이것저것 시장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자고 했는데 부녀회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맡았잖아. 이틀 동안 1,000명한테 비빔밥을 공짜로 나눠줬어. 이런 큰 행사에 협조도 안하고 해서 부녀회를 해체시켰어. 일년에 회비를 12만원씩 내는데 부녀회장은 하고나면 다음부터는 고문으로 올라가서 회비를 안내도 되거든. 부녀회장도 투표해서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이 하지.

박은옥 : 이번에 정부지원으로 문화관광시장 18억을 가져왔어. 상인들 중에서는 그 돈으로 뭐 할라고 가지고 오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야 시장이 자꾸 발전을 하지.

**“상인대학에 가면 배울 것도 참 많고
열성도 생기고 단합도 잘될다.”**

박은옥 : 나는 상인대학을 3번이나 졸업했다. 시장에 40명 이상이 상인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 가면 배울게 참 많아. 6개월 동안 회비 40만원씩 내고 등록하면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법, 디스플레이 하는 법, 서비스, 인사하는 거 등등 해보면 할만하다. 그런 걸 배워야 장사도 잘하고 열성이 생기고 단합도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인들이 시장을 살리려고 배우고 노력하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새벽시장에는 ‘최과장’이라고 우리만의 브랜드가 있어.”

박은옥 : ‘최과장’이라고 새벽시장에서 하는 과일 브랜드가 있어. 지금은 몇 년 안 된 건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고 상인들도 돈을 내고 가입해서 만들었다. 새벽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브랜드화해서 마트에 팔 수 있게 해 주는 거야. 정관에 1호점이 있고 지금은 아마 4호점까지 있을 거야. 브랜드가 생기고 새벽시장에서만 물건을 떼 가니까 괜찮은 사업이라고 봐야지. 시장 입장에서

박은옥 : 몇 년 전에 정치하는 사람이 새벽시장에 왔는데 그때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지방 티비에 나왔다. 우리가 곶탕 먹인다고 땡초로 갈아 넣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랬어.

지금처럼 대형마트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 재래시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자 온갖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환상적인 곳이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우리의 전통 시장 또한 점차 사라져버렸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민족의 회노애락이 담긴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상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새로이 만들고 배우며 노력하고 있다.

사상공단

사상공단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공업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부산의 외곽인 낙동강 동쪽 저습지를 개발해 1975년 조성되었다. 공업지역 조성 이후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1980년대에는 부산지역 최대의 공업지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신발산업 등의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녹산, 신호 산업 단지 등으로 공장이 이전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지역은 특이하게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이 뒤섞여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던 곳이다. 그에 따라 용수와 전력 부족, 하수와 폐수 시설 불량 등의 심각한 도시 문제가 발생했던 곳이다. 또한 부산 최대의 공업단지답게 부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던 곳이다. 그러나 공단형성 이후 발전이 멈추었고 지금은 공장도 사람도 모두 빠져나가고 몇몇의 소규모 공장과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만 남아 나머지 삶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일강이 팔백 원이었었는데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배영희 : 사상공단 지을 때 우리가 일하러 갔어요. 지계를 지고, 바지계라는 걸 위에 얹고 가면 자갈이랑 모래를 퍼다 나르고 짚도 퍼다 나르고 이랬지. 그때 하루 일당을 팔백 원 주더라고. 그것도 현금으로 안주고 전표를 끊어가 한 달 해서 직원들 월급 주는 시기가 되면 그걸 열장, 스무 장씩 가져가서 바꿔. 그러면 거기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청년들 아녘니까. 그러니까 ‘술이라도 한잔 묵고 싶다’ 이러면 현금이 없으니까 와리깡 해가지고, 돈하고 전표를 바꾸려면 일할을 때 냅니다. 팔백 원에서 팔십 원을 떼내면 칠백이십 원을 받지. 현금이 있어야 술을 한잔 먹을 거 아니냐.

“떡살 잡고 싸움도 하고 불려도 가고 그랬어.
그때 배쩍 했다.”

배영희 : 사상공단에 신라고무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한번 가보니까 기죽어서 일을 못하겠더라고. 이래라 저래라 해 샀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오니까 이 자식 저 자식 그리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그러가지고 반장 되는 사람하고 떡살 잡고 싸움도 하고 그랬어. 조금만 뭐 하면 말썽이 생기는 거야. 욱도 하고. 한 스무 살 넘어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주먹을 쥔 뒤 박았드만 높은 사람한테 불려가고 그랬어. 옛날에, 그래서 얼마 안다녔어요.

“신발공장이 뽀새도 나고 힘들었어.”

설정숙 : 여기 신발공장은 너무 힘들어서 얼마 못 다녔어. 우리 동생들도 다 신발공장을 다녔다. 나는 국제화학을 다녔지. 아침 8시까지 가야 근무하니까 7시나 뭐 새벽에 일어났다. 8시 전에는 가야지. 옛날에는 통근차도 있었다. 국제화학이 여기 사상에도 있었지만 저 범일동에도 있었다. 진시장 있는 데에. 나는 범일동도 좀 다니고 사상도 좀 다니고 했는데 오래는 못 다녔지. 너무 뽀새도 많이 나고 해서 나는 몇 년을 못 다녔지. 그때 공장에서 불량부라고 있었어. 운동화 씩 내리 오면 검사도 하고 이러는 거, 품질검사 같은 거 했지. 공장은 소개로 갔어. 마을 사람들 대부분 소개로 해서 면접 같은 거 없이 바로 바로 일했어. 그때는 일도 많고 사람도 많았으니까.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살았는데 퇴근해서
주말에 어디 다니고 한 톨이 별로 없어.”**

강귀숙 : 처음에 사촌언니 따라 안동에서 내려와서 국제상사 앞에 수국다방이라고 다방 옆에 방에서 같이 자는데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그러다가 학교 다니면서 사귄 친구랑 국제상사 앞에 여인숙이라고 방 한 칸씩 세를 주는데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그런 방에서 그 친구랑 살았어요. 출근을 보통 8시, 8시 반에 하고 퇴근을 6시에 했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 정도였어. 잔업을 하게 되면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철야 들어가면 새벽까지도 했는데 철야해도 회사머스가 다녀서 집에 오고했지. 국제상사 근처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여자들만 있는 기숙사였는데. 기숙사에서 회사까

지 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또 통근버스가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통근버스로 다니니까 거의 회사, 집, 학교였지. 일요일도 어디 다니고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피곤하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³³⁾

**“라인별로 사람이 있거든,
신발 만드는 게 사람 눈이 많이 가요.”**

강귀숙 : 언니가 가라고 해서 처음에 화성을 갔어요. 그때는 면 접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됐어요. 화성이 신발하청 공장인데 1, 2, 3층까지 있었어. 제법 큰 회사였지. 맨 처음에 경력이 없을 때 시다라고 하잖아요. 보조, 실밥 따주고 신발 만들었어요. 그때 실밥 옆에 붙은 거, 신발 만들고 나면 옆에 붙은 거 다 떼다 주고 제단해주고 또 마지막에 열처리하는 거 그런 거 해 주고 플칠해주고 그랬지. 열처리하는 실밥 붙은걸 열로 뽑는 거 있어요. 게이지 그리는 것도 해요. 아마 젤 처음 하지 싶다. 신발 도면 그리는 것. 자를 주면 그걸로 그러서 탁 탁 탁하면 젤 끝에 있는 물건 싸고 했지. 완성품까지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녀 운동화 전부 다 만들었지. 시장에서 파는 운동화들 있잖아요. 보조하고 나면 다음에 미싱을 해요. 미싱도 제일 쉬운 단계부터해요. 쉬운 단계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신발 박을 때 일자로 짹짹 박는 거 있잖아요. 그게

33) 부산에 항만을 끼고 공단이 형성되면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왔다. 특히 사상공단의 형성으로 감전동 일대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보였다. 먹고 살기 위해 공장으로 모여든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근무조건도, 빠듯한 월급도, 공단에서 나오는 뿌연 연기와 시커먼 폐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때의 감전동 사람들은 오로지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렸다.

제일 쉽고 다음에 신발 뒤에 곡선 있는 부분 박는 게 예이굽이지. 신발 만드는 게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해요. 숙련되려면 한 4, 5년 경력이 쌓여야지, 월급도 차이나고요. 라인별로 사람이 짝짝 있어요. 제일 끝에서 이제 마무리 포장해서 넣으면 출하하지.

“학생라인이 따로 있었고 50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강귀숙 : 공장에는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학생라인이 따로 있었고 50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도 풀칠하는 거 이런 거 하시더라고. 학생들은 학교 간다고 한 번에 몽땅 빠지면 안 되니까 1조 밑에 한 라인, 2조 밑에 한 라인 해가지고 학교 갈 때 쯤 되면 이 조만 딱 놔두고 가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가야하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학교 다니겠다는 건 의지잖아요.”**

강귀숙 : 학교 갈 때는 5시 쯤 마치고 간 것 같아. 효성여상이라고 사상경찰서 바로 뒤에 학교가 있었어요. 원래는 감전동에 있다가 서감초등학교 뒤편으로 이사를 왔어요. 거의 다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녔지. 그땐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보냈어. 일반 학생들은 낮에 다니고 우리는 밤에만 다녔지. 고등학교에서 전 과목 다 배운 것 같아. 부기, 타자, 영어 이런 것 과목대로 다 배운 것 같은데 공부는 잘 안됐어요. 피곤하니까, 일이 피곤하니까. 학비는 회사에서 줬던 것 같아. 회비도 얼마 안됐던 것 같은데. 내가 돈 내고 간 것 같진 않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학교까지 가야겠다는 건, 그래도 의지잖아요. 옛날에는 중학교 때 지금

대학교 오라고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막 홍보도 했어요. 버스 와가지고 야간 학교 오라고 선전하고 그랬어요. 그땐 야간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았지. 그때는 왜 그랬는지 졸업할 때 엄마가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는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좀 울었어요. 친구들은 엄마들 오셔서 밥 먹고 그랬는데 그때 엄마가 안 오셔 가지고 좀 운 것 같아요. 동생은 부산 와서 구포여상 다녔어요. 구포여상도 야간 했거든.

**“회사에서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땐 라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강귀숙 : 회사에서 점심도 주고 야간하면 저녁도 줘요. 그때는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라면을 다 삶아 놔다가 국물을 부어줬어요. 주방장 아줌마가 친구 엄마라서 되게 잘 해줬어요. 회사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점심도 식판에 받아서 먹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다니까. 집에서는 밥을 안 먹으니까. 큰 그릇에 비빔밥 나오고 오뎅국 나올 때가 좋았지. 점심시간엔 빨리 먹고 엎어져 자거나 일하다 덜 한 것 마저 하고 그랬지.

“명절에 회사버스가 안동까지 데려다주고 보너스로 줬어.”

강귀숙 :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회사버스가 안동까지 데려다 줬어요. 회사가 컸어요. 그래서 회사버스가 동네, 큰 동네마다 차가 한 대씩 갔어요. 가는 길목에 내리고 이렇게 갔어. 경북이면 가다가 울산, 영천, 안동 이렇게 다녔어. 명절 되면 공장 전체가 문 닫고 버스가 데려다 줬지. 명절 보너스도 줬던 것 같아요. 집에 갈 때 엄마 아버지는 숙옷을 사간 것 같고, 동생들은 시계를

많이 사다줬어요. 근데 동생들 시계를 사다주면 답에 가면 없고 하더라고. 내가 간다고 하면 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오면 뛰어나오고 그랬거든. 또 명절이 나 애들 방학하면 하나씩 부산에 놀러 왔었어요. 언니가 있으니까 놀러왔지.

“그땐 돈이 없어서 신랑 한 장사처 보면 하루가 다 갔어.”

강귀숙 : 일할 때 이쁜옷도 없었어요. 뭐 놀러 다니고 나이트 그런데도 안 가봤네, 진짜 안 가봤어요. 그냥 일요일이면 집에서 빨래하고 누워 자고 그랬는 것 같아. 신랑하고 데이트 할 때 신랑도 돈이 없어요. 좀 안 쓰는 스타일 이예요. 먹고 싶어도 참아라는 스타일. 요즘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땐 신문 한 장 사서 집에서 그거 보면 하루가 다 갔다니까. 데이트도 거의 도로변 우리 버스 다니는 도로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랬지. 영화보고 커피숍가고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 우리 회사에서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 회사버스가 가면서 우리 있는 거 들키잖아요. 그래서 다 들켰어요. 사키는 거.

“월급을 봉투로 받으면 봉투째로 집에 동기를 보냈어.”

강귀숙 : 옛날에는 월급을 봉투로 받았어요. 봉투에 적어서 주면 첨에는 저축을 못했어요. 내가 쓸 것 조금만 남기고 다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땐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등기로 보냈어. 그 다음에는 졸업하고 신랑 만나서 들어서 저축을 했지. 부산은행이 있어서 거길 갔지.³⁴⁾

“데모는 남자들이 주도를 했는데 공장에는 여자가 많았거든.
같이 안하면 눈치를 주고 그랬어요.”

장귀숙 : 옛날에 임금 이런 것 때문에 데모를 한 것 같아요. 월급 안올려 주고 보너스 잘 안주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신람이 제조가 아니라 다른 과에 있었는데 데모를 못 하게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안하게 되면 눈치를 줘요. 신람 있다고 안한다면서 회사에서 따돌림 비슷하게 당하잖아.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안 간다던지 일거리를 확 몰아 줘버린 다던지. 거의 다 일하는 사람이 여자였어요. 한 라인에 스무 명 가까이 있었거든. 미싱하는 사람들은 여잔데 제조과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데모 같은 거는 남자들이 대부분 주도를 했지. 데모는 회사 마당에서 뭘 손도 막 흔들고 구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은 회사에서 뭐 때문에 데모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물이 차가지고 야간하고 걸어오는데 어찌 안 빠지고 왔는지 몰라. 옛날에 비 오면 물이 차서 배타고 다녔어요. 이쪽에 물이 진짜 많이 찼거든요. 우리는 2층만 살아서 괜찮았는데. 그때 우리 신람이 제조과에 있었는데 나는 데모하고 집에 오니 똥으신 분들이 우리 집에 다와 있더라고. 우리는 데모하고 회사는 데모하지 말라고 말리고 막 그랬어.

34) 공장은 언제나 사람들을 필요로 했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일을 할 공장이 필요했다. 그렇게 도시로 찾아든 어린 소녀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야간 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받은 돈은 고향의 부모님이나 공부하는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온전히 어린 소녀들의 몫이었다. 출근길 보았던 원피스, 따뜻한 봄바람에 한없이 나풀거릴 것 같은 그 실크 원피스는 오직 꿈속에서만 입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쓰러지듯 잠든 그녀들의 머리맡에는 뽀뽀한 작업복이 안아주듯 걸려 있었다.

“여 키우고 집에 쫓겨 있고, 한 번씩 빠지면
일에 지장이 생겨. 눈치가 보여.”

강귀숙 : 지금 다리 밑에 있는 주유소 옆이 옛날에는 신발공장
이었어요. 거기 다닐 때 우리 애를 낳았는데 내가 출
근하면 애가 안 떨어지려고 안 보일 때까지 울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야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이
연결이 돼야 하니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야간하면 그
땐 동생이 다락방에 있었으니까 동생이나 신랑이 애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고 이랬어요. 집에 재사가 많
아서 한 번씩 빠지면 회사에서 눈치를 주더라고. 빠지
면 일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 도저히 안 되자 1년
정도만 하다가 관뒀어요. 관두고 부업을 했지.³⁵⁾

“여기는 공장이 많잖아. 켄라도는 공장이 없으니까.”

김종현 : 감전동은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왜 그렇냐면
공장지대니까. 공장 곁으로 이사를 많이 오는 거야.
직장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전라도에서 많이
왔어. 사상구에 전부다 공장이잖아. 전라도 쪽은 공장
이 많이 없으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공장가로 온 거야.

35) 여공들에게 데모는 가슴 두근거리고 무서운 행동이었다. 희생과 순
종이 여성의 최고 덕목이었던 시절, 데모에 가담하는 것은 그 모든
가치관들을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애써 낸 용기조차
남편과 회사의 눈치를 봐야 했고 용기를 내지 못하면 동료 여공들의
눈치와 괴롭힘을 감당해야 했다. 오로지 여자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
요당하거나 눈치를 봐야하던 시절, 그 때의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권
위로 뚝뚝 뭉쳐있는 사회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다 비슷한 처지잖아.”

강귀숙 : 공장은 버스가 다니니까 감전동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데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통근버스가 다니니까. 영도 저 멀리까지 갔어요. 전라도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학교 다니고 하니 힘들잖아. 다 비슷한 처지라 지역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90년대에는 젊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 자리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지.”**

정정자 : 옛날에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회사 다녔지. 큰 공장하면 아신통상. 화승도 있었고. 삼원화학도 있었지. 지금은 냄새난다고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감전동에 삼원 화학이라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남자여자고 90년대에는 젊은 사람이 많았는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지.

강귀숙 : 신발공장 다닐 때는 냄새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발공장 다니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들지 그때는 그냥 다녀야 되니까.



“스켈공장 다니다가 손 다치고,
회사도 망하고. 고생 많이 했다.”

윤옥자 : 110번 버스정류장에 스켈공장이 하나 있었어. 벌써 없어졌는데 연탄 그만두고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쳤어. 곰통, 찹통 이런 거 찍다가 기계가 고장 나서 팍 내려앉아 버렸어. 이 손을 못 빼가지고 손이 병신이 돼버렸어. 옛날에는 바보처럼 내가 몰라가지고 얼른 나을 생각만하고 보상 신청도 못했어. 회사도 망해버리고.

사상공단은 전국각지에서 일거리를 찾아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비슷한 공간속에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감정이 딱히 표출되지 않았다.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함께 어울려 그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내었다. 물론 동향의 사람들끼리 더 뭉쳐 객지에서 삶을 살아내기는 했으나 지역에 따른 이질감은 느끼지 못하였다.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 자리는 점차 외국인들이 대신하게 되었다.

생업

살기위해 뭐든지 해야 했다는 말이 지금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지도 모르지만 과거 감전동 사람들에게는 매일 아침 겪어야 하는 현실이었다. 손이 부르트도록 갈대를 뽑아 빗자루, 김발을 만들고 췌가루, 나무가루가 사방으로 날리던 공장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을 하고, 시퍼런 강물이 넘실거리는 낙동강에서 재첩을 잡아 무거운 양철통에 담아 머리에 이고, 까마득한 저 고개를 오르던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 뭐든지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했다.

“옛날에는 갈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참 많았다.”

배영희 : 예전에 는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나락 심고 보리 심어가 지고 먹고 사는데 우리같이 좀 빈곤하고 없는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하고 남의 집에 품을 들고 하루에 얼마씩 받아서 살지. 요새 말하면 공장 생활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 부인네들은 재첩국을 많이 하고 갈게라고 민물게를 잡아서 소금에다 젓갈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노화라고 갈꽃으로 빗자루를 만들기도 하고 김발을 만들어서 팔지. 빗자루를 만들어서 조방이나 구포시장 5일마다 하는 하단, 괴정, 동래시장 이런 데를 가는 거야. 조방을 제일 많이 가지. 거기는 매일 서는 장터니까. 여름에 해수욕장에 요새는 파라솔 아깝니까. 옛날에 파라솔이 없을 때 갈대를 가지고 그늘막을 만들었습니다. 해운대나 광안리, 적기(우암)에 가서 팔았어.

“농사를 짓다가 공단이 들어오니
건물을 세워서 방을 다 뒀지.”

김성한 : 공단이 형성되면서 급격하게 농사는 없어지고 여기가
준 상업지역 비슷하게 변했지. 저기 공단 자체가 옛날
에 습지였거든.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단을 조성
하고 나니까네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이 동네에 소
득이 농사 말고 없었잖아요. 공단이 조성되고 나니까
네 전국각지에서 노동자들이 다 모였다고, 전국각지에
서. 그러니까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땅이 넓어 노니까
네 방 하나 부엌하나 이래하면 기초만 딱 놓으면 서로
방 얻자고 정신이 없어. 기초만 놓으면, 사람들이 얼
마나 몰렸다고. 저기 우리 집 쪽에 호남사람들이 집단
적으로 내려왔더라고. 내가 옛날에는 방을 19칸을 넘
어 뒀어. 집을 다 지어가지고. 논 한마지기에 건물
세우면 그 안에 19집이 있는 거야. 요 앞집에 사는 사
람 호남사람 한집이 살고 그랬는데 해남군 가학면 사
람이 우리 집에 이사를 오더라고. 그 사람이 이사 오
고 조금 지나니까네, 우리 집에 전부 가학사람 밖에
없어요. 소개로 다 연결 되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
꿈 그 가학에 한 번씩 가보거든. 호남에. 이제는 그
사람들 뿔뿔이 다 헤어졌지. 뭐. 그 사람들은 결속력
이 좋을 수밖에 없어. 객지에 나와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많아가 뭐 어찌가 부딪혀가지고 못 다녔다고.
원체 사람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방씨 임대하는 사람들 다 돈 벌었지.”

김성한 : 지금 현재 인구가 한 7천명, 우리 감전 1동만 보면 한
7천 몇 백 명 될 낀데 그 당시에 등록된 인구만 해도

2만 5~6천명해서 등록 안 된 유동인구까지 하면 지금 우리 앞에 저기는 길이 복잡해서 사람이 어깨가 부딪혀서 못 다녔다고. 사람이 많아가 뭐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못 다녔다고 원채 사람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방세 임대하는 사람들 다 돈 벌었지.³⁶⁾

“식량은 외상이 많지만 오락실은 늘 현금장사였어.”

배영희 : 내가 옛날에 아이들 총 쏘는 오락실 그거를 했거든요. 오십 원 할 때 그때 했어요. 백 원 넣으면 오십 원짜리 두 개가 툭 툭 튀어 나오는 자동 기계도 있고 나중에는 천원 넣으면 백 원이 나오는 기계도 있었지. 오락실해서 아들도 게임을 많이 했어. 처음에는 동네에 다른 집 점포를 얻어서 했지. 중간에 그만두고 식당을 하다가 다시 했어. 그만 둔지 한 십년 됐지. 식당 같은 건 순 외상장사거든. 공장사람들이 오늘 밥을 먹으면 한 달 지나 월급 때가 돼야 돈을 주고 하니까. 도저히 외상을 쥐가지는 안 되겠어서 다시 오락실을 했어. 오락실은 현금장사니까.

36) 감전동 마을은 원래를 강을 터전으로 갈대를 빗고 재첩을 잡으며 농사를 짓고 살던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원주민들의 삶의 형태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다. 농사를 짓던 땅에 한꺼번에 모여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이 들어섰고 그들은 그렇게 지어진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작은 집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갔다. 땅이 있던 사람들은 세를 놓아 생계를 이어갔으나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거나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여기되기 회사 다니다가
감전동은 방이 많이 나가니까 장판집을 했지.”**

정정자 : 고등학교 졸업하고 컴퓨터 사무실에 취업을 했어요. 서면에 있는. 1층은 매장, 2층은 사무실이었는데 우리는 프로그램하는 거 배워서 했어요. 중앙동에 회계사무실도 다녔어요. 수입지출 장부 입력하는 일을 했어. 학장에 진영산업이라고 봉제공장이 있는데 경리로 오라고 해서 경리를 봤어요. 월급계산하고 은행업무도 보고 한 일 년 다녔어. 학장에 신일금속이라고 지금은 비엠금속인데 그기 스카웃 되서 또 다녔지. 우리 아저씨도 신일금속에서 만났어요. 아저씨가 신일금속에 다닐 때 급성 간염이 걸려서 쉬어야 하는 거야. 5개월 된 딸 내미도 있고 하니까 친정에서 숙이 상해서 감전동 와서 장판집을 해라. 그땐 방이 잘나갔으니까 나가고 나면 ‘도배해주고 하면 먹고 살지 않겠나’ 해서 가게를 내줘서 들어오게 됐지.

**“꽃구멍 만환 연탄창고에 백장씩
이백장씩 배달하고 그랬다.”**

윤옥자 : 옛날에 또랑 도로가에 새마을금고 거기에 자리가 나서 연탄장사를 했다. 또랑이 있었는데 연탄장사하면서 또랑에도 빠지고 그랬어. 다리가 있기는 했는데 쿵 빠져 부리고 또랑 빨구덩이에 빠지고 그랬다. 장사하면서. 연탄을 한 차 때 가지고 오면 인자 퍼놓고 돈 쥐서 보르면 나는 구루마에 백장씩 싣고 집집마다 연탄창고에 배달을 해줘. 백장씩 이백 장씩 넣어 줄려면 그것도 힘들어. 여자 손으로 연탄을 너 장씩 들었지. 옛날에는

집집마다 연탄을 떼고 살았으니까 많이 배달했지. 여기 공장이 많아서 부엌 한 칸, 방 한 칸이었어. 연탄창고는 콧구멍 만하게 해놓고 거기 연탄을 넣어주는 거야. 집이 많았으니까, 연탄장수들도 많았어. 나름대로 구역이 다 있어. 네다섯 군데가 있었어. 여름에는 얼음장사도 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식당 같은데서 얼음을 많이 썼거든. 구루마 끌고 다닐 때 길이 울퉁불퉁 이렇게 안 좋았지. 구루마 하나에 연탄이 딱 백장씩 들어가 엄청 무거웠어. 끌고 가다보면 옛날에 길이 다 흙구덩이였는데 재첩 껍데기가 전신에 있었어. 말도 마라 힘들었다. 그때는.³⁷⁾



37) 감전동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셋방을 놓고 또 다른 이는 도배를 하거나 연탄을 배달하고 또 어떤 이는 식당을 열었다. 그 시간 속 감전동 사람들은 기쁨과 슬픔, 고됨과 여유를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왔다.

“공단이니까 중국집이 많았어. 밀가루가 많이 남으니까.”

김종헌 : 감전등에 중국집이 많이 생긴 게 이윤이 많이 남는다 카네. 내가 듣기로는 밀가루 음식이 밀가루는 싸고 이 짜장면 짬뽕 이런 거 가격은 비싸잖아. 이윤이 많이 남다보니 장사가 잘돼 한 2, 30년 전에는 중국집 한 사람은 다 부자가 됐어. 중국집 내 보기에 내 아는 사람만 해도 다 부자라. 2, 30년 전부터 중국집이 많이 생겼지 공장지대니까. 배달을 많이 갔어. 그때 중국집이 팬찮았지.

**“식당에서 오만거 다 팔았는데,
신발공장이 돈을 쫓 많이 떼먹었다.”**

설정숙 : 나는 슈퍼 하다가 83년도쯤에 식당을 했다. 돼지고 밥도 팔고 추어탕도 팔고 오만 거 다 했다. 그때는 그런대로 팔았지. 근데 팔아도 신발공장 밥 대주고 밥도 많이 떼이고 그랬다. 옛날에는 밥이 600원씩 했는데 550원 600원짜리 정식을 해주면 공장사장들이 먹고 100만원 200만원 되도 안 주는 거야. 40~50명 정도 되는 양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을 해주면 돈도 안주고. 신발공장이 돈을 쫓 많이 떼먹었다. 한 사장은 호박찌집을 좋아한다고 해서 동글동글한 호박을 구워서 더 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돈 다 떼먹고 도망가데.

“장사는 잘될 것 같을때 앞으로 벌고
뒤로 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설정숙 : 그 다음에 놀다가 노래방 했다. 90년대라도 그때는 잘됐다 술집이. 단속도 많이 오긴 했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소주, 맥주도 팔고 양주도 보통 20만 원짜리 셋팅 해서 팔았지. 그때는 종업원들도 있었다. 여자들도 월급주고 선물, 가볼 땡겨 주고 그랬다니까. 경찰들도 한 번씩 오는 사람들 있었지. 단속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까먹었다. 그래도 그때는 주변에 공장도 많고 장사가 잘 되서 한 달에 돈 천 벌인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는 게 많아. 아가씨들 월급이라던지 집세라던지 앞으로 남고 뒤로 밀지고 그랬지. 그러다가 아이엠에프 왔다 아니까.



“아들 셋 공부시킬라고 내가 감전동에서 저 식당을 했잖아.”

박은옥 : 내가 음식을 잘하잖아. 그래가 새벽시장 오기 전에 식당을 해 볼란다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마 못하라고 버쩍하는기라. 아들이 셋인데 공부시키고 할라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왜 안 할끼고. 그래서 감전동에 저 식당을 했다 아니가. 새벽시장에서 저 끈티 가면 큰 길,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공장이 있는데 그 식당을 했다가. 옛날 그 시절에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 고향 사람인갑데. 내를 보고 지 선배가 무슨 철강회사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하노 하면서 저거 해 볼래 카데. 그래 내가 있어야 하지요 하니까. 공장 옆에 조금 지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3년인가 4년을 했는데 그 공장을 못하게 됐어. 공장이 없어져서.



“공장 여사장이 나를 좋게 봤어.
참 그럭 좋은 사람이 있더라.”

박은옥 : 외상도 이리 많이 깔리 있는데 몬하면 우짜겠노 내가 이라니까. 그길 맞은편에 정비공장 전무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좋게 봐가지고 아들 셋하고 아저씨하고 열심히 산다고 내가 우리 여사장한테 이야기 할끼니까 네 여사장이 한번 오라하매 내보고. 그 정비공장이 승 일정비공장이다. 나는 설마 그 공장 땅 떼 가지고 너한테 식당 채리주겠나 했지. 이 테이블 10개만하면 40명 아입니까. 점심시간 몇 팀만 주면 되겠더라고. 설마 공장 땅 주겠나하니까 몇 달이 흘렀는가 있으니까. 오라카데. 그래 가니까. 여사장인데 내가 여서 일하는데 너무 외상이 그때는 외상을 많이 했거든. 부산 주물 사람들에게 하고 외상이 이래 깔렸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식당 안하면 아들하고 못 삽니다. 머스마 서이를 어찌 키울 겁니까.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청상 사장님이 쫓 봐 주이소 이래하니까. 너무 인상이 좋고 앵간하면 내가 마 신경 쓰겠습니까카드만 이튼날 마 그 공장 사무실 뒤편에 평수가 크는 기라요. 이런 너이 앵는 테이블로 10개 날 정도로 그거로 막 똑 지어가 그래가지고 거서 해취가지고 내가 거서 오래했습니다.

“공장이 잘 될 때는 하루에 쌀 80kg를 지었다니까.”

박은옥 : 냇이 앵는 테이블로 10개 정도로 딱 지어가지고 물세도 전기세도 받지 마라하고 아줌마보고 인자 밑에 직원들한테 밥 먹어라하고. 여사장처럼 고마운 분도 많다. 물은 식당을 하니 내가 쓴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

니 아지매가 너무 성실히 사니까 내 안 받을 랍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오래했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21명밖에 안됐는데 옛날에 신발 공장이 잘됐거든 여기. 그 직원들이 저그 집 식당이 있었는데도 우리 집에 전부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쌀로 하루 한가마이 밥을 했다. 옛날에는 한가마니가 80키로지. 그때 심신이 여유가 없었다. 사람 몇 명 데리고 했는데 장사 잘됐습니다.³⁸⁾

**“유통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만 힘들어.”**

장기숙 : 신랑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신발회사 갔다가 해태제과를 다녔었는데 그쪽에서 유통을 파악하고 이걸 시작했지. 지금은 옛날만치는 안 되서 차 한 대 줄였어요. 경기가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남자하나 여자하나 줄였어요. 원래 차 한 3대 돌아갔는데 지금 한 대 줄이고 2대. 남자 하나 여자 하나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니까. 운전하고 진열해줘야 하니까. 슈퍼에다가. 우리는 사상구, 강서구, 저 하단, 괴정 이렇게 가요. 아침에 물건을 싣고 나가요. 챙길 거 차에 물건 한 것 싣고 나가면 인제 저녁에 들어와요. 저녁에 들어와서 정리하고.

38) 감전동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은 식당이다. 마진율이 높고 배달을 해주었던 중국집부터 계약을 하고 공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대주는 함바집까지 사람이 많았기에 번성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외상이 비일비재했고 밥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반대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도움을 베풀었던 마음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다. 당장 나의 삶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웃이라면 하나 더 챙겨주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이 그 시절 감전동 사람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소통 아니었을까?

“공장 있을 때는 내걸지 남의 걸 파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

김성순 : 여기가 국제상사도 있고 성화도 있고 신발공장이 있을 때는 골목에 사람들이 뽁뽁해가지고 퇴근시간에는 비키기도 힘들었어. 그때는 장사하기도 너무 바빠서 아침 밥도 못 먹었어. 남는 건 어떤 건지 모르고 내걸지 남의 건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옛날에는 집들이 지금 이랑 달랐지. 천막처럼 해가지고 거의 다 노점장사를 했어. 이 앞쪽이 전부 시장이었어요. 천막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알구져. 그거 다 뜯어버리고 지금은 집처럼 깔끔해졌지. 이전에는 길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 오면 질퍽거리고 그랬어. 하천도 있었는데 지금은 복개를 했지만 그때 똥물에 냄새도 나고 그랬어.

“공장 사람들이 퇴근하면저 사가려고
무조건 이 시장으로 왔어.”

김성순 : 리어카에 오이도 팔고 과일도 팔고 리어카가 뽁뽁했어. 차만 비켜주고 장사꾼들이 저 앞쪽 요쪽 골목 끝까지 다 장사를 했어. 리어카에 반찬도 팔고 생선도 팔고 부식도 팔고 과일집도 있고 말 그대로 다 팔았어. 퇴근시간 되면 사람들이 반찬이랑 다 사가니까 재래시장처럼 그랬었지. 방이 없어서 못나갈 정도로 한 칸짜리 방이 비싸고 커했어. 그만큼 사람이 많았으니까 퇴근시간 되면 사람이 엄청 많았지. 공장에서 마치면 무조건 시장가면서 사가지고 갈려고 다 이리로 오는 거지.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 장사를 했으니까

“공장이 잘되고 식당이 잘되니 경찰아 잘되는 거야.”

김성순 : 고추, 참기름 장사부터 가정에 필요한 잡화를 다 팔았어요. 된장, 고추장 봉지로 된 거 있잖아. 옛날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는 고추 꼭대기 못 따니까 꼭다리 따는 할매들 들어 가지고 땀어. 옛날에는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면 밤 열한시까지 했었어요. 고추 꼭다리 따고 빨아야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고추는 도매상에서 가져와요. 여기서도 빨아서 식당 같은데 배달해 줄려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 배달하려면 저녁에 다해서 기름도 많이 짜놔야 되고 고추도 많이 빨아놔야 그 이튿날 배달을 해주지. 공장이 있을 때 식당들도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으니 덩달아 장사가 잘됐어. 근데 옛날에 전부 다 외상장사야 오백만 원어치 칠백만 원어치 띠어 먹고 다 도망가서 띠인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준게 아니고 할 것 다하고 외상으로 가져다 먹고 즐리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주는 거야.

**“감귤통에 새벽시장이 있지만
여기는 골목시장이라고 불렀어. 지금은 이렇지만...”**

김성순 : 시장길 여기를 골목시장이라고, 동사무소 뒤편에 그냥 골목시장이라고 불렀어. 새벽시장은 있었어도 거기는 대량으로 팔고 여기는 소매로 조금씩 파니까. 아이엠에프 지나도 그러저럭 있었는데 차츰차츰 안 좋아지더니 이제 시장이 다 없어져 버렸어. 공장들이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없고. 마트 생긴 것도 장사 안 되는데 이유가 되겠지.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 마트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목에 거기 가서 보니

까 다 시장을 봐 오더만. 지금은 저 마트들이 생겨버리니까 다 마트 가버리고 안 나가니까 지금은 딱 중요한 거 필요한 것만 봐놓지 딴 건 이제 안 팔아. 전에는 평절 때 잘됐는데 요즘은 평절이나 평일이나 똑같아요. 제삿날에도 참기름 깨소금 많이 팔리고 잘됐는데 요즘은 아예 안사가 똑같아. 김장도 옛날처럼 많이 안하지. 친척들이 보내주니까 고춧가루나 배추도 안 나가서 가게만 열어놓고 있어.³⁹⁾

**“기계를 유승기계에서 들여와서
이름은 유승이라고 지었잖아.”**

김중헌 : 원래 여기가 우리 집이었고 일층에 중국집이랑 자전거 가게가 있었는데 내가 세탁소를 한다니까 개조해서 들어온 거야. 가게 이름이 유승세탁소인데 조방 앞에 유승기계라고 있어. 기계를 그 유승기계에서 사와서 이름을 ‘유승’으로 지었어. 할머니들은 세탁소 잘 안와.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오지. 세탁업도 하다보면 주로 오는 사람이 계속 와. 일 년 내도록 있어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맡기는 사람만 오지. 옷은 세탁을 잘해야 깨끗하고 오래 입는다. 얼룩은 오래두면 안 지워져.

39) 감전동하면 새벽시장을 먼저 떠올리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은 감전동 안쪽에 위치한 골목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공장에 사람으로 넘쳐나던 시절 이 골목시장은 마을 사람들이 모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감전동은 공단이 형성되면서 덩달아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상권이 발달하였다. 예전에 이곳은 사람이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몇 남지 않은 가게들만이 이곳이 시장이었음을 보여주는 한적한 곳이 되었다.

“사부 직은 양복을 입고,
노동자들은 다림질을 많이 맡겼어.”

김종현 : 그 당시에는 양복을 많이 입었어. 수준 높은 사람들은 양복을 많이 입잖아. 그런 사람들이 옷을 맡기지 서민 층에서는 옷을 안 맡겨. 아니면 다림질 할 거 맡겨. 길 흉사 같은 거 있으면 외출한다고 맡겼어. 그래도 직장 이 좋은 사람들은 양복을 입잖아. 당시에 외출복은 양 복 밖에 없었어. 보통은 노동자들이 아니고 사무직하 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지. 노동자들은 어찌다 한번 외출하려고 바지나 다려입었는데 여기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도 많았어. 감전동 분위기를 옷으로 봐서 는 한 몇 년 전부터 좀 살만해졌구나 하지. 그때부터 주로 메이커가 나오니까. 최근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에서 옷이 세벌 밖에 없으면서 코트를 가지고 왔다. 자기 입으로는 천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가격이 있는데 많이 받을 수 없잖아. 코트 가격을 들 으니까 섬뜩하더라고 비싸니까. 보니까 옷에는 이상이 없어서 내가 코트 세탁비가 이렇다니까 좀 잘해주세요 하면서 주더라고. 그래서 드라이 해주니 고맙다고 하 더라.⁴⁰⁾

40)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이 들어선다. 인간은 살 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세탁소는 어떻게? 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빴던 감전동 사 람들에게 세탁소라는 공간은 어찌면 사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 대로 그렇게 힘들게 일한 돈으로 구입한 비싼 옷은 당연히 오래도록 입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감전동 사람들이 세탁소를 찾는 약간 의 사치와 수고로움을 보였던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스팀을 연탄보일러 쓰다가 석유를 써서 폐우지,
지금은 스위치만 누르면 돼.”

김종헌 : 세탁하는 기계가 지금은 다 자동인데 그때는 드라이기
계가 반자동이었고 아이롱이 지금은 스팀인데 처음에
내가 할 당시에는 연탄 보일러여서 연탄을 매일 갈아
넣어야 돼. 연탄 갈아서 스팀을 데워가지고 쓰는데 그
게 좀 불편했지. 그러다가 석유 버너 보일러가 나오니
까 연탄보다는 수월하잖아. 그게 또 압에 의해서 가스
처럼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기름보일러가 나오고
그걸 현재도 쓰고 있지. 반자동이라는게 지금은 시간
스위치만 누르면 예를 들어 한복 같은 경우 15분 정도
눌러 놓으면 자동으로 다 되어 나와. 기계 안에 넣으
면 세탁을 다해나오는데 반자동은 손으로 기름 빼 올
리고 어느 정도하면 또 내려야 하고 그런 게 있어. 지
금도 겸용이 있어.

“발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좁게 구벌하는데 유행이었잖아.”

김종헌 : 수선의뢰도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통바지가 유행했는데 지금은 딱 달라붙는 거, 쫄바지 식으로. 옛날 유행했던 통을 줄이지. 보통 11인치, 10인치로 줄이는 것도 있어. 일자바지로 만들어주지. 한 3, 4년 전에 학생들이 바지 줄이러 굉장히 많이 왔어. 그때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또 잘 안와. 이제 자체 내에서 교복 통을 좁게 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학생들 수선이 이제 많이 없지.⁴¹⁾

“드라이도 약품이 많아.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해.”

김종헌 : 드라이는 기름으로 씻는 거야. 옷에 때만 없어지고 원형 그대로 나와. 기름 냄새가 나니까 하루 쯤 말리지. 짜든 때는 지우는 약품이 있어. 약품도 전 처리, 후 처리가 있는데 드라이하기 전에 점검을 해. 얼룩이 있으면 지워서 넣어야 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무조건 드라이만 하면 새것처럼 깨끗하게 나오는 줄 아니까. 약품처리 하고 드라이하거나 그래도 안 빠지면 후 처리하고 다림질을 하지. 그래도 안 빠지면 또 약품처리 하는 게 있는데 좀 복잡해. 우리도 교육받으러

41)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이다. 사람도 기계도 스타일도 말이다. 기계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빠르고 편하게 변화시킨다. 예전에 손이 많이 갔던 스타밍기도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타일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80년대 유행하던 통바지는 90년대에는 발도 들어가기 힘든 스키니 바지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10년 전 옷이 내일 당장 유행할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옷들의 먼지를 털어 정리 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는데 약품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해 억지로 얼룩을 다 빨려고 하면 옷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제 손님들 하고 싸우게 되지. 가죽류나 무스탕 같은 게 그래서 그건 전문집에 위탁을 보내지.

“요즘은 권복 패딩이다.”

김종현 : 한복이 제일 까다롭지. 가죽이나 무스탕은 위탁을 하니까 알아서 해오지만 한복은 접으면 줄이 잘 가. 주름 잡힌 곳이 금이 짝 나 있거든. 지금은 한복을 잘 안 입으니까 잘 안 들어오지만 한복은 특히 잘 봐야 해. 이제는 양복보다 오리파카, 패딩 이런 게 많아. 여자들은 니트를 많이 가져오고. 요새는 옛날만큼 안 추워서 일 년 내도록 가죽 한두 개 들어올까 말까다. 80년대에는 가죽, 세무가 유행이었지만 이제는 전부다 패딩이다.

**“옛날엔 가끔씩 아는 사람이 옷 빌리러 왔어,
중요한 날 입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김종현 : 옛날에는 옷 빌리러도 가끔 왔어. 빌리러 왔는데 자기한테 옷이 안 맞아. 기장이 길든지 허리가 안 맞든지 하지. 가끔 한 번씩 빌리러 오더라고. 그때는 주로 선보러 가거나 하는데 옷이 없으니까 주로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오지. 그래도 옷이 안 맞다니까. 요즘에는 옷이 흔하니까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는 양복 같은 것도 커할 적 아니야.⁴²⁾

42) 흘러간 옛 드라마를 보면 세탁소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소시민들

“세탁은 무조건 접수를 잘 받아야 돼. 아니면 문제가 생겨.”

김종헌 : 세탁을 할 때 첫 번째로 접수를 잘 받아야 해. 세탁하면서 찢어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 기계 안이 깨썩는데 찢어질게 뭐가 있겠어. 대부분 손님들 모르게 찢어 진대가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세탁을 해 놓으면 안 돼. 접수를 받더라도 자세히 살펴봐야하는데 바쁘기도 하고 손님 앞에서는 자세히 못 보잖아. 그래서 대충 접수 받아 놓고 드라이 할 때 자세히 보거든.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야기 하는 거지. 말길 만한 옷은 아끼는 옷이니까.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나 사진을 찍어봐, 사진은 날짜가 나오니까. 혹시나 옷이 바뀌면 드라이를 하면 안 돼. 무조건 세탁소 잘못이거든. 그런 적도 한번쯤 있다고 봐야지. 그래도 찾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상표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바뀌었다 정도는 알아, 근데 남의 옷은 잘 안 찾아가.

김종헌 : 한번은 접수를 잘못 해가지고 드라이를 안 하고 연락처가 없어서 며칠 있다가 찾으러 왔더라고. 그대로 봐둔 상태인데 자기는 가져올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기지, 그러가 결국은 좀 마음 상했지. 몇 년간 이야기 안하다가 한두 번 살다가 결국은 인자 지금은 잘 해결 돼가지고 이야기하고 잘 지내. 청바진데 일제라. 인터넷에서 샀다카던데 그게 바지 하나가 20만원 주고 샀다 이기라. 그러가지고 세탁을 했는데 내 보이

이 그들이 가장 아끼는 옷을 돈을 들여 세탁소에 맡기고 좋은 옷을 살 수 없었던 옛 시절 선을 보거나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입기 위해 세탁소에서 정장을 빌려 입던 이야기 말이다. 세탁소는 옷을 세탁하는 곳이자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색깔이 날라 갔다 이기라. 색깔이 변했다. 이기라. 색깔이 변하면은 어? 물이 빠지든가 뭐 이상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못 느꼈거든. 그러가 할 수없이 그러면은 뭐 소보원 가가지고 접수를 해라. 이래 둘이 이야기하니까 안 맞았지. 거기서 서로 합의하에서 보상해주라 하이 뭇이 가격 차이가 너무 나버려. 우리도 기준법이 있거든 보상 기준법이. 마 머리 아프니까 싸우기도 싫고. 접수해라카이 접수했다꼬. 그러가지고 접수 한 대로 그대로 인자 내가 접수받아가 그래 그 가격을 쳐 줬지. 요즘은 무슨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래 해보고 안 되면 접수하는 게 제일 나야. 중재를 받아야지. 주로 인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 그라이 세탁소도 쉬운 일이 아니라.⁴³⁾

*“여러가지 다른 건 많이 올랐다 해도,
세탁비는 많이 안 올랐어.”*

김종헌 : 동네 동마다 세탁 계를 하거든. 거기서 정해가지고 요금을 매기지. 우리 여기도 다 틀리, 요하고 저하고. 양복을 기준으로 처음에 한 벌이 2,500원이었나 80년대에 짜장면이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나중에 3,000원 하다가 4,000원, 5,000원 하다가 지금은 6,000원 하지. 셔츠 빼고 상의하고 하의 한 벌이. 6,000원 한

43) 사람이 부대끼고 살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세탁소는 당연히 세탁물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옷이 바뀐다던지 세탁 후 옷의 변화에 대해 항의한다던지 하는 문제들 말이다. 그래서 세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수이다. 접수를 잘 받아야 세탁물이 바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탁 전 옷의 상태를 잘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항의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주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들었다.

지가 한 15년 됐어. 원칙은 양복이 제일 싸다고 봐야지. 비싼 거는 파카나 패딩이 5,000원부터 10,000원까지. 크기하고 방수기능하고 이런 게 다르니까. 또 조끼도 틀리지 얇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불도 싸지. 봄이 불도 있고 겨울 두꺼운 것도 있고, 또 숨에 따리서 다르니까. 그래도 우리 이런 거 만원 밖에 안가. 얇은 거는 7, 8천원. 목화솜 같은 거는 걸만 하지, 안은 햇볕 건조만 시키고. 솜을 다 꺼내야 해. 우리가 몇 군데 해 보기는 했는데 통째로 가져왔어. 그래 우리가 그 하면은 손이 많이 가고 먼지도 많이 나.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

“예전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세탁소 키리는 사이가 좋지.”

김종헌 : 여기에 세탁소가 13개 있었는데 이제 6개 남아 있어. 모임이 있는데 이제 세탁사 모임이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끼리 경쟁의식 같은 건 없는데 다른 동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억수로 심해. 수거하러 다니고 막 자기 아파트도 수거 하로 오고하면 기분 나쁘지 상가 이런데. 우리 주택지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80년대에는 버스비와 라면이 100원, 소주 한 병이 200원, 짜장면이 500원이었다. 지금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게 물가가 올랐다. 하지만 세탁요금은 예전에 비해 2, 3배 정도 밖에 오르지 못하였다. 세탁물의 종류가 이전에 비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세탁 방법도 늘어나 세탁소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감전동은 세탁소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 정도만 남아 영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

역은 구역에 따라 세탁소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반해 주택지가 많은 감전동은 그러한 분쟁 없이 서로 도와가며 평화롭게 운영되고 있다.

에필로그



“저는 배영희라고 합니다. 1946년에 감전동에서 태어났고 집안대대로 이곳에서 살며 갈래빗자루를 만들었지요. 감전동에 관한 건 나한테 다 물어보면 됩니다.”



“저의 이름은 정정자입니다. 1966년생이고 12살 때 진주에서 감전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특기는 봉사활동, 취미도 봉사활동입니다. 현재는 통장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니 이름은 윤옥자라. 1940년생이고 여주에서 태어났어. 먹고 살려고
감전동에서 고생을 억수로 많이 해쳐 안 아플데가 없어. 그래도 지금
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어.”



“저의 이름은 김청숙입니다. 1955년 목포에서 태어나 80년대 중반에
감전동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감산공원 뒤편 골목에서 감전상회라
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 이름은 조경숙입니다. 1939년 김해에서 태어나서 1960년에 감전
동에 왔어요. 우리 남편은 배를 타고 나는 제철 중간상을 하며 열심
히 살았어요.”



“저는 설정숙이라고 합니다. 1956년 함안에서 태어나 1968년 처음으로 감전동으로 이사를 왔지요. 지금은 새벽시장에서 자그마한 스낵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중현이라고 합니다. 1956년 밀양에서 태어나 1989년 감전동으로 이주했습니다. 현재는 감전동에서 옥승채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 이름은 김정환이고 1949년 감전동에서 태어났어. 초상때대로 여기저기 살았는데 초상님들 덕분에 먹고 사는데 불편하진 않았어. 젊은 시절, 나는 4H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인연으로 여기 새마을금고 이사를 맡았다가 지금은 은퇴했어.”



“저의 이름은 강기숙이고 1966년 의령에서 태어났어요. 18살 때 감전동으로 와서 신발공장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 덕에 남편도 만나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옥입니다. 1954년 함월에 태어나 1980년대 후반에 감전동으로 왔습니다. 새벽시장에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인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새벽장을 좋은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희 :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그래서 신식결혼식을 했어. 저기 서면에 부전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다고. 신혼여행은 경주로 가서 석굴암도 보고 그랬지. 그 사람이랑 나이 차이가 또 좀 많이 나. 열 살 차이가 났는데 그래도 그때는 우리도 인물이 그런대로 괜찮았어. 뭐 그렇게 늙어 보이지도 안하고.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 강둑 같은데 보면 김해 사람들이 타고 이쪽으로 오는 배가 있었어. 그 나루터 배를 한번 씩 타고 그랬지. 예전에는 낙동강에 사람 건너 주는 배가 있었어. 그거 타고 건너다니고 걸어서 많이 다녔지. 구덕터널 있기 전에는 그 위로 꽃동네로 해서 대신동 넘어가서 자갈치도 가고 그랬어.

정정자 :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산타누리 봉사단이라고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나눠주자해서 이름이 산타누리 봉사단이야. 원래는 사상 사랑나누기라고 도배 봉사를 했어. 자기 기술이 있는 사람들끼리 마을에 집을 수리해주자고 모였지. 그 전에 ‘작은사랑 나눔봉사’ 라고 한 다섯 분이서 발족한 것 같은데 설비하는 사람 묵수하는 사람 전기하는 사람, 우리 이 기술가지고 동네에 좋은 일 한번 해보자해서 모였는데 송숙희 구청장님이 이런 봉사가 너무 좋다고 동네마다 봉사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사상구 사랑나누기도 생기고 각 동마다 봉사단체가 생겼어요. 그 중에 20정도가 모여서 산타누리 봉사단을 결성했지. 집수리는 서로 일이 바쁘고 기술이 없으니까 짜장면 봉사하시는 중식협회 일심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 산타누리가 도와주는 거야. 그것 말고도 적십자에서 밥차 무료급식도 하고, 빨래봉사도 하고 헌혈캠페인도 돌고 하지. 여기 봉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감전동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집 이층에 엄마, 아버지가 계시

니까 우리 부모님 대하듯, 또 내가 늙으면 저렇게 될 거니까. 그런 마음을 마을을 위해 활동 하는 거지.

윤옥자 : 젊었을 때는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좋다. 요즘은 우리 할아씨가 목발 짚고 종이 주워가지고 20만원 받아오면 그걸로 영감이랑 먹고 산다. 나가 이제 일을 못가니까 그냥 할멈을 먹여 살려야지.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또 노인정도 생기고 와서 이래 노니까네 편타. 구청에서도 쌀 한 포대씩 주고 그눔을 갖다 먹고 영감 할마이 편케 살잖아.

김성순 : 당시에엔 식구들이 많아도 단칸방에 새끼 데리고 화장실도 없어서 공동 화장실 밖에 있는 그런데 살았잖아요. 우리도 거기서 애들 셋에다 우리 둘이 다섯 식구가 살았는데 돈 벌어서 옆집에다 방 하나 더 얻어가지고 애들 살고 두 칸짜리도 옆에다 얻어가지고 살다가 몇 년 후에 집을 샀지. 지금 이 집이 투자한 돈이 많아요. 여기저기 수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살만하잖아.

조정숙 : 우리 할배가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거 다 했지. 통장증이런게 천지라. 오만 거 다했다니까. 땀기면서 자기 할 거 다하고 애 많이 먹이고 갔다. 이래하니까 집에 살림이 안 되지요. 내 혼자 살라카이. 새마을운동 할 때도 아침 되면 깃발 들고 나가가 마을 정비도 하고 활동 많이 했다. 감투란 감투는 다 올리면서 땀겼어.

설정숙 : 젊었을 때 남진 쇼, 나훈아 쇼 이런 거 하면 여덟 가나 하면 보림 극장을 간다. 새벽밥 먹고 친구들과하고 나팔바지 입고 동신버스 타고 갔어. 친구들이랑 또 만

나가지고 시내 간다고 하면 남포동가고 그랬지. 남포동에 내려가 부영극장 같은데서 영화보고, 옛날에 그 태화극장도 있었잖아. 서면에. 태종대도 많이 갔네. 태종대, 성지곡수원지. 성지곡수원지는 회사에서 봄놀이 같은 거 할 때 많이 갔다. 옛날에 나 처녀 때 팬팔해가지고 월남에 있는 사람, 그때는 군인이었지. 해병대 군인인데, 나보다 나이도 많지 싶다. 우쭐하다 그 사람하고 연관이 돼서 커국한다 해가 우리 친구들하고 환영깃대 들고 부두까지 가서 만났잖아. 그래 그 사람이 동삼동 살아서 태종대 많이 놀러갔다.

김종헌 : 내가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했네. 그때 내가 제단사로 있었는데 우연히 놀러 왔어.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원래 내가 동기 동생으로 알고 있었어.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이 내 일하는 당감동 의상실로 구경하러 온 거야. 그러고는 항상 마치고 저녁마다 왔어. 고향을 물어보니까 같은 면 소재지고 향인거야. 오빠가 있다데. 나이로 치면 나하고 동갑이 더라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동기인가 싶어서 집에 찾아 갔어. 그랬더니 오빠가 내 한해 후배야. 나이는 같아도 후배였어. 지금은 처형이 됐지. 그때는 태종대를 많이 가고 영화 보러는 보림극장을 갔어. 교통부 쪽에 극장이 세 개나 있었어. 삼성, 보림, 삼일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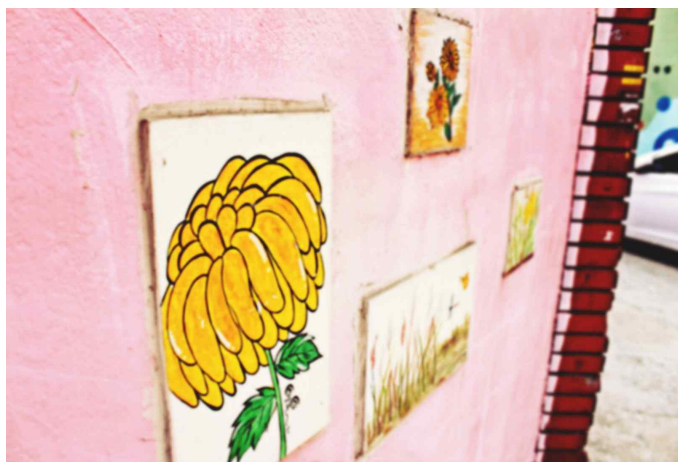
김성한 : 70년대에 새마을운동보다 앞서가지고 4H클럽이 있었어. 농어촌 잘살기 운동이라고 젊은 청년들을 동별로 조직해서 단체 생활하는 법, 회의 진행 하는 법, 농사 짓는 법, 가축 기르는 법 그런 걸 배웠거든. 그 운동을 잘해가지고 68년도에 청와대를 들어갔어. 경진대회를 해서 잘하면 전국적으로 청와대 올라가가지고 수원에 서울대학교 농과대 거기서 몇 날 며칠 경진대회

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대통령도 직접 보고 그 당시에 스푼하고 포크 이것도 커해가지고 흠쳐 오고 그랬었지. 촌에서 올라가가 신기하지, 별천지에 온 것 같았는데.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사진은 카메라 필름을 압수하데. 당시에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아서 지역적인 교류가 없잖아. 또 지역 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4H클럽 할 적에는 호남사람 경남사람 한 방에 함숙시키고 그랬어. 친해지라고.

강기숙 : 화성에서 일할 때 우리 라인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지금 신랑을 좋아했는데 제가 억어 줄려고 하니까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나였던 거야.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옛날에 뭐 없어도 결혼할 때는 또 보잖아요. 제가 만딸이니까 우리 신랑 사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부모님 안계시고 형님이 배를 탔는데 뱃놈 집이라고 반대가 억수로 심했어요. 그래서 못 만나게 하니까 24살에 우리 첫째가 생겨서 결혼했어요. 한진중공업에 다니는 친척오빠가 있는데 오빠한테 좀 도와줘 해서 허락을 받았지. 그때 신랑이랑 버스 가는 길로 걸어 다니면서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버스 탄 사람들에게 들켜서 사귀는 거 걸리고 그랬어요.

박은옥 : 우리 친정이 농사를 지었는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아를 열 명도 넘게 낳았어요. 근데 아들은 자꾸 죽고 딸들은 인자 안 죽고 그러니까 오빠 한 분만 명을 이은 거지. 그때는 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다 아기 때 홍역으로 죽었다고 하네. 나도 원래 쌍둥이였는데 낳다가 하나는 죽었다하데. 그래서 어릴 때 나보고 쌍둥, 쌍태 이랬다. 이름도 옛날에는 전부 순자, 옥자 그랬거든. 그래도 내 이름은 옛날 이름치고는 괜찮다. 우리

7남매가 다 노래를 그렇게 잘하거든. 노래가 자신이
있어,



감전동 구술자료 해제

차철욱(부산대)

1) 부산 지방사 연구와 방법론적 전환

(1) 부산 지방사 연구와 한계

부산 지방사 연구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962년 12월 부산시의 『항도부산』 발행이 중요한 계기였다. 1960년대 부산지방사 연구는 부산 근대의 기원을 보여주는 경제와 근대시설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사로는 공업, 수산업, 무역 등 1960년대 당시 부산 경제와 관련성이 많았던 분야의 연구가 중심이었다. 근대 시설과 관련한 매축사업, 서양식 건축, 종교 등 당시 잔존하고 있던 시설의 정리 수준이었다. 이 시대 연구는 당시 존재하던 자료를 토대로 한 정리단계였지, 구체적인 의미부여는 미약했다. 있었다면 식민지 수탈의 유산이라는 정도였을 뿐, 수탈의 양상을 구체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1970, 80년대 연구의 주류는 3.1운동이나 박기종, 윤상은, 안희제와 같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였다. 이런 분위기는 당시 국가사 연구에서 일제의 수탈론과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안된 민족주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부두노동자의 파업투쟁이나 개항기 관세권 철폐투쟁 등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부산지배와 관련해 수탈성을 강조하는 논리의 사례로 추가되었다.

부산지방사 연구의 분위기가 변하는 계기는 1990년대부터였다. 1980년대 말 근대사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연구자들이 증가

했고, 여기에 1994년 부경역사연구소의 창립은 지방사 연구 분위기를 촉진시켰다. 이 시기 가장 특징적인 연구 분위기는 기존 민족해방운동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주제가 연구 대상이 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행하는 ‘민중사학’의 분위기에 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역사의 주체를 지배자에서 민중으로 돌려 세움으로써 이들에게서 역사적인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특히 근대사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주류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던 사회주의자 계열의 활동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의 영향을 받은 대중운동 즉 노동운동, 청년학생운동, 여성운동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게다가 대중운동의 경제적 기반을 분석해야 한다는 이론적 필요성에서 공업, 금융, 조선인 자본가 등에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 성과는 그동안 주류학계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특히 부산에서 진행된 이들의 연구는 부산이라는 특정 지방의 프리즘을 통해 들여다봤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

이 시기 연구는 ‘민중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었다. 민중사학에 기반했지만, 식민지시대를 수탈론의 입장에서, 저항의 역사로 바라보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부산은 일본인이 만든 도시였고,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피해를 가장 크게 보았던 곳이어서 저항 또한 어느 지방 못지않게 거셌다는 논리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저항의 도시는 1979년 부마항쟁, 1987년 6월항쟁으로 연결되는 저항운동의 역사적 근원을 찾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런 연구의 분위기는 민중의 혁명성을 강조하고, 민중 주도의 권력을 창출하자는 또 다른 국가사의 한 방향이었을 뿐 진정으로 부산의 시각에서 고민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부산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패턴이 등장했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해, 조선인들이 저항하고 수탈당하는 모습만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지배자에 위치했던 일본인들에 관심을 가졌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경역사연구소, 동아대학교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 연구팀 등에서 일제시기 일본인 사회, 일제시기 『부산일보』를 통해본 지역사회, 경부선·관부연락선 개통 100년 학술회의, 근대 박람회 개최 100년을 맞이해 박람회 관련 학술대회를 마련하였다. 일본인 사회의 분석을 통해 부산의 역사에 조선인의 저항만이 아닌 부산에서 살던 일본인들의 생활도 포함시켜, 부산을 근대도시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종착점 또한 부산의 근대화가 결국은 일본인들의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데 이르렀다. 이 시기 1980년대부터 유행했던 민중민족주의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거셌지만, 여전히 국가사 서술의 보충으로서 지방사 연구라는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 지방사 연구와 방법론 전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역사학계에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관광산업의 발달은 지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새로운 역사학 연구의 흐름, 즉 기존 거시적인 국가사나 민족사로 환원되지 않는 다원적 역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⁴⁴⁾ 이처럼 지방사 연구의 관심은 역사학계, 지방자치단체, 자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44) 허영란,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 『한국 지역사의 위상과 방법적 가능성의 모색』, 국사편찬위원회, 2017, 6쪽.

지방사 연구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홍보와 상품화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의 소비를 위해 상품을 발굴해야 했기 때문에 지방사 연구에 일정 정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사 연구는 지역 상품화를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었고, 지역정체성 모색으로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사는 특이성, 유일성이 강조되고, 국가 차원의 대표성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았다. 임진왜란, 왜관, 식민도시, 임시수도 등은 이러한 방향에서 부산의 정체성과 관광 상품화에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2년 아시안게임, 2005년 APFC 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부산 방문과 홍보의 필요성에서 지방사 연구는 부산 정체성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사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는 계기는 기존 역사학계가 지향했던 국가사 중심의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서구에서 유행하던 이론들의 수입과 관련이 크다. 그 가운데 신문화사 연구는 역사연구의 방법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된다. 민중사나 ‘밑으로부터의 역사’에 대한 지향, 역사 대중화의 요구, 탈민족, 탈근대의 역사학에 대한 모색 등 한국 역사학계가 직면해 온 현실적 고민들이 역사연구에서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허영란은 ‘문화사적 전환’이라 한다. 신문화사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던 다양한 행위와 현상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 개인적 지역적 경험의 역사화, 기억과 경험을 재현하는 매체, 담론, 표상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흐름이었다.⁴⁵⁾ 즉 제도,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생활세계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관심 대상이었다. 이러한 신문화사 연구는 생

45) 허영란, 「한국 근대사 연구의 ‘문화사적 전환’-역사 대중화, 식민지 근대성, 경험세계의 역사화」, 『민족문화연구』53, 2010.12, 68-69쪽.

활사, 일상사, 민중사, 지방사 등이다.

신문화사 연구의 관심이 개인의 생활세계이기 때문에 생활사나 일상사와 관련된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성사나 미시사, 구술사 연구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를 필요로 한다. 질적연구방법이란 양적연구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인간세계의 많은 현상을 다루는 한 방법이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식을 말한다.⁴⁶⁾ 인류학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질적연구방법은 현지조사이다. 연구기술로서 참여 관찰, 심층면접, 생애사 연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사 연구에서 신문화사 연구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출발과 관련이 있다. 지방은 중앙에 의해 규정되는 행정단위이다. 따라서 중앙과의 관계는 위계적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적인 관계는 끊임없이 지방 내부의 작동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생활하는 삶터는 외부에서 규정하는 체계에 의해 단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물론 지방은 중앙의 지배원리가 중요한 작동원리이겠지만, 그 내부 구성요소들의 관계는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를 항상 용납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대표적으로 지방민, 지방민들이 만드는 사회적 관계, 지방의 자연물 등 다양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또 다른 요소를 만들어 낸다. 이 과정은 결국 지방이라는

46)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18쪽.

하나의 행정단위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행정구역이라는 경계를 무시한 경계를 넘나드는 단위를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의 독자성, 공존과 상호작용이 하나의 단위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방이라 함은 국가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단일한 논리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독자적인 논리도 동시에 공존하는 유기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성과 복잡성이 존재하는 지방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작동하는 현장에서 미시적인 관찰을 하지 않으면 ‘실재하는 지방’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기존의 국가사적인 논리 혹은 동일화 논리로 지방을 해석하는 것은 ‘실재하는 지방’의 다양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방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지방사 연구를 위한 또 다른 방법론의 활용을 가능케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이 지닌 다양성과 복잡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지방’ 연구의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자료가 주요한 연구자료였다. 이 보다 내용이나 인식의 폭을 넓혀준 자료는 신문이나 잡지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자료의 생산 주체는 대부분 국가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지방이나 지방민들의 삶은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 설령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시각에서 서술될 뿐이었다. 이들 자료를 근거로 한 지방사 연구란 ‘실재하는 지방’을 탐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재하는 지방’의 역사를 쓴다는 것은 지방민으로 하여금 지방에 관철되는 국가의 위계를 극복하고 지방의 가치를 재인식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민, 기층민의 역사를 복

원하는 작업은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민의 이야기를 자료로 활용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지방민들이 직접 생산한 자료, 일기나 생활자료, 구술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산 구술사 연구의 동향

(1) 구술사란

구술사 개념은 구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기록관리사가 구술사를 주도한 미국에서는 ‘구술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 내린 반면 역사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피지배층의 구술 자료를 통해 밑으로부터 역사를 쓰는 작업”(톰슨)이라 해서 채록된 구술자료와 이를 활용한 역사쓰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구술이 지니는 특성을 강조한 이탈리아의 포르텔리는 “구술자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이 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화적인 담론”이라 해 구술자와 역사가의 공동작품임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구술자료의 채록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역사쓰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술사를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한국 구술사 연구의 중심 인물인 윤택림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와서 구술자와 역사가가 대화를 통해 쓴 역사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⁷⁾ 서구의 논의나 한국에서의 이해방식도 구술사를 구술자료와 여기에 기반을 둔 역사서술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술사는 구술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생활경험을 채록자(역사연구자)와 상호과정을 거쳐 만들

47) 윤택림, 앞의 책, 48쪽.

어진 공동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구술사는 새로운 역사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구술사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고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자리를 되돌려 줄 수 있다. 문헌자료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었던 부류의 하층민들은 구술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목격한 사실을 기억해냄으로써 새로운 역사쓰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술사는 그동안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거나, 무시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구술사는 기존의 역사쓰기가 지니고 있는 권위주의에 비판하고 도전하는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구술사는 과거 사실을 찾아 헤매는 역사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학자들은 있었던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역사가가 기록한 사실은 과거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가가 추구하는 사실의 복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술사는 미완성의 역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학자에게 구술사는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⁴⁸⁾

그런데 구술사가 과거사실을 밝혀내는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는 주관성을 떠나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구술사는 개인의 사적, 주관적 경험을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드러내는 문화적 재현물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주관성이 객관적 사실 못지않게 중요하다. ‘구술자가 믿고 있는 사

48) 허영란,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12쪽.

실'의 맥락과 의미를 탐구하는 것도 역사 연구가 추구하는 과거 사실에 대한 탐구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구술사는 구술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은 구술자의 경험을 연구자가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구술은 항상 당시의 구술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분, 느낌, 희망, 절망, 가치, 기대 등과 같은 주관적 측면들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좌절된, 폭력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술자들에게 인터뷰는 그 경험과 함께 억눌렸던 잠재된 감정까지 발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⁴⁹⁾ 따라서 구술사는 단순히 역사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 보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구술사는 연구자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구술사는 구술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했다. 구술의 과정은 구술자만이 구술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공감 속에서 진행된다. 연구자의 요구가 구술자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구술자의 삶이 연구자로 하여금 인간 삶의 다양함에 눈뜨게 만든다. 구술과정에서 연구자 또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2) 부산 구술사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구술사 연구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1980년대 “뿌리깊은나무” 시리즈를 출발로 보고 있다. 이후 1980, 90년대 한국현대사의 중요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증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구술작업은

49) 윤택림, 구술사 인터뷰와 상흔: 진실 찾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30, 385쪽.

1989년 제주 4.3연구소의 4.3관련 구술자료집의 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무렵에는 구술자료가 역사학 연구자료로 활용되지 않고,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규명 차원에서의 자료수집이었다. 2000년대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가기관의 구술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구술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 무렵 지방사 연구의 활성화는 구술사업의 필요성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09년 한국구술사학회가 탄생하였다.

한편 부산에서는 구술사 연구가 중앙과 비교하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부산의 학문적 토대가 구술사 관련 연구자 양산을 가로 막았다. 부산 경남지역의 대학에는 현장조사와 참여관찰을 주요 방법론으로 하는 학문영역인 인류학 관련 학과가 없었다. 사회학에서 일상사를 연구하는 그룹에서 부분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었을 뿐이었다. 2000년을 전후 해 인류학 혹은 민속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부산에 기반을 잡으면서 부분적으로 구술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부산학 발전을 위한 분위기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국책사업인 인문한국(HK)지원사업은 대학 내 연구소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2007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로컬리티 인문학’, 2008년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등은 부산학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언어학, 문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구술자료의 수집과 이를 활용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단에서는 피란민, 해녀, 화교, 사할린 영주 귀국자, 산동네, 마을 등 그동안 부산학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주제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대학 내 연구 분위기의 변화와 함께 2009년 문학,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언어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 출신자들이 ‘부산구술사연구회’를 조직하였다. 각자 부분적으로 구술사를 방법론으로 개인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었거나 이 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한 연구자들이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연구회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구술조사 방법을 공유하면서 사례조사를 위해 부산시 서구 아미동을 첫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창기에는 주로 회원 모두가 함께 다니면서 마을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구술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숙해진 이후에는 팀별로 공간을 나누어 구술작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연구원 사이에는 구술작업의 경험에 다양한 편차가 있었다. 그러한 차이가 성과물을 생산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2011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離鄉과 경계의 땅 부산의 아미동 아미동 사람들』을 출판하였다. 이후 연구회는 부산 임시수도기념관이 기획한 『우암동 사람들의 공간과 삶』(2014), 『낮선 이방인의 땅 캠프하야리아』(2015) 사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2010년은 부산학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 추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2011년부터 10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산복도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들의 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산시 도시창조국, 시사편찬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구술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이처럼 부산의 구술사는 2010년을 전후한 대학 내 연구 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구술사

료 수집에 일정 정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이 진행된 부산의 구술자료 수집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구술 조사자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연구성과 발표에 매달려 일회성 조사가 이루어질 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술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구술자료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술자료를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못해 후속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⁵⁰⁾

3) 감전동 사람들의 생활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甘田洞)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때 동래군 사상면의 한 동리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전의 감동(甘洞), 서전동(西田洞), 좌면 류도동(柳島洞) 일부를 감전동이라 하였다. 감동이나 서전동은 18, 19세기 독립된 마을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전동은 낙동강 하류 하구였던 사상지역의 내륙 쪽으로 형성된 모래톱 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감전동에는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었는데, 서쪽 강변쪽에 있었던 국매섬[國麥島] 마을, 1921년 경부선 사상역 설치와 함께 만들어진 소위 ‘뽕푸라마치’, 감전동 서남쪽 엄궁동과 접하고 있는 장인도마을이 있었다. 감전동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갈대가 자라고, 이곳에 토사가 퇴적되고, 논밭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삶터로 변한 곳이다.⁵¹⁾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곳 사람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낙동강에서 채취하는 어패류와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하였

50) 배은희,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9-50쪽.

51) 부산광역시,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2010, 172쪽.

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뽕푸라마치 주변 팔경대 회산 부근에 미군 고사포 부대가 위치하면서 이 주변은 유흥가로 변하였다. 이후 이곳은 사상공단이 조성되면서 공장 종업원을 상대로 한 사창가로 변질되었다.⁵²⁾

감전동은 1963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부산시로 편입되었다. 1975년 북구출장소가 개소하면서 여기에 편입되었다가 1978년 북구, 1995년 사상구가 설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전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공단인 사상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사상구청, 북부산세무서 등 관공서와 청과물을 취급하는 새벽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서고속도로와 부마고속도로의 연결지점이어서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감전동의 공간적 특성을 보면 자연 지리적으로는 낙동강이 인접해 있고, 시외곽과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공단일 것이다. 사상에 공업시설의 존재는 해방 후 설립되는 신라고무공업사와 신흥상공사 2개의 신발회사를 시초로 보고 있다. 1950년대 말 직물공장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공업화는 진행되지 못했다. 1960년대 들어 부산의 공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체계적인 공단 조성이 필요하였다. 사상공단은 1968년 4개년 계획으로 착공하였다. 사업 총 면적은 257만 2천 평이며, 총 공사비 22억 8천 9백만원이었다. 이 중 주거지역은 14만 7천 4백평, 상업지역 11만 5천 7백 평, 가로 50만평, 공공용지 13만 6천 평 및 전용공업지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사업이 순조롭지 못해 준공기한은 1971년에서 1974년으로 연기되었다. 1989년 12월 현재 사상공단의 면적은 974m², 기업체 2,619

52) 부산광역시, 같은 책, 171-189쪽.

개 업체(부산시 전체의 42.3%)였다.⁵³⁾

사상공단은 준공 이후 공장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여 1981년 현재 총 1,532개 공장에 112,924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게 되었다. 이 규모는 당시 부산 전체의 약 32.8%였다. 1983년에는 공장 수 부산의 36.6%, 노동자 수 부산의 34.04%였다. 업종별로는 섬유공업 공장수의 27.53%, 노동자 15.97%를 점하였고, 화학공업이 44.65%와 47.57%를 각각 점하였다. 사상공단은 화학공업이 특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계공업의 비중도 높아 공장 수에서는 44.13%, 노동자 수에서는 40.94%를 점하고 있었다.⁵⁴⁾

하지만 사상공단은 지형적인 조건과 공업 구조상 화학공업이 많고, 또 영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1990년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부산시는 공업재배치계획을 세워 사상공단을 정비하려고 하였다. 이 계획의 골격은 사상공단 내 공장을 시의 분산 재배치하고, 대신 이 지역에 고부가가치 도시형 공업을 유치하고 유통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⁵⁵⁾

하지만 이 정비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첨단 산업중심의 공업지역으로 변신하지 못했고, 환경개선 또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04년 3월 감전동 유독가스 사건⁵⁶⁾은 사상공단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53) 부산직할시 북구청, 『부산북구향토지』, 1991, 571-572쪽.

54) 김대래, 『부사의 기업과 경제』, 도서출판 세화, 2013, 310-311쪽.

55) 김대래, 같은 책, 318쪽.

56) 2004년 3월 8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 다세대 주택 지역에 유독가스 유출로 주민 십여 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

감전동 인구변화

		가구	인구		
			총계	남자	여자
1970		1,009	4,560	2,255	2,305
1973		1,817	8,318	4,213	4,105
1976		4,274	20,601	10,610	9,911
1979	1동	3,418	15,897	8,346	7,551
	2동	3,231	15,372	7,848	7,524
1982	1동	3,903	18,216	8,993	9,223
	2동	3,786	16,766	8,338	8,428
1986	1동	4,527	19,444	9,772	9,672
	2동	3,982	16,872	8,438	8,434
1989	1동	4,774	20,075	9,961	10,114
	2동	3,837	15,115	7,484	7,631
1991	1동	5,151	18,810	9,910	8,900
	2동	3,886	14,147	7,371	6,776
1993	1동	4,694	16,295(41)	8,574	7,721
	2동	3,452	11,831(4)	6,161	5,670
1995	1동	4,451	14,473(23)	9,820	9,581
	2동	3,232	10,410(16)	11,491	11,117
1997	1동	4,276	12,901(359)	6,817	6,084
	2동	3,118	9,486(90)	4,949	4,537
1999	1동	3,684	11,701(287)	6,143	5,558
	2동	3,053	9,203(103)	4,799	4,404
2015		7,227	15,998(524)	8,598	7,400

- 자료 : 부산시, 『부산통계연보』, 각 연도판.
- 참고 : 1979년 8월 8일 감전1동과 감전2동 분동
2008년 1월 1일 통폐합. ()안은 외국인 수.

감전동의 환경 변화와 관련한 인구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사상공단이 준공되기 전 1970년 4,500여 명이었던 인구는 1974년 공단 준공 이후 1976년에는 20,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입주공장의 증가와 여기에 필요한 노동자 증가로 감전동은 1979년 1, 2동으로 분동하였다. 인구증가는 1980년대 말 3만 5천 명을 상회하였으나, 사상공단 정비계획이 진행되는 1990년대에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 결과 2008년에는 다시 분동되었던 감전동이 하나의 동으로 합쳐졌고, 2015년 현재 1만 6천 명 정도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이지만, 19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5백 여명의 외국인노동자가 감전동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의 공업구조와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 구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4) 구술자료를 통해 본 생활

(1) 감전동에서 살게 된 사람

성명	출생년도	출생지역	직업	비고
배영희	1946년	감전동		토박이
정정자	1966년	경남 진주	벽지, 장판	1977년 경 이주
윤옥자	1940년	전남 여수	연탄소매업	1960년대 이주
김성순	1955년	전남 무안	방앗간	1986년 무렵 이주
조정숙	1939년	경남 김해	재첩	1958년 이주
설정숙	1956년	경남 함안	새벽시장 식당	1968년 이주
김종현	1956년	경남 밀양	세탁소	1989년 이주
김성한	1949년	감전동	새마을금고 이사	토박이
강기숙	1967년	경북 안동	화성고무 노동자	1983년 이주
박은옥	1954년	경남 창원	새벽시장 상인	1980년대 말 이주

본 자료집의 구술자는 총 10명이다. 남자 3명, 여자 7명이다. 출생연도는 1930년대 생에서 1960년대 생까지 이 지역 변화의 시대인 1970-80년대를 경험한 자들이다. 감전동에서 태어난 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이주해 왔다. 인근의 경남은 물론 전남 여수와 목포, 경북 안동 출신도 포함되어 있다. 이주시기 또한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있다. 한국현대사에서 농촌인구의 급속한 도시로의 집중이 진행되는 경향과 일치한다.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 왔으나 조정숙은 인근 김해 출신으로 이 마을로 시집오면서 정착하였다. 이주 방식 또한 고향에서 곧바로 감전동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타 지역, 혹은 부산 내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감전동으로 이주하였다. 생계수단 마련과 정착이 연결되어 있었다.

감전동에서 태어난 사람은 배영희와 김성한이다. 배영희는 조부 때 인근의 주례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와 낙동강에서 채취한 갈대를 이용해 빗자루를 만들어 살았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인 서전회를 조직하여 당산제를 책임지고 있다. 감전동에서 대대로 살아온 김성한은 많은 농토를 기반으로 지역 유지로 살아왔다. 그는 4H클럽을 조직했고,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다.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의 소개로 감전동에 정착하였다. 친인척 가운데 부산이나 감전동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들의 안내가 중요하였다. 대체로 농사를 짓던 이주민들은 도시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벽지/장판업, 반찬가게(방앗간), 식당, 세탁소, 연탄판매, 노동자 등 다양하였다. 대부분 사상공단 조성과 인구증가로 인해 수요가 발생한 일거리였다. 인구증가는 세대수 증가를 가져왔는데, 토

지를 많이 소유했던 김성환은 다세대 주택을 지어 임대업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인구증가, 다세대 증가 경향에 따라 정정자는 도배와 장판업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윤옥자는 남편이 선박사고로 불구가 되자 사촌 오빠의 추천으로 1970년대 주요 연료였던 연탄장사를 했다. 하지만 여자의 힘으로 무거운 연탄을 고르지 못한 비포장 길 위에서 리어카로 끌어야 했고, 집게로 집어 운반해야 했다. 김성순은 마을 시장에서 고추와 참기름 장사를 했다. 공단 노동자들이 많을 때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었다고 한다. 조정숙은 낙동강에서 고깃배 타던 남편에게 시집와서 재첩을 채취해 삶아 팔면서 평생을 살았다. 설정숙은 결혼 전에는 부모님을 따라 감전동에 들어 와 국제화학에서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결혼 후 슈퍼와 식당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김종현은 경남 밀양에서 상고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와서 양복 제단 일을 하다가 세탁업을 배워 세탁소 운영을 해 오고 있다. 강기숙은 안동에서 이주해 와 고무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도 다니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박은옥은 공단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새벽시장 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이주해 온 감전동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상공단 조성과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업을 찾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교육 시켰다.

(2) 낙동강과 어울려 살다

감전동의 자연지형은 낙동강과 그 지류를 염두에 두고 관찰해야 한다. 낙동강, 갈대, 이를 간척해서 만든 농지가 이 마을 사람들의 전통적인 삶의 조건이었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김성환의 구술에 의하면 공단이 형성되기 전 마을에는 하천과 대나무 숲이 많았다고 한다. 당산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가 울창하여 여

우가 울어서 겁이 났다고 한다. 이 무렵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강에서 채취하는 재첩, 갈대를 활용한 빗자루와 밭을 생산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름 방학이 되면 낙동강둑이 놀이터였고, 해수욕과 먹을 감으면서 놀았다고 한다. 강이 가깝다 보니 여름 홍수철에는 침수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빈약하던 시절에 우물이 귀하였다.

① 재첩 채취

부산에서 생활하는 나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낙동강변은 재첩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아침이면 마을을 돌아다니는 재첩을 파는 아주머니로부터 시원한 재첩 한번 사 먹어보지 않은 부산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첩과 관련해서는 조정숙의 구술이 구체적이다. 조정숙은 1958년 결혼 후 1960년 시집인 감전동으로 왔는데, 농사로는 생활하기가 곤란하자 재첩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했다. 재첩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촌계 허가를 얻어야 했고, 배를 만들어서 채취하였다. 배도 처음에는 돛을 이용했으나 점차 경운기 엔진을 이용하였다. 재첩 채취는 끌이라는 도구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차 ‘고데구리’라고 강바닥을 끄는 도구를 이용했는데, 이 방법 때문에 재첩이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채취한 재첩은 채에 걸러 굵은 것은 30kg 씩 자루에 담아 중간상인에게 넘겨 수출하였고, 작은 것은 국 장사에게 팔았다. 이 재첩을 받아 국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감전동에 많았다고 한다.

재첩을 채취하는 시기는 음력 4월, 즉 보리가 필 무렵이면 알이 굵고 제일 좋다고 한다. 하루 중 시간은 밤 1-2시에 조업을 시작해야 했다. 아침에 상인에게 넘겨야 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물 때를 맞춰 조업해야 했다. 한편 감전동 사람들은 재첩을 양식

하기도 했다. 채취한 재첩 가운데 팔고 남은 것들을 물에 다시 넣어 양식도 하였다. 홍수가 발생할 때 유실되기도 했다.

어민이 재첩을 잡으면 중간상인(이 마을 사람들은 줄여서 ‘중상’으로 불렀음)에게 넘기고 중간상인이 수출을 하게 된다. 조정숙 할머니도 중간상인을 했는데, 약 30% 정도 이익을 봤다고 한다.

구술한 주민들 가운데는 사상공단과 하구둑 건설을 재첩 멸종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구둑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그다지 충분하지 않아 낙동강 하구 주민들은 많이 저항했으나, 감전동 주민들은 데모하러 가지 않았다는 구술이 많다. 특히 조정숙 할머니는 남편이 통장인 이유로 데모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

② 재첩국 제조과정

재첩국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정숙이 상세하게 구술하였다. 먼저 빈 솥에 불을 넣어 씻어 내고, 다음에 물에 담겨 펄을 제거한 재첩을 솥에 넣고 불을 피운다. 이 때는 물을 붓지 않고 그냥 삶는다. 그러면 조개에서 국이 나와 올라오면 조개를 짬는다. 이때 나오는 국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너 번 저어가면서 물을 몇 바가지 붓고 끓인다. 이렇게 되면 재첩국이 완성된다. 이때 국이 가장 맛있다고 한다. 뽕양고 색깔도 좋아 보약 같았다고 한다. 설정숙의 구술에 의하면 처음 조개만으로 끓였을 때는 국물이 너무 진하고 짭쓰레 했지만 약삼아 먹었다고 한다. 간에 좋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렇게 재첩국이 완성되면 시내로 팔러 나갔다. 조정숙은 가까운 뽕뿌라마치, 김해서 오는 동신버스를 타고 연산동, 동래, 좌천동, 범일동, 초량 등으로 다녔다. 산동네도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녔다. 목소리만 들어도 소비자들이 알아차렸다고 한다. 조정숙은 스텐 그릇 한 그릇에 5백원에 팔았다고 기억한다. 조정숙은 재첩국 맛에 자신이 있었다. 자기의 목소리만 기다리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한다. 설정숙의 어머니는 감전시장이나 덕포, 사상으로 양동이를 이고 다니면서 팔았다고 한다.

③ 갈대 빗자루

낙동강에서 자라는 갈대를 소재로 빗자루와 해수욕장 그늘막용 발, 김제조용 발을 만들기도 하고, 이를 엮어서 담장(조정숙은 ‘바제’라고 했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연료가 없을 때는 연료로도 활용했다. 갈대와 관련해서는 아버지 대부터 생계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배영희의 구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갈대 빗자루는 갈대 꽃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갈꽃이라 했는데, 노화(蘆花)라고도 불렀다. 갈대꽃은 양력 8월 쯤 피는데 늦어도 8월 15일까지 뽑아야 했다. 특히 갈꽃은 베는 것이 아니라 책을 뽑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 작업은 장화신고, 작업복 입고 펄과 갈대가 섞여있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했다. 남녀 처녀 총각이 갈꽃을 뽑아 오면 배영희 집에서 한 묶음에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샀다고 한다. 갈꽃을 손질하고 약 일주일 정도 말려서 빗자루를 만들었다. 과거에는 실에다 염색을 해서 예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빗자루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판매를 담당했다. 빗자루 하나 만드는 데 두 세 시간 걸렸다고 한다. 어머니는 주로 조방 앞에 가서 팔았다고 한다. 빗자루 하나의 가격은 30원에서 50원 정도로 기억한다. 당시 쌀 한 되가 백 오십원 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생계수단으로 괜찮았던 것 같다.

④ 갈대 밭

그리고 갈대로 밭을 만들었다고 한다. 밭의 재료는 꽃이 아니라 대였는데, 마을사람들이 집집마다 한명씩 나와 하단 아래쪽까지 내려가 며칠 씩 숙식하면서 갈대를 채취해 옮겨왔다. 갈대를 베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팔아서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갈대 채취를 위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밭은 김 제조용과 해수욕장 그늘막 용으로 팔려 나갔다. 배영희 구슬에는 김 제조용이 거론되지 않았으나 또 다른 토박이인 김성한은 여기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편 밭은 여름에 해수욕장 그늘막으로 팔려나갔다고 한다. 여름이면 밭을 들고 해운대, 광안리, 송도를 다니면서 팔았다. 오늘날처럼 해수욕장에 파라솔이 없을 때 해수욕장 필수 도구였다.

⑤ 갈게(蟹)

한편 낙동강 갈대에는 갈게(蟹)가 많이 서식하였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갈기’라고도 했다. 크기는 손가락 두마디 정도였다고 한다. 갈게는 소금에 절여 젓갈 형식으로 소비하였다. 낙동강 하류에서 생활한 어민들은 이 갈게젓으로 원동, 물금, 삼랑진 등 내륙사람들과 곡식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3) 사상공단 조성과 마을 변화

① 공단 조성

감전동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68년 착공하여 1974년 준공된 사상공단이다. 조부 때 이주해 온 배영희는 공단 조성할 때 일을 하러다녔다고 한다. 지계를 지고, 짐을 담을 수 있는 바지계를 올려 자갈과 모래, 짚을 퍼다 날랐다. 하루 일당이 8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일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

고 전표를 받았다. 한 달에 한번 전표를 모아 가져가면 한꺼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당시 젊었던 배영희는 용돈으로 쓰기 위해 일당으로 받은 전표를 10% 할인해 현금화하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마을에는 전표를 할인하는 장사꾼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공단조성에 일하러 다니면서 그동안 해 오던 갈대를 재료로 하는 빗자루 만드는 일은 그만두었다.

사상공단에 입주해 있던 공장 가운데 구슬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공장은 국제상사가 가장 많았고, 아신통상, 화승, 삼원화학, 신일금속, 일송산업 등이다.

② 사상공단 노동자

공단 준공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공단에 입주한 공장에 취직하였다. 하지만 배영희는 국제상사를 다녔는데, 관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해 줬고 그 담배를 한 대 푼고 오니까네 뭐 이 자숙 저 자숙 해 줬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반장되는 사람하고 먹살 잡고 싸움도 하고 이라고 그 한 일주일 땡기다가 더러버가 못 하겠다카고 마 나오고” 말았다고 한다. 배영희는 당시 국제상사 반장은 무식했으며, 반장이라는 사람이 “임마 점마 하고 이 새끼 저 새끼”하는 소리에 기분 나빴다고 한다. 아마 그동안 생활했던 방식과 근대식 작업관리 방식의 괴리에서 오는 부적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영희와는 달리 감전동으로 이주해 온 정정자, 설정숙, 강기숙은 사상공단 공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로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공장 취업은 70년대 말 80년대였는데, 대부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취업이 이루어졌다.

공장 노동자 경험을 가장 많이 구술한 사람은 강기숙이다. 그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하여 공부를

더 할 수 없자 친척 언니의 소개로 1983년 감전동으로 이주해 와 신발공장 화승에 취직했다. 당시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학교에 다닐 수 있었는데, 강기숙은 효성여상에서 학업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었는데, 최소한만 남기고 고향으로 보냈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친구와 방을 구해 자치를 했는데, 겨울에도 불을 넣지 않은 냉방에서 살았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 가서 수업을 마친 후 다시 회사로 와서 일을 했다. 돈도 더 벌 수 있고, 야식을 주기 때문에 한 끼를 아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라면 야식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당시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한다. 강기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고향 부모님께 과수원을 사 주기도 했다. 동생들 학비도 자신이 담당한 몫이었다.

처음 공장에서 ‘시다(보조)’ 일을 했다. 신발에 붙은 실밥을 따는 일, 제단, 열처리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좀 경력이 쌓이면 신발 도면 그리기, 미싱, 포장 업무를 하였다. 주로 운동화를 만드는 일이었다. 노동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 잔업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였다. 철야는 새벽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회사에서 점심, 저녁을 줬는데 참으로 주는 라면이 정말 맛있었고, 회사 식당의 반찬으로는 오텩이 가장 맛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노동 중 라인이 멈추면 10, 20분 동안 잠깐 잠을 잘 수도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빨리 먹고 좀 잘 수 있었다.

강기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관한 기억도 구술하였다. 월급을 올려주지 않고, 보너스도 잘 주지 않아서 데모했다고 기억한다. 당시 신랑이 제조과에 근무하고 있어서 데모를 못하게 했는데, 안하게 되면 눈치도 주고 따돌림도 받았다고 한다.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지 않는다든지, 노동할 때 일감을 한꺼번에 몰아 쉼 버린다든지 등 이런 이유로 데모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능동적인 파업에 참여하게 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노동자들끼리 사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든지, 놀러 다닌다든지 이런 일도 잘 없었다고 한다. 너무 바빠서.

③ 마을 풍경의 변화

공단이 조성되면서 감전동은 농업을 주로 하던 농촌마을에서 공단과 상업지역으로 변하였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김성한은 많은 농토에서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임대업을 시작하였다. 호남 사람들이 많을 때 19칸을 임대하기도 했다고 한다. 해남군 가학 사람 한 명이 입주하자 이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같은 동네 사람들만 입주했다고 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으로 개조하였다. 한 집에 다세대가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2층 주택의 경우 1층에 방을 4-5개 만들고, 2층에는 주인들이 살았다. 한 가구가 생활하는 공간은 대체로 3평 정도였다. 김성순은 다섯 식구가 한 집에 살지 못하고 옆집에 방 한 칸을 빌려 가족이 따로 따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많은 세대가 들어가게 집을 짓다보니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많았다.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하고, 들고 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업종도 호황을 누렸다. 정정자가 결혼 후 시작한 도배/장판업이 대표적이다.

공장이 입주하고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감전동 내에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김성순은 고춧가루 빵고, 참기름을 짜는 가게를 운영했다. “장사하기가 바빠 가지고 (아침 밥을) 못 묵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에는 노점상들도 많았다. 시장통은 오이나 과일을 파는 리어카들로 들어찼다.

정정자가 감전동에 이주해 올 무렵 집 근처에 봉제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부모님들은 노동자를 상대로 슈퍼를 했다. 봉제공장 덕분에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담배 사는 손님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설정숙은 1980년대 초 공장 공단 내에서 식당을 하였다. 신발 공장 노동자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한 그릇에 600원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장 단위로 장기간 밥을 먹고는 밥 값을 갚지 않고 도망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④ 공단의 나쁜 기억

사상공단 내 공장에서 노동이 모두에게 욕망을 채워준 것은 아니었다. 남편이 사고로 다리를 잃고, 연탄배달을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스텐공장에 다니면서 손을 다친 윤옥자에게 공단은 원망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깨끗한 낙동강을 근거로 살면서 재첩을 채취해 생활했던 조정숙에게 공단은 낙동강을 죽여버리는 주범이었다. 조정숙에게 가장 나쁜 공장은 국제상사였다. 부산과 한국 근대화를 주도했던 국제상사가 감전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공해공장이었다. 재첩만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썩도 다 죽어빠고... 시커먼 물이 막 내려오이 조개도 저장해 놓으면 다 죽어비리. 국제상사 이거 바람에”라고 조정숙은 원망한다.

물만이 아니었다. 공해 공장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았다. 김성환은 자기 집에 있는 사철나무가 말라죽은 것을 사례로 감전동의

공해가 심각했음을 말한다. 그리고 2004년 유독가스 유출도 거론하고 있다. 오히려 공장이 줄어든 지금이 공기가 엄청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4) 마을 주민의 작은 이야기

① 여성으로 살아온 주민

사상공단 조성을 계기로 이주해 온 여성들에게 감전동은 어떤 공간이었을까. 이주 전후 여성들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부장적인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감전동 주민들의 구술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결혼이나 교육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결혼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반대가 많았다. 정정자의 부모님은 큰집 사촌언니가 시집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결혼을 반대하였다. 경북 안동 출신 강기숙은 남편 형님이 배를 타는 사람이라 ‘뱃놈 집에는 안 보낸다’는 논리였다. 창원 부잣집 딸이었던 박은옥은 사촌 언니의 중매로 억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 무렵 결혼은 당사자들의 생각보다 가족들의 동의가 더 중요하였다. 결혼 생활에서 여성들의 고통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전남 여수로 시집갔던 윤옥자는 딸 네 명을 낳았다고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교육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여자이기 때문에 많이 배울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구술자료집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부장적인 질서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욕망을 충족시켰다. 강기숙처럼 어려서 공장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벌었던 많

은 돈을 시골 부모님께 송금한다든지, 동생들 학비로 충당하는 모습은 여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가부장적인 질서의 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과 함께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② 연애시절 이야기

마을 사람들에게 연애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다녔던 장소는 오랜 추억으로 남아있다. 배영희는 낙동강을 가장 먼저 기억했다. 강독을 따라 걷기도 하고, 강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편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설정숙은 동신버스를 타고 보림극장에 남진, 나훈아 쏘를 보러 다닌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나팔바지 입고 남포동 부영극장, 서면 대화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을숙도, 태종대, 금강원, 성지곡수원지도 데이트나 놀러 다니던 공간이었다. 김종헌은 범일동 대표 영화관인 보림극장, 삼성극장, 삼일극장을 위치까지도 지금 기억하고 있다.

③ 뽕뿌라마치

뽕뿌라마치는 1921년 경부선 사상역 설치와 함께 만들어졌는데, 1980년대까지 부산에서 유명한 유흥가의 한 곳이었다. 이 장소와 관련한 이미지 또한 세대별, 남녀별, 직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배영희는 뽕뿌라마치 인근의 자연지형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사상역 아래쪽으로 센텀병원이 위치한 곳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진주한 포부대가 있었고, 여기서 사상역 방향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벼락산이 위치했다고 한다. 이 산들을 모두

없애고 도로가 만들어졌다고 기억한다. 뽀뿌라마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다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밋게 놀고 온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와 같은 표현에서 본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어렸을 때 뽀뿌라마치를 어린이 접근 금지구역이었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대답한다.

또 다른 토박이인 김성한은 미군부대와 관련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토종 뽀뿌라가 많은 곳에 술집들이 있었는데, 미군이 주둔하면서 양공주가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곳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억하는데, 경부선 철도공사 때 주막이 등장한 것을 시작이라 생각한다. 한국전쟁 때 양공주가 많지는 않았고, 공단이 들어서면서 지금 기억되는 흥등가로 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1970년대 말 진주에서 이주해 온 정정자의 눈에는 뽀뿌라마치가 달리 보였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공간이 다르다는 생각부터 하였다. “거는 2동인데 여는 1동이고”라는 표현에서 공간적인 구분이 명확하고 자신들의 삶터와 관계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그곳을 다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갔겠쥬”라고 해서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공간임을 반복한다. 교육분위기도 좋지 못했고, 미성년자의 출입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재첩을 채취해 국을 만들어 팔았던 조정숙에게 뽀뿌라마치는 동신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기 위한 교통요지였다. 산이 있었다는 기억, 사상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정이나 술집이 많았고, 아가씨들도 많았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질문에는 박정희대통령 지나가는 것을 봤다느니, 재첩 실은 리어커를 끌고 다녔다느니 해서 면담자의 질문을 회피해 버린다.

1968년 경남 함안에서 이주해 왔다가 1979년 결혼 후 1980년

대 초반 이곳에 다시 정착한 설정숙의 기억에는 뽕뿌라마치에 산이 있었다는 기억은 없다. 1980년대 풍경을 설명하는데, “뽕뿌라마치 가게에 문 열고 들어가면 아가씨들 안에 있고, 술 값은 한 박스에 얼마 이래 가지고 묵고”라고 답한다. 외부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다.

④ 4H운동, 새마을운동

4H운동은 미국에서 출발해 1947년 우리나라 농촌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들어온 청소년 운동이다. 한국근대화 시기 농촌에서 생활했던 많은 청년들은 한번쯤 경험해 본 활동이다. 감전동에서도 새마을운동에 앞서 4H운동이 시작되었다. 토박이인 김성한은 고등학교 졸업 후 마을에서 이 운동에 참여했는데, 단체생활하는 법, 회의진행하는 법, 농사짓는 법, 가축기르는 법 등을 배웠다고 기억한다. 당시로서는 가장 큰 사회운동이었다. 이 운동에 열심이었던 김성한은 1968년 청와대에 초청받아 간 경험도 있다. 농촌 지도소와 함께 작물 재배 경진대회를 열어 대표자로 뽑혀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김성한의 눈에 청와대는 신기하고 별천지 같았다. 그래서 식사 때 사용한 스푼과 포크를 훔쳐 오기도 했다.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압수당했다고 한다.

김성한은 4H운동이 교육받는 동안 각 다른 출신자들과 한 방에서 합숙하게 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또 한 달간 교육받으면 돼지새끼라든지 새끼꼬는 기계를 준다든지, 병아리를 주기도 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기억한다.

김성한은 감전동에서 서갑4H구락부를 만들어 오래 동안 회장을 맡았다. 회원은 대략 40, 50명 쯤 된 것으로 기억한다. 김성한이 4H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회의진행 방식을 들었

다. 대체로 마을의 의사결정이 주로 유지나 연장자의 결정에 따랐으나,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안건상정, 의견청취, 동의, 재청 등 회의진행방식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다.

서갑4H구락부는 마을 특산물로 김발 제작이나 낙동강 고수부지에 배추와 무를 재배했다. 특히 낙동강 변은 땅이 기름져 채소 재배에 유리해 경진대회에 나가는 품목이 많았다고 한다. 김성한은 과종 당시부터 메모를 하면서 농사일지를 기록하고, 젊은 청년들을 교육시켰다고 한다. 경진대회 품목은 채소만이 아니라 가축, 여성들이 많이 하는 수예 등이 있었다. 경진대회는 그동안 활동 내용을 기록한 농사일지를 제출해 평가받는 방식이었다. 경진대회는 각 지역별로 특징 있는 재배법이나 사육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감전동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4H 운동은 쇠퇴하고 1978년 4H구락부가 새마을청소년회와 통합을 하게 되었다. 이 청년회는 1981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 합쳐졌다. 이 과정에서 김성한은 새마을지도자를 했다. 지도자는 통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다. 김성한은 4H운동이 농촌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새마을운동은 도시까지를 포함한 더 다양하고 복잡한 운동으로 기억한다.

〈구술자료 편집 후기〉

『감전동 사람들 이야기』를 내며

심현호(경성대)

2010년, 안창마을 구술조사 작업을 시작으로 최근 학장동 구술조사 작업까지 약 9년 동안 많은 마을들을 방문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구술이 시작되면 나와 구술자는 수 없이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당연히 영상이나 텍스트에는 구술자의 말투, 목소리, 웃음, 슬픔이 온전히 남겨져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에 나의 목소리는 없었다.

구술자와의 대화는 구술조사 작업의 완성을 위한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화의 범주는 그 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되었다. 면담자, 즉 나의 역할은 나의 목소리는 숨기고 구술자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기에 나는 더욱 나의 목소리를 숨기고 감춰야 했다.

‘본 보고서는 1차 사료의 성격을 가진다.’

구술 자료가 담긴 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장이다. 구술

자들의 목소리는 지방사, 부산사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없이 귀중한 1차 사료가 된다. 그 소중한 중요한 작업에 나의 민낯의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무척이나 실례가 된다. 그래서 나는 구술자들이 내놓는 진실한 감정에 반응 하였지만 정작 구술자들을 향해 내가 드러내고 싶었던 민낯의 감정은 감히 드러낼 수 없었다.

즉, ‘1차 사료’의 생성에서 나는 철저히 방관자여야 했고 오로지 듣고 기록하고 구술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밖으로 끌어내는 일에 집중해야 했다.

물론 구술자와 대화에서 내가 감정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말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의 절반 정도만 내뱉어야 했고 내가 느낀 슬픔의 삼분의 일 정도만 표현해야 했고 내가 표출하고 싶었던 분노의 사분의 일 정도만 드러내야 했다.

길게는 80년, 짧게는 50~60년 정도의 세월의 무게가 담긴 말이, 목소리가 내려치는 힘은 상당하다. 더구나 슬픔과 서러움의 감정이 태반인 구술자의 말들은 더욱 묵직하게 다가와 나를 두들겼다.

그렇기에 구술자들 앞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다. 그분들을 어쭙잡게 위로하려 했던 말들, 감히 그 서러움과 분노의 크기를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위로랍시

고 전내고 싶었던 말들과 목소리들이 그것이다.

이번 『감전동 사람들 이야기』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담아두었던 나의 말과 목소리를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것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갖은 고생을 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했고 경제성장이라는 일방적인 국가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스스로를 잊고 살아야 했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하는 위로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글을 읽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간절히 전하고픈 우리 세대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산다는 것이다.”

(To remember is to live)

Martin Buber, 1878~1965

감전동 사람들과의 만남

김혜진(경성대)

부산에 살면서 감전동은 가까우면서도 낯선 곳이었다. 감전동 안에는 많은 공장이 있고 새벽시장이 있으며 근처에는 사상터미널이 있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하지만 실제로 감전동은 방문할 일이 없는 그저 다른 마을이었다.

감전동을 찾아 간 것은 2017년 초입이었다. 지금까지 안창마을을 시작으로 우암마을까지 많은 마을들을 다녀왔던 기억에 비추어 감전동은 괴리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전의 마을들은 대부분 산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 비교적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곳들이었다. 그에 비해 감전동은 마을은 존재하였으나 확장의 배경이 현대의 산업화와 관련된 곳이었다. 마을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같은 듯 다른 모습이었다. 마을은 깨끗했고 한가로웠으며 무엇보다도 오르막이 없는 평지였다. 구술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오르막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좁은 골목들을 찾아다니던 것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곳 감전동은 천국이었다. 감전동 사람들을 처음 접한 곳은 당산이 있는 공원이었다. 공원은 주민자치센터 옆에 위치하며 공원 안에는 이층으로 된 노인정이 자리하고 있어 그곳을 찾

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별을 찌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원에 있는 분들은 여느 어르신들이 그렇듯 호기심 가득 말을 건네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호의적이었다. 마치 손자, 손녀를 대하듯 말이다.

구술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계신 노인정이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기관의 협조를 받으면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 마을에 대해 이모저모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마을에 오래 살면서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이다. 감전동 당산나무 옆에 있는 노인정은 1층은 할아버지들이 2층은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2층 할머니들이 계신 공간에 들어서면 순간 온 관심이 우리에게로 쏠린다. ‘누고?, 무슨 일이고? 아이고 좋다....’ 고스톱을 치고 계신 할머니들 옆에서 혼수를 두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질문을 하신다. 행여나 서운하실까 모든 질문에 응대를 하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자면 뭐라도 마시라고 커피를 내어 주신다. 이쯤 되면 노인정은 우리 구술자들의 아지트가 된다. 언제든 들러서 물을 얻어먹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말이다.

노인정을 통해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이 윤옥자 할머니와 조정숙 할머니이다. 구술은 면담자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구술자를 섭외하고 사전 구술을 끝내고 본 구술 약속을 잡고도 구술자의 변심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보통의 대화에서는 이야기가 술술 풀리다가도 구술을 해주십사 요청하면 ‘난

아는 거 하나도 없다.’가 나온다. 감전동은 첫 구술 작업 도중에 쫓겨난 일도 있었다. 구술 초반 여러 어려움을 거쳐 만난 것이 윤옥자 할머니였다. 고스톱을 치는 할머니들 틈에서 마을에 관한 그리고 할머니들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자주보지 못해 보고 싶던 손자처럼 느껴지셨던지 살아온 궤적에 대해 그리고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난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구술을 통해 담고자 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단편적으로나마 개인을 삶을 통해 감전동을, 부산을, 대한민국을 엿볼 수 있었다.

노인정을 통해 구술하게 된 또 다른 분은 조정숙 할머니였다. 재첩에 관해 구술해주실 분을 찾지 못해 푸념차 들른 노인정에서 운명처럼 조정숙 할머니를 만났다. 단정한 차림에 오랜만에 노인정을 들렀다며 너무도 명랑하고 쾌활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70세가 넘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우연한 만남으로 우리는 감전동 사람들의 재첩 이야기를 생생하게 채록할 수 있었고 낙동강과 감전동 사람들의 삶을 이을 수 있었다.

새벽시장에 관한 구술을 채록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했을 때 항상 낮 시간, 사람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한 시간에 새벽시장은 사람의 활동이 뜸하다는 것을 구술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름만으로도 쉽사리 새벽에 장이 서는 곳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편견을 깨지

못한 것이다. 이곳에서 만나 설정숙씨와 박은옥 할머니의 구술 또한 우연하도고 즐거운 만남이었다. 새벽시장에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는 설정숙씨는 새벽시장이 한바탕 소동을 치룬 후인 오전에 단골손님들이 앉아 약주를 나누고 있는 중에 구술이 진행되었다. 보통은 조용한 환경에서 구술을 진행하지만 생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구술자가 긴장하지 않게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시장의 분위기도 담아낼 수 있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던 구술자를 보며 그들에게 좋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에 덩달아 행복해지던 시간이었다.

박은옥 할머니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억척스런 삶을 대변해주듯 대장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 살아가기 위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다보니 여자로서의 삶은 어느새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리는 모든 어머니들의 인생과 노년에 접어들어 다시 찾는 즐거움.....

지난 5개월 동안 진행된 구술 작업으로 10명의 다양한 마을주민들과 구술을 하였고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감전동 사람들의 삶의 냄새를 나눌 수 있었다. 감전동에서 살아 행복하다는 정정자씨와 갈대빛자루에 자부심을 가지고 마을 사랑하는 배영희씨, 연탄배달하며 고생고생 말도 못했다는 윤옥자 할머니,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말투가 다르냐고 되묻던 김성순씨,

운명적인 아내와의 만남을 집요하게 묻던 우리에게 쑥스럽러운 듯 대답해주던 김종헌씨, 4H운동을 하며 청와대에서 스푼을 몰래 가져왔다던 김성한 할아버지, 외가인 안동과 동향이라 더 말이 통했던 강기숙씨,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다면서도 긴 시간 구술해주신 박은옥 할머니, 그릇까지 꺼내와 재첩 팔던 시절을 설명해주며 우리에게 더 이야기해주고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던 조정숙 할머니.....

구술이 끝난 후 『감전동 사람들 이야기』를 쓰기 위해 기억을 꺼냈던 시간은 너무도 즐거웠다. 한 사람의 역사전공자로서 책에서 배우지 못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우리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내가 살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친근한 수단인 언어대화를 통해 남길 수 있어서 구술 작업을 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내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바란다. 인생의 경험치는 그 삶이 어떠하였든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앞으로 부산의 많은 마을사가 채록을 통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감전동 사람들 이야기』 편저자
녹취록 편집 : 김혜진(경성대 외래교수)
 심현호(경성대 외래교수)
구술자료 해제 : 차철욱(부산대 교수)

부산근현대구술자료집 ①

감전동 사람들 이야기

발 행 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집·교열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시사편찬실)
발 행 일	2018년 4월 10일
인 쇄	대원애드컴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454-14
ISBN	979-11-85308-13-5
	979-11-85308-12-8(세트)

(비매품)

연 락 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051) 888-5056-5058 / FAX: 051) 888-5059

원문공개

부산시(www.busan.go.kr) 부산소개> 부산의 역사>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www.bssisa.com)